

報宗門車

通卷 第30號



延安車氏宗親會中央會

<http://www.cha.or.kr> email : cha@cha.or.kr

종보 원고 공모

1. 목적

- 종보는 문중의 품격이고 자존심이며 자랑이다.
- 좋은 원고는 종보의 품격과 질을 높여준다.
- 좋은 원고는 문중을 빛내주고 번영과 발전에 기여한다.
- 위대한신 조상님들의 업적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조명함으로써 문중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인다.
- 좋은 원고는 종인들에게 차문의 역사와 교육 자료의 근원이 된다.
- 좋은 원고는 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종중의 화합과 단결을 이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2. 원고의 내용

- 선조의 事蹟연구.
- 조상님의 업적과 역사적 사실 탐구.
- 소장하고 있는 선대의 문헌 및 유품에 관한 사항.
- 집성촌 소개/오늘을 살아가는 종친들(사회활동/모범적 개인생활)
- 종사 활동/생활수기/수필/문학작품/기타

3. 원고접수 기간

- 매년 1월1일~11월15일 17:00까지
- 문헌위원회에서 심사 후 종보에 게재 선정.

4. 표창 및 시상

- 최우수작 선정(저작권은 연안차씨종친회중앙회에 귀속한다)
- 정기총회에서 표창 및 소정의 기념품 증정.

5. 보내실 곳

-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18길 10 (연안회관, 4층) 연안차씨종친회중앙회
- 원고는 회장, 사무총장에게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중앙회 사무실로 팩스, 메일,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583-9371 팩스: 02)583-9381 메일: cha@cha.or.kr

종친회를 사칭하여 “연안차씨종사보감(延安車氏宗史寶鑑)”을 출판, 판매하는 행위는 우리 종친회중앙회와 아무 관계가 없으며 내용도 부실하오니 속지 마십시오.

연안차씨종친회중앙회

정오표

종보 제29호

1) 113쪽 17번째 줄부터 19번째 줄 까지

할아버지께서는 관심 있는 몇몇 종친의 노력으로 유실 되었던 과천에 계신 오산공 선조의 유택을 찾게 되었고 사초하기 위하여 오산공 파보(派譜)를 수단하고 오산공 선조의 유택을 정비하는데 협력하셔서 일을 마치고 집에 오셨다.

를 아래와 같이 수정 함

할아버지께서는 관심 있는 몇몇 종친의 노력으로 유실되었던 과천에 계신 오산공 선조의 유택을 찾게 되었고 사초를 하기 위하여 1960년 오산공 파보(派譜) 경자보(庚子譜) 발간 시 도청장(都廳長)을 맡아 오산공 선조의 유택을 정비하는데 협력하셔서 일을 마치고 집에 오셨다.

2) 114쪽 6번째 줄부터 9번째 줄 까지

할아버지께서는 도시개발로 망우리 문절공 선조의 유택을 평택 장안리로 면례에 참여하시었고 정비하기 위하여 도청자(都廳者)의 중책을 맡아 충무로 일가집에서 수단을 접수하고 대전 일가집에 기거하시면서 대동보 갑인보(甲寅譜)를 편집 수단 하시고 성역화(聖域化)에도 일익을 하셨다.

를 아래와 같이 수정 함

할아버지께서는 도시개발로 망우리 문절공 선조의 유택을 평택 장안동으로 면례에 참여하시었고 성역화(聖域化)에도 일익을 하셨다. 또 1974년 대동보 간행 시 도청장(都廳長)의 중책을 맡아 충무로 일가 집에서 수단을 접수하고 대전 일가 집에 기거하시면서 대동보 갑인보(甲寅譜)를 편집 수단 하셨다.

3) 114쪽 아래서 2째 줄 '계축'을 '계추(季秋)로 수정

종보표지 제호표기 변경 안내

현재까지의 종보 전면표지로는 종보의 내용(前 년도)과 발행연도가 상이 하여 혼동이 있어 금번 문헌위원회(2024.1.16.)의 의결에 따라 종보 제호를 아래와 같이 표기합니다.

- 아 래 -

현 행	변 경
車門宗報 2023年版 通卷 第30號	車門宗報 通卷 第30號



車 門 宗 報

(通卷 第30號)

目 次

I. 發刊辭(宗親會中央會 會長 車炳表)	8
1. 중앙회를 떠나면서 일가 분들께 올리는 글	10
2. 延安車氏中央會 宗旗	12
3. 延安車氏中央會 宗旗 解說	14
II. 延安車氏宗親會中央會의 沿革	14
III. 주요 文化遺産의 畫報	18
IV. 延安車氏宗親會中央會 任員紹介	31
V. 延安車氏의 由來	45
1. 延安車氏의 由來	45
VI. 선조(先祖)의 사적(事蹟) 研究	49
1. 延安車氏 世系總論	49
2. 무자보(戊子譜) 서문	60
3. 4세에 걸친 저항과 애국정신	62
VII. 종친회 자산취득 사항	85
1. 요당리 19-23 공장전경	85
2. 계약서	86
3. 중앙종중 공장취득 경위 및 主要事項	87
4. 가등기설정 접수증	88
VIII. 車門의 集姓村 紹介	89
1. 하동문중	89

2. 합천 덕후(德厚)문중	94
IX. 종친들의 기고	101
1. 은진이 이모님의 편지: 차병표 중앙회 회장	101
2. 세계 장수마을 생활탐색: 차성학 중앙회 명예회장	105
3. 뿌리 찾기, 종친은 무슨 파(派)세요?: 차배근 문헌위원장	118
4. 역겹을 뛰어넘어 우리가 된 인연: 차봉섭 이사	132
5. 토리: 차영자	134
6. 송고한 인체미술의 변천: 차상권 문헌위원	136
X. 문중을 빛낸 얼굴	143
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일가 당선인 현황	143
2. 차종희 육군준장	144
3. 차성민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원	144
4. 차민경 법학박사·미국변호사	145
5. 국제빙상경기연맹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 銀' 차준환	146
6. 2023 동계체전 차준환 금메달, 차영현 동메달 합작	148
7. 차진태 변호사 종친회중앙회 고문변호사 위촉	149
XI. 오늘을 살아가는 종친들	150
1. 오산공(五山公)파 회관 준공	150
2. 스위스 교민 차일숙님 가족, 뿌리 찾으려 종친회 방문	151
3. 차병구 종장의 삶의 궤적	153
XII. 하음	155
1. 차수웅 우성해운 창업주 별세	155
XIII. 선조 향사봉행	156
1. 懿德祠	156
2. 車陵	158
3. 得貫祖 追慕祭 奉祀	160
4. 紫巖書院·義烈祠 향례봉행	161
5. 麒思齋 剛烈公 세향	162
6. 기사채·부조묘·운장각 정비공사 완료	163
7. 剛烈公 享禮(鳳陽齋)	166

8. 도장(道藏)서당 享禮	167
9. 鳳陽문중 崇德祠 세향	169
10. 당진 東山齋 세향봉행	170
XIV. 각종회의 개최	171
1. 2023년 정기이사회	171
2. 2023년 정기총회	172
3. 2023년 주요 종직자 간담회	174
4. 2023년 수도권 및 주요당직자 임시이사회	175
5. 2023년 원로 초청 간담회	176
6. 2023년 종친 지방의회의원 간담회	177
XV. 중앙회 주요활동 내용	178
1. 주요 종사보고	178
2. 선조님 향사참석	179
3. 회관 건물수리 및 보수	179
4. 포상수여 현황	180
5. 장학위원회	181
가. 2023년도 장학금 출연내역	181
나. 장학금 수여현황	182
6. 각종 헌성금 내역	183
가. 중앙회 총회 성금자	183
나. 정기총회 물품기증	185
다. 의덕사 헌성금	186
라. 의덕사 세향 물품기증	188
마. 종보발간 성금	188
바. 일반성금	188
XVI. 중앙회 회칙	189
XVII. 가. 차문 주요 향사일(享祀日)	196
나. 지역문중 향사일(享祀日)	197
XVIII. 편집 후기	198

I. 發刊辭



中央會長 車炳表

계묘년의 마지막 달력이 낙엽처럼 떨어지고 대망의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원로종장님들과 전국에 일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에도 끊임없는 성원과 응원을 하여주신 20만 제종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덕사 담장이 해마다 장마를 견디지 못하고 훼손되는 까닭을 발견하여 공사를 한지 수년이 지나도 별다른 훼손 없이 잘 보존되고 있으며, 연안회관도 비만 오면 물이 새던 지하실도 원인을 찾아 어렵지 않은 공사로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건물 외벽도 방수와 도색을 하여 온전한 건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개발로 의덕사 부근에 있던 종토 보상금 중 세금 및 기타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일금945,562,500원의 보상금을 차성학 명예회장님 때부터 1원도 낭비 없이 정기예금 하여 오던 자금과 그간 적립하여오던 각종 가용자금을 모아 화성시 양감면에 공장용지 445평, 건물 180평을 일금 1,090,000,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1996년12월24일 연안회관을 13억원에 매입한지 26년 이 되었고, 1999년8월31일 의덕사부지(장안동285) 250평 종교부지로 매입 후 24년 만에 여러분들의 성원과 위대하신 조상님들의 음덕으로 귀한 재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종중에 부족한 자금(건물매수대금에 대한 부가세10% 45,000,000원과 등기비용 등 공과잡비)은 저희들이 잠시 융통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가 완료되면 우리가 갈망한 임대 수입이 매월 450만원 이상 발생 되리라 예상합니다.

기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일들을 소신껏 과감하게 추진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여주신 것은 집행부를 믿고 함께 고민하고 성원하여주신 차성학 명예회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이 있으시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다시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간은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려 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론화하여 2004년도에 발간된(갑신보) 대동보를 살피고 검토하여 일가 분들의 기록이 누락 되지는 않았는지, 내용에는 오류가 없

는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피며 세보(世譜) 수단(收單)을 미리미리 준비하여 누락이나 오류가 최대한 발생 되지 않도록 지역 문중과 긴밀한 정보와 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일가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고 조상님들 잘 모시는 사람은 늘 행복하고 잘 산다고 하였습니다. 의덕사 세향과 총회에 특별한 개인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안차씨종친회중앙회를 결성한지 반백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송조목종을 실천하며 면면히 이어오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튼튼한 오늘을 이루어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선배 종장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부드릴 것은 중앙회를 사칭하여 중앙회에서 서책을 판매하는 것처럼 책을 보내 책값을 보내라 독촉하는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장을 사칭하여 의덕사 세향 모실 비용이 부족하니 비용을 도와달라고도 한답니다. 이제는 사기방법도 진화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기꾼들에게 전화를 받거나 속임을 당하는 일가분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즉시 중앙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회에서는 절대로 성금을 요구하거나 책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원로 종장님들을 비롯한 20만 일가 여러분!

종보 제30호를 발간하도록 좋은 원고를 보내주신 일가 분들과 수고하신 차배근 문헌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헌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건강과 평화가 함께하시고 하고자하는 모든 소망을 모두 이루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일

延安車氏宗親會中央會 會長 車 炳 表

중앙회를 떠나면서 일가 분들께 올리는 글



명예회장 차 성 학

존경하옵는 전국에 계신 연안차씨 일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에는 산불과 수해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혹 우리 일가 중에도 아픔을 겪은 부분은 없었는지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새해에는 누구나 한번 씩 가져보는 소망이지만 올해는 더 밝고 더 희망이 있고 가슴 뛰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회고하건데 우리 연안차씨종친회중앙회는 1974년에 결성되어 50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번 종보 통권 제3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우리종친회는 선대의 종친들께서 종사에 많은 업적을 쌓아 오셨습니다.

저는 수협중앙회에서 정년을 마치고 나니 1998년에 문중에 부름을 받고 부회장직에 임명되어 종사에 임하던 중 덕망과 능력도 부족하고 지방에 있는 사람이 회장직의 중책을 맞게 되어 황당하고 몸둘바를 몰랐으나 미불유초 선극유종(靡不有初 鮮克有終) (누구나 처음 시작은 잘하지만 끝까지 잘하는 예가 드물다)란 말을 가슴에 새기며 20만 종친님들을 믿고 또한 차문의 삼대지표인

첫째 : 祖上에게 榮光되게

둘째 : 一家간에 協助하고

셋째 : 後孫에게 繁榮되게 항시 생각하며 업무에 임하면서 우선 원로 고문님들의 자문을 받고져 간담회에 모시고 문중의 현황과 업무계획 또한 문제점을 설명 드리고 자문을 받아 이사회와 총회에 상정 승인 하에 여러 종친들과도 협력을 하여 우선 공이 많으신 전 회장님들의 공덕비와 의덕사 변화공사를 전국의 일가 분들의 헌신적인 협조로 무사히 완공을 보았으며 공사 중 차득환 전 회장, 차병표 사무총장(현 회장), 차길병 관리이사께서 현장에서 수고가 많았음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장에 가서도 업자들에게 절대 식사접대 등 받지 않기로 하고 오히려 보령 유래비 성금비 제작 답사 시와 장안동 변와공사 현장에 가서 우리가 식사접대를 하고 왔으며 차득환 전 회장께서도 수시로 “수고한다. 일 잘한다.”고 간식비를 주시고 하였더니 떠나면서 한영기와 김봉대 사장이 전국의 종종 일을 엄청 많이 하였지만 차씨 문중처럼 소주한잔, 설령탕 한 그릇도 업자에게 대접받지 않고 오히려 간식비 까지 주는 문중은 처음이라고 고마웠다는 인사말을 사무총장에게 하고 떠났습니다.

위대하신 우리 선조님들과 선대의 종친님들께서 이루어놓으신 업적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송조목종 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나 지나고 보니 부족함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유능하신 현 차병표 회장과 집행부에서는 긴축재정 방안으로 총무이사의 인건비를 절약하고 층간 및 공동관리비와 전기요금을 역대회장 때에는 중앙회에서 전액 부담하던 것을 세입자에게 분담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업무개선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고맙고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래도 보람된 일이 있다면 전 회장님들의 공덕비근수, 의덕사 변와공사 완공, 밀직공 외 합동묘소 면례, 강렬공 유상과 문절공 교지 감정진품으로 확인받고, 오산선조 묘 문인석을 과천향토유적 제7호로 지정 받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어 가능하였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종친회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분골쇄신(粉骨碎身) 하는 중앙회 집행부와 임원들께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갑진년 청룡의 새해에는 종친회발전과 일가님들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延安車氏宗親會中央會 宗旗

延安車氏 宗旗 解說

1. 총론

무궁화(無窮花)에 싸인 단본(單本)인 차문(車門)은 천지만엽(千枝萬葉)과 같이 자손(子孫)이 번성(繁盛)하고 또 중앙무대(中央舞臺)에서 중심인물(中心人物)과 동량지재(棟樑之才)가 되어 국가(國家)와 민족(民族)에게 꽃을 피우는 삼한갑족(三韓甲族)의 후예(後裔)로써 지육(知育), 덕육(德育), 체육(體育)을 갖춘 원만(圓滿)한 인물(人物)이 배출(輩出)되는 것을 상징(象徵)한다.

자주(紫朱)색 바탕은 국내(國內)는 물론, 세계무대(世界舞臺)에서 응지(雄志)와 희망(希望)을 가지고 무궁무진(無窮無盡)한 발전(發展)과 복록(福祿)을 누리는 것을 상징(象徵)하는 종기(宗旗)이다.

2. 각론

- .延安車氏宗親會中央會는 車門의 宗旗임을 明示한 것이다.
- .紫朱色 바탕은 희망과 무궁무진한 발전을 상징한 것이다.
- .中央 漢子의 車자는 단본으로 내려온 차문을 상징한 것이다.
- .車자의 굽직한 획과 황색은 첫째, 황색은 임금의 곤룡포의 색깔로서 중앙을 상징하는 것이며 굽은 획은 車門에서 큰 인물들의 배출을 상징한 것이다.
-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며 대한민국 車門임을 상징한 것이다.
- .무궁화의 지엽(枝葉)은 車門의 자손이 천지만엽(千枝萬葉)과 같이 번성하는 것을 상징한다.
- .무궁화의 꽃은 車門의 각계각층에 걸쳐서 국위를 선양하고 꽃을 피우는 것을 상징한다.
- .원(圓)의 삼옥(三玉)은 라려(羅麗)조에 28분이나 승상(丞相)을 배출하였던 삼한족(三韓甲族)의 후예임을 상징하고 동시에 지·덕·체(知·德·體)의 삼위일체를 갖춘 인물들이 각계각층에 배출될 것을 상징한다.
- .은색(銀色)은 선(善)과 의(義)로 후손들이 무궁무진한 복록(福祿)을 받을 것을 상징 한다.

II. 延安車氏宗親會中央會의 沿革

- 1919. . . 기미년 봄 경성 차기륜(車基倫), 평북 차운경(車雲卿) 경기 차순식(車舜植), 경성 차상호(車相鎬) 4인이 회동하여 대종안을 발기하고 종재 모금을 시작함.
- 1920. 1. 23. 황해도 연백군 금산리 293번지 외 6필지 지목 대, 전,답 도합 992평 매입
- 1921. 11. 27. 경기도 장단군 장도면 한정동 741번지 외 1필지 지목 전, 답 1,248평 매입
- 1924. 9. 20.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망우리 5번지 지목 답 1,662평을 매입
- 1924. 6. 25. 연안차씨 대동보(甲子譜) 발간-도유사 차궁래(車肯來)
- 1955. 5. 15. 창경원 식물원에서 연안차씨 화수회 창립
- 총회 화수회장 차상원(車相轅)
- 1965. . . 차류종친회 발족과 동시 연안차씨 화수회는 해체
- 1965. . . 망우리 선영 면례위원회 결성- 위원장 차영연(車永璉)
- 1965. .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소재(지번 미상) 임야 9천평 매입
- 매수인 차진칠(車鎭七) 종장 - 사재로 매입하여 종중에 기증함.
- 1971. 4. 13. 평택시 장안동 산92번지 장안동 문중 산으로
- 망우리 선묘 12위를 면례.
- 1972. . . 연안차씨 종사 사업 집행위원회-회장 차명호(車明浩)
- 1972. 9. 차류 보존위원회 구성, 차진칠 위원장 선임 당시 거금 300만원 회사로 차류의 성역화
- 1973. . 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소재 임야 9,000평 매도. 매매 가액 70만5천원(사용처 알 수 없음)
- 1974. . . 연안차씨대동보(甲寅譜)발간 도유사 차영연(車永璉)
- 1974. 11. 15. 연안차씨 중앙총본부 결성 회장 차진칠(車鎭七) 취임
- 1977. 4. 9. 임시총회 차규헌(車圭憲) 회장 취임
- 1979. 3. 20. 차문종보 창간호 발행
- 1990. 4. 28. 임시총회 차성호(車成鎬) 회장 취임
- 1991. 8. 30. 연안차씨종친회 중앙본부 사무실 매입
• 부동산 소재지: 서초구 양재동 트윈타워오피스텔

- 1991. 10. 30. 차주원(車珠元) 회장 취임
- 1992. 10. 7. 의덕사 건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 차익교
- 1992. 10. 27. 차익교(車益敎) 회장 취임
- 1992. 10. 27. 장안리 의덕사 사우 건립 기공식 거행
- 1995. 10. 24. 차득환(車得煥) 회장 취임
- 1996. 1. 26. 망우리 선영 종답 서울특별시에 수용당함
- 1996. 5. 12. 의덕사 준공식 거행: KBS 6시 내 고향 방영
- 1996. 12. 24. 연안회관 매입
· 소재지: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18길 10 6층 건물
- 1997. 4. 16. 연안회관 개관
- 1997. . . 연안차씨 대동보(甲申譜) 수단 착수
- 1998. 9. 24. 차원부 설립기 국역본 발간 출판 기념회(조선히텔)
- 1999. 8. 31. 장안동 285번지 약 250평 종교용지로 매입
- 2000. 2. 28. 차화준(車和俊) 회장 취임
- 2004. 4. 23. 연안차씨 대동보(甲申譜) 발간
- 2004. 5. 12. 의덕사 위패봉안
(신라 시중공 차무일 특성시조 이하 102위 봉안)
- 2010. 5. 1. 차상록(車相錄) 회장 취임
- 2011. 2. 24. 차주섭(車周燮) 회장 취임
- 2012. 7. 25. 의덕사 홍살문 건립 준공
- 2013. 9. 26. 의덕사 사적비 수립
- 2014. 3. 1. 차일남 회장 취임
- 2018. 3. 1. 차성학 회장 취임
- 2018. 10. 9. 차익교, 차득환 공덕비 근수
- 2019. 5. . 월파옹, 문절공 묘소 사초, 홍살문 부식으로 다시 건립
- 2019. 9. 27. 의덕사 변와공사 및 담장 전면 보수, 유래비문 수정 보완 근수, 성금비 근수
- 2019. 10. 7. 차릉에서 종친회 초대회장 차진철공 공덕비 근수
- 2020. 05. 28. 20世 합동묘소 11位 諱 密頰, 諱 宗頰 配位 미상, 諱 亨頰 配位 미

상, 諱 崇頰 配位 富有沈氏, 諱 崇質 配位 廉氏, 諱 堅質 配位 清
風金氏 아산문중 선영으로 면례 (면례추진위원장 차병표)

- 2020. 6. 11. 연안회관 소방안전시설 설치
- 2020. 6. 29. 의덕사(사당, 유물관) 고운돌 다짐, 바닥 돌사이 메지
유물관 침하된 댓돌 수리(원상복구)
- 2020. 6. 29. 의덕사 담장 배수로 공사 및 담장 안 축대 보수 공사
- 2020. 7. 14. 의덕사 안내판 스텐판으로 제작 豎
- 2020. 7. 14. 공래공 공적 불망기 제작 및 부착
- 2020. 7. 18. 의덕사(사당, 유물관, 장안문) 현판 교체
- 2021. 9. 01. 문절공 교지 및 강렬공 영정 감정 결과 진품으로 확인
- 2021. 12. 06. 오산공 차천로 선조묘, 문인석 과천향토유적 제7호 지정
- 2022. 03. 01. 제12대 차병표 회장 취임
- 2022. 06. 10. 연안회관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
- 2022. 07. 25. 의덕사 남·녀 화장실/상수도 급수시설 설치
- 2022. 08. 02. 강렬공 초상화 경기도박물관 기증
- 2023. 12. 19. 공장부지 445평, 건180평 10억9천 매매계약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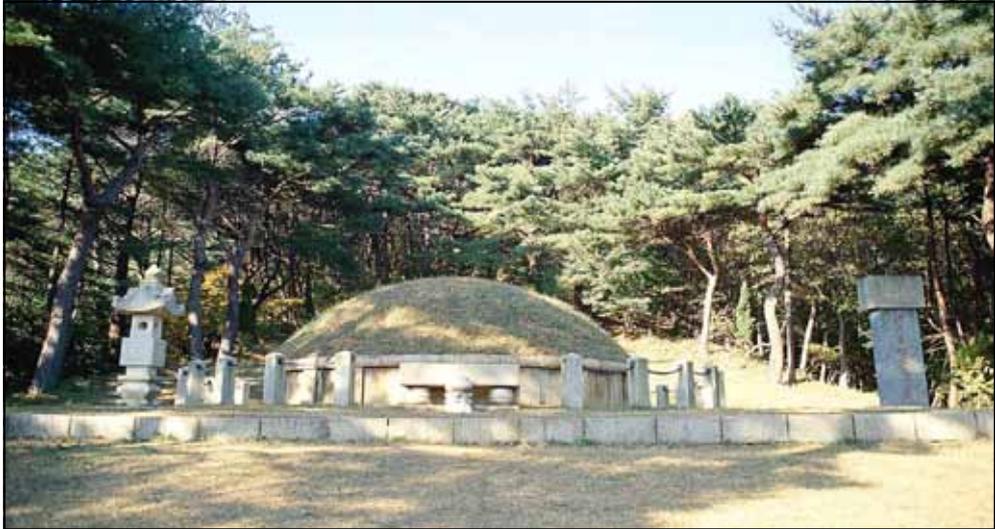
車門三大指標

- 一. 祖上에게 榮光되게
- 一. 一家간에 協助하고
- 一. 後孫에게 繁榮되게

延安車氏宗親會中央會 會館



Ⅲ. 주요 文化遺産의 畫報



△ 得姓祖32世 丞相公 諱 建申 車陵

新羅 昭聖王朝 元老丞相 哀莊王 輔相으로 나라에 勳功으로 哀莊王 命으로 王禮로 禮葬 丞相公 位牌 昭聖王廟에 配享 世稱 車陵



丞相公 諱 建申 陵山圖 ▷

新羅哀莊王時元老丞相公車建申以勳老萬化洞山麓禮葬子坐原此世稱爲傳車陵

▽五代壇 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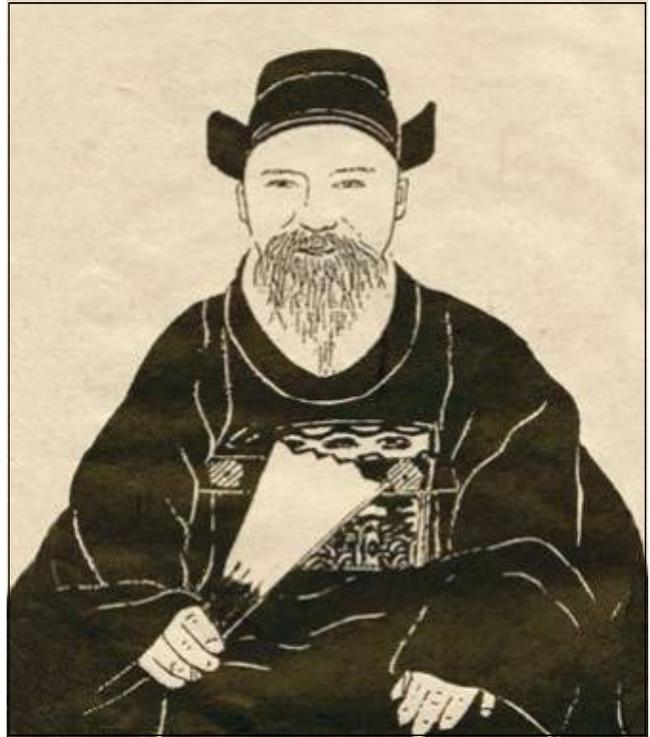
좌로부터 得姓始祖 33世孫 新羅丞相 柳穡(得姓始祖 32世 車建申의子 33世 車承穡)
34世孫 新羅司空 柳叔(34世孫 車恭叔), 35世孫 士人 柳振阜, 36世孫 海平山長 柳
茂先, 37世孫 月黑山長 柳普林



◁ 車陵 안내 표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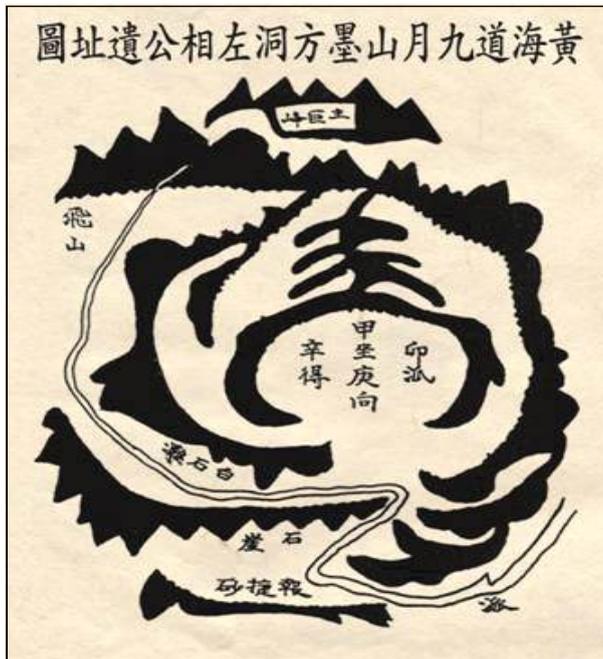


◁ 차릉의 유래 안내판



新羅左相公 慕鵝堂 ▷

諱 承穡 眞像



◁ 左相公 諱 承穡 遺址圖

所在：黃海道 九月山 墨方洞

▽得姓祖38世 大丞公 柳車達(諱 海) 柳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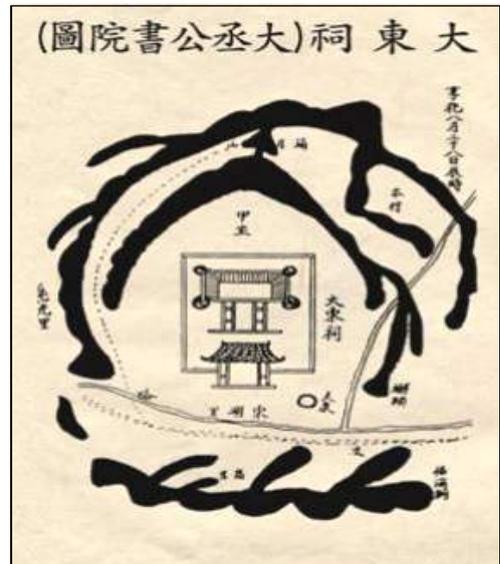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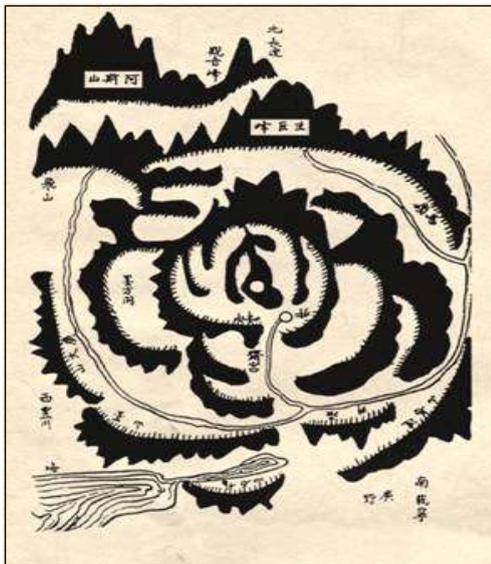


所在：黃海道 九月山 (寅坐申向之原)

▽ 大東祠 位置圖

所在：光州廣域市 光山區 東湖洞
大丞公 柳車達

▽ 大丞公 諱 海 陵山圖



延安府令宜面金巖洞延安君山圖



得貫始祖▷

延安君 諱 孝全 墓山圖
 延安君諱孝全及配位崔氏之墓
 (子坐之原列哮云)
 所在: 黃海道 金巖洞

延安江村延安君諱孝全遺址圖



◁ 延安君 諱 孝全 遺址圖

所在: 黃海道 金巖洞

▽ 德源書院 전경 및 삼현사삼선생신도비(三賢祠三先生神道碑)



경남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596-1 경남 문화재 제138호지정(1985.11.14.)
매년 3월 상정(上丁)에 세향을 지낸다. 1692년(숙종18) 지방유림의 공의로 창건.
1869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자진철폐 후 복원



△ 삼현사(三賢祠, 용산군 문목공 차포온(龍山君 文穆公 車蒲溫)
간의대부 문절공 운암 차원부(諫議大夫 文節公 雲巖 車原頰)
강렬공 쌍청당 차운혁(剛烈公 雙淸堂 車云革) 선조를 배향 儒林享祀

▽ 剛烈公 忠臣 旌閭門 화성시 향토문화재 제1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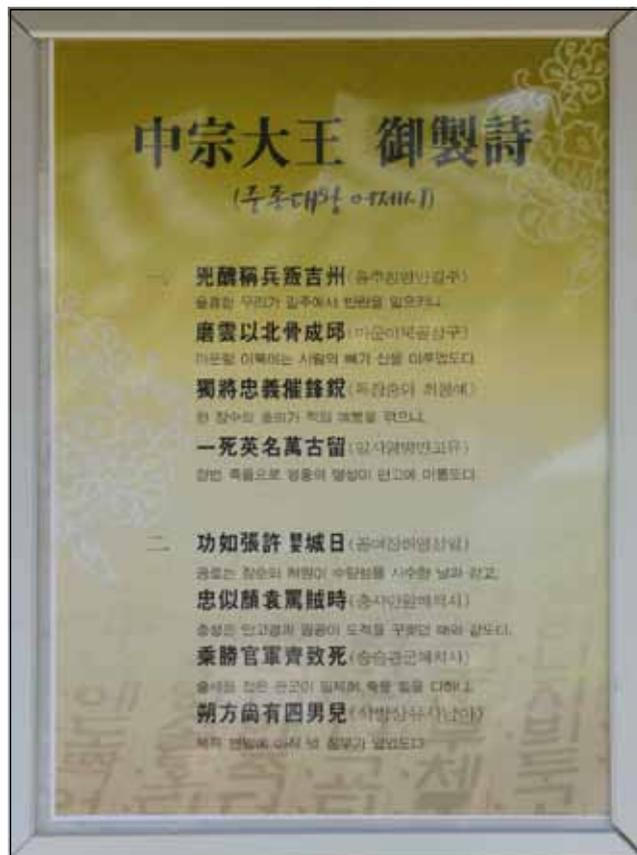


정려문이 기울고 비가새서 해체복원과 담장과 협문, 홍살문까지 화성시 전액지원으로 완성하였다.

▽ 旌閭 所在: 華城市 正南面 掛囊里 山59



△ 왕이 차운혁의 공(功)을 기리기 위하여 내려준 충신정려 정려의 내용은 “충신 세조조 정충출기포의적개공신 증 자헌대부 호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 연천군 시호 강렬공 차운혁의 門”임. “철종 11년 경신년 윤3월에 정려를 명함”



△ 陝川郡 德源書院 雲章閣 中宗大王 御製詩 2首

▽ 東山書院 書堂 / 文節公 諱 原頴, 剛烈公 諱 云革 位牌奉安



※毎年 陰 春3月15日 士林享祀 所在: 慶南 咸安郡 漆北面 南陽里



△忠烈祠

▽ 紫巖書院 ※ 奉安配享 文節公 雲巖 車原頰, 剛烈公 車云革



- 每年 陰 秋 9月 下丁日 士林享祀 所在: 蔚山廣域市 蔚州郡 熊川面 通川里
1804년(순조4)에 地方儒林의 公으로 창건, 1868(고종5)에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 후 복원



△ 紫巖書院 詩察記

▽ 鳳陽齋 전경 ※ 剛烈公 遺像 奉安(尊敬閣) / 崇德祠



△ 좌로부터 崇德祠(2018) 尊敬閣(1932) 一如門 庫舍 朝陽門 鳳陽齋(1911)
所在: 慶南 昌寧郡 梨房面 草谷里



△ 강렬공(剛烈公) 유상(遺像)을 모신 존경각(尊敬閣) 陰 3月 3日 享禮

▽文苑祠 三門 全景 / 五山公 諱 天輅 遺像(影幀) 奉安



所在: 忠南 唐津市 大湖芝面 赤鼠里



△文苑祠 祠堂 / 敬慕祭 陰 9月 15日 正午 士林享祀



△ 대전뿌리공원 연안차씨 유래 조형물

IV. 延安車氏宗親會 中央會 任員紹介

1. 역대회장 및 재임 기간



1대 車鎮七



2대 車圭憲



3대 車成鎬



4대 車珠元



5대 車益敎



6대 車得煥



7대 車和俊



8대 車相錄



9대 車周燮



10대 車一男



11대 車成學



12대 車炳表

- | | | |
|---------|--------------|-----------------|
| 1. 車鎮七 | 1974. 11. 15 | ~ 1977. 04. 08. |
| 2. 車圭憲 | 1977. 04. 9 | ~ 1990. 04. 27. |
| 3. 車成鎬 | 1990. 04. 28 | ~ 1991. 10. 29. |
| 4. 車珠元 | 1991. 10. 30 | ~ 1992. 10. 26. |
| 5. 車益敎 | 1992. 10. 27 | ~ 1995. 10. 23. |
| 6. 車得煥 | 1995. 10. 24 | ~ 2000. 02. 28. |
| 7. 車和俊 | 2000. 02. 28 | ~ 2010. 04. 30. |
| 8. 車相錄 | 2010. 05. 01 | ~ 2011. 02. 24. |
| 9. 車周燮 | 2011. 02. 24 | ~ 2014. 02. 28. |
| 10. 車一男 | 2014. 03. 01 | ~ 2018. 02. 28. |
| 11. 車成學 | 2018. 03. 01 | ~ 2022. 02. 28. |
| 12. 車炳表 | 2022. 03. 01 | ~ |

2. 顧問



顧問 車珠元



顧問 車一男



顧問 車興奉



顧問 車鎮局



顧問 車吳徹



顧問 車政演



顧問 車昌根



顧問 車古龍



顧問 車聖儀



顧問 車榮南

3. 會長團



名譽會長 車成學



會長 車炳表



首席副會長 車柄贊



副會長 車慶秀



副會長 車溶榮



副會長 車永奎



副會長 車鎮奎



副會長 車鉉澈



副會長 車亨洙



副會長 車柱洪

4. 理事



議長 車炳表



名譽會長 車成學



首席副會長 車柄贊



管理理事 車吉秉



理事 車炳天



理事 車龍載



理事 車培根



理事 車榮觀



理事 車現準



理事 車德五



理事 車載慶



理事 車判岩



理事 車相贊



理事 車文容



理事 車準澈



理事 車基宗



理事 車奉燮



理事 車相億



理事 車俊植



理事 車載天



理事 車光烈



理事 車丁煥



理事 車得根



理事 車范烈



理事 車崇秉



理事 車漢用



理事 車泰榮



理事 車炳憲



理事 車榮奎



理事 車雄煥



理事 車点龍



理事 車明水



理事 車五澈



理事 車鍾睦



理事 車太秉



理事 車基顯



理事 車台鎬



理事 車英會



理事 車鎮烈



理事 車孝烈

5. 監事



理事 車光一



理事 車承贊



監事 車慶俊



監事 車永德

6. 委員長



文獻委員長
車培根



祭禮委員長
車基宗



獎學委員長
車范烈



諮問委員長
車龍載



青年委員長
車孝烈

7. 執行部



會長 車炳表



首席副會長 車柄贊



管理理事 車吉秉



管理室長 申淑英

8. 顧問辯護士



辯護士 車鎮太

9. 市·道 宗親會

大邱慶北宗親會



會長 車光烈



事務局長 車奉燮

釜山宗親會



會長 車点龍



事務局長 車亨奎

光州全南宗親會



會長 車現準



事務局長 車普炫

大田宗親會



會長 車英會



事務局長 車德五

蔚山宗親會



會長 車五澈



事務局長 車景烈

忠北宗親會



會長 車明水



事務局長 車雲子

9. 顧問

직위	성명	생년	중시조	세수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고문	車珠元	29	오산	41	010-5459-1301	충북 음성군 음성읍 문화2길 3 (읍내리)	27700
"	車一男	40	오산	40	010-8762-2959	의정부시 전좌로204-13, 103-1601 (미도@)	11635
"	車興奉	42	강령	41	010-9003-8633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55, 316-1002 (상록마을우성@)	13611
"	車鎭局	36	강령	38	010-3066-4073	대구시 달서구 중흥로12길 47-15, C-102 (신혼빌라)	42819
"	車昊徹	37	문절	38	010-3651-5257	광주시 남구 광복마을7길, 100-1303 (한양@)	61733
"	車政演	37	문절	38	010-6234-3338	광주시 서구 화운로94, 101-1502(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	61982
"	車昌根	37	오산	40	010-4606-2520	안산시 상록구 반월새싹길19, 나동202호 (건건동, 원촌그린빌라)	15521
"	車吉龍	38	오산	41	010-3458-1178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72번길 53	34116
"	車聖儀	40	문절	39	010-2652-6968	전남 순천시 삼산로 31, 302호 (석현동, 향림@)	57937
"	車榮南	41	창주	40	010-8744-0781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250 (대동리)	10858

10. 會長團

직위	성명	생년	중시조	세수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명예회장	車成學	39	오산	40	010-3811-5757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189, 110-807(녹원맨션)	42183
회장	車炳表	46	강령	39	010-3412-7508	화성시 정남면 쾌락2길 37번길 29	18516
수석부회장	車柄贊	49	강령	39	010-6385-0701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252, 101-1205 (면목동, 현대@)	02258
부회장	車慶秀	30	창주	39	010-9014-3447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05, 102-1603 (청담동, 청담래미안)	06069
"	車濬榮	37	오산	42	010-5201-6225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원설로 799-18 (고안리)	17180
"	車永奎	39	강령	37	010-3070-5317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47번길 67 (대연동)	48506
"	車鎭奎	48	강령	40	010-9067-8245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470, 105-302(동남@)	18518
"	車鉉澈	48	문절	39	010-3859-5588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터실1길 4	44969
"	車亨洙	49	오산	41	010-5288-1741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192, 1309동 1403호 (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21561
"	車柱洪	58	문절	39	010-3696-666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9길 5	63337

11. 理事

직위	성명	생년	중시조	세수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의장	車炳表	46	강렬	39	010-3412-7508	화성시 정남면 괴랑2길 37번길 29	18516
명예회장	車成學	39	오산	40	010-3811-5757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189, 110동 807호 (지산동, 녹원맨션)	42183
수석부회장	車柄贊	49	강렬	39	010-6385-0701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252, 101-1205 (면목동, 현대@)	02258
관리이사	車吉秉	54	문절	43	010-3339-1100	평택시 이충로 16 403/1002호 (이충동, 휴머시아 추담마을)	17737
이사	車炳天	39	문절	38	010-6420-0211	충남 부여군 세도면 부흥로 1100-9	33232
"	車龍載	41	오산	39	010-7669-3289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165, 218-805(테시앙포레)	02055
"	車培根	42	전서	44	010-5044-7360	화성시 정남면 괴랑2길 83번길 56	18516
"	車榮觀	42	오산	40	010-4644-5920	오산시 수목원로430, 1307/602 (꿈에그린@)	18110
"	車現準	43	문절	39	010-8924-6337	전남 광양시 옥룡면 초암길 69	57704
"	車德五	45	오산	41	010-4408-3631	대전시 중구 성산로 9, 401호 (안영동, 동광빌라)	35084
"	車載慶	45	강렬	41	010-5281-0017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56(세종대왕기념관)	02456
"	車判岩	45	강렬	41	010-3631-1048	경남 합천군 청덕면 강북로 314-4	50251
"	車相贊	46	오산	40	010-4436-8870	서울시 양천구 공달래로5길 72, 501호 (신월동, 행복한집)	07917
"	車文容	46	오산	41	010-2004-922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235, 108-302호 (청원오송휴먼시아1단지)	28166
"	車準澈	47	강렬	39	010-6555-8534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 501-4(남산동)	46234
"	車基宗	48	강렬	44	010-2398-4944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101, 106/ 1301 (선학동, 뉴서울1차@)	21910
"	車奉燮	48	강렬	40	010-3524-3883	경북 경산시 진량읍 황제1길 86-31, 107/1506 (황제리, 창신허제타운@)	38499
"	車相億	48	오산	40	010-5336-5006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로 204, 가-304 (매주리, 골드@)	31017
"	車俊植	48	강렬	38	010-7474-9933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07, 아세아부동산	34541
"	車載天	48	강렬	37	010-6248-8490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506-14	18543
"	車光烈	50	강렬	40	010-2897-6130	대구시 동구 동북로 500, 103동 301호 (효목동, 태왕메트로시티)	41231
"	車丁煥	50	문절	40	010-2011-8584	울산시 남구 중앙로 91번길 20(신정동)	44741
"	車得根	51	강렬	41	010-4857-1668	경남 양산시 하북면 서리마을2길 47-69	50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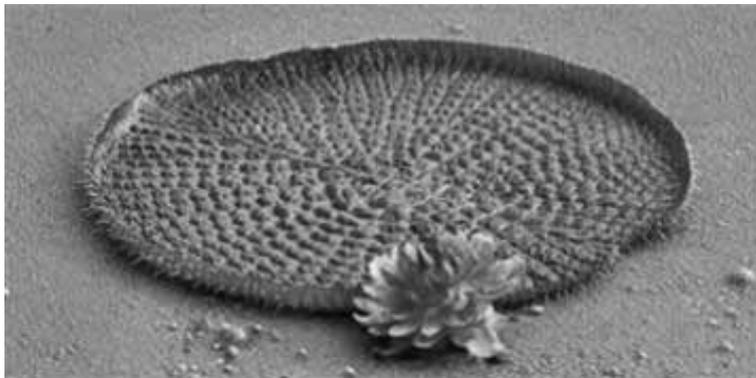
직위	성명	생년	중시조	세수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이사	車范烈	51	문절	39	010-3785-0839	평택시 세교6로 45, 207동 302호 (세교동, 힐스테이트평택2차)	17842
"	車崇秉	52	문절	43	010-6260-3080	평택시 추담로 58-78, 1006-802 (코오롱하늘채@)	17731
"	車漢用	52	강렬	43	010-3545-322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539길 5, 101-1701 (청구청산맨션)	42952
"	車泰榮	54	문절	40	010-2234-9531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499번길 127	11123
"	車炳憲	56	강렬	39	010-5473-4563	화성시 우정읍 작은낭개길 60-6	18572
"	車榮奎	56	문절	39	010-2650-1107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52, 103-1504 (치평동, 현대@)	61951
"	車雄煥	56	문절	39	010-8966-3473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45길 27, 11-101호(삼호@)	06553
"	車点龍	56	강렬	38	010-2597-7301	부산시 북구 화명신도시로70, 101/1304호 (코오롱하늘채@)	48526
"	車明水	58	오산	40	010-5466-45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546	28187
"	車五澈	58	문절	39	010-3032-8588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운길 61	44973
"	車鍾睦	58	문절	39	010-3437-0690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315 (삼정동, 대전정신요양원)	34502
"	車泰秉	58	오산	44	010-7211-5955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117번길 5(둔전리)	17027
"	車基顯	60	오산	42	010-3437-5474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대호로 805-4	31796
"	車台鎬	61	오산	41	010-3512-8585	경북 상주시 외서면 연봉5길 106(연봉리 164)	37136
"	車英會	64	오산	42	010-4455-3369	대전시 중구 산서로 81-55, 105-303 (사정동, 한솔빌라)	35057
"	車鎮烈	64	강렬	40	010-9606-9652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139번길 11-4, 1-905호 (우만동, 한효우만타운@)	16239
"	車孝烈	68	문절	39세	010-3238-1426	경기도 평택시 추담로 58-78, 1021/705 (장안동, 평택장안마을코오롱하늘채)	17731
"	車光一	71	문절	43	010-6270-9919	오산시 부원로 67-6, 109-207 (원동, 대원@)	18149
"	車承贊	87	문절	41	010-6635-2036	평택시 용죽1로 83, 1003-2602호 (e편한세상 비전센터포레)	18033

12. 監事

직위	성명	생년	중시조	세수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감사	車慶俊	47	오산	41	010-6299-5056	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종1길 12-1	32417
감사	車永德	54	오산	41	010-9372-0414	경북 상주시 동수4길 42-7, 103-703호 (무양동, 태양아너스)	37166

13. 文獻委員會

직위	성명	생년	중시조	세수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위원장	車培根	42	전서	44	010-5044-7360	화성시 정남면 괴량2길 83번길 56	18516
위원	車成學	39	오산	40	010-3811-5757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189, 110동 807호 (지산동, 녹원맨션)	42183
"	車政演	37	문절	38	010-6234-3338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4, 101동1502호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1단지)	61982
"	車根甲	39	오산	40	010-9601-3598	전북 군산시 대학로 114-1, 5동 706호 (금광동, 삼성@)	54114
"	車聖儀	40	문절	39	010-2652-6968	전남 순천시 삼산로 31, 302호 (석현동, 향림APT)	57937
"	車榮南	41	창주	40	010-8744-0781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 250(대동리)	10858
"	車載慶	45	강렬	41	010-5281-0017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56(청량리동) 세종대왕기념관	02456
"	車奉燮	48	강렬	40	010-3524-3883	경북 경산시 진량읍 황제1길 86-31. 107/1506호(황제리,청신황제타운A)	38499
"	車柄贊	49	강렬	39	010-6385-0701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252, 101/1205 (면목동,현대A)	02258
"	車相權	53	강렬	42	010-6403-4226	대전시 서구 정림로 55, 117/105호 (정림동,우성1차A)	35397
"	車雄煥	56	문절	39	010-8966-3473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45길 27, 11/101호 (방배동, 삼호@)	06553
"	車長燮	59	강렬	40	010-5375-208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교동)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양과정	25913



14. 祭禮委員會

직위	성명	생년	중시조	세수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위원장	車基宗	48	강렬	44	010-2398-4944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101, 106-1301 (선학동, 뉴서울1차@)	21910
위원	車德五	45	오산	41	010-4408-3631	대전시 중구 성산로 9, 401호 (안영동, 동광빌라)	35084
"	車相贊	46	오산	40	010-4436-8870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5길 72, 501호 (신월동, 행복한집)	07917
"	車載天	48	강렬	37	010-6248-8490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506-14	18543
"	車敏煥	50	강렬	43	010-8990-1375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4, 4만세로 45	31798
"	車相旻	51	강렬	42	010-6401-1267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날개로 355-13	31798
"	車崇秉	52	문절	43	010-6260-3080	평택시 추담로 58-78, 1006-802 (코오롱하늘채@)	17731
"	車載宇	52	강렬	40	010-3742-2839	화성시 장안면 석포2리	18574
"	車漢用	52	강렬	43	010-3545-322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539길 5, 101-1701 (청구청산맨션)	42952
"	車吉秉	54	문절	43	010-3339-1100	평택시 이충로 16, 403동 1002호 (이충동, 휴먼시아 추담마을)	17737
"	車泰榮	54	문절	40	010-223409531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 499번길 127	11123
"	車炳憲	56	강렬	39	010-5473-4563	화성시 우정읍 작은낭개길 60-6	18572
"	車鎮亨	60	강렬	41	010-6345-1574	화성시 정남면 괴량2길 17번길 57	18516
"	車光一	71	문절	43	010-6270-9919	오산시 부원로 67-6, 109/207 (월동, 대원@)	18149

15. 獎學委員會

직위	성명	생년	중시조	세수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위원장	車范烈	51	문절	39	010-3785-0839	평택시 세교6로 45, 207동 302호 (세교동, 힐스테이트평택2차)	17842
위원	車現準	43	문절	39	010-8924-6337	전남 광양시 옥룡면 초암길69	57704
"	車德五	45	오산	41	010-4408-3631	대전시 중구 성산로 9, 401호 (안영동, 동광빌라)	35084
"	車丁煥	50	문절	40	010-2011-8584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91번길 20 (신정동)	44741
"	車漢敦	53	강렬	43	010-3508-1924	대구시 달서구 송현로103, 102/1001호 (송현우방맨션)	42746

16. 諮問委員

(가나다순)

직위	성명	생년	중시조	세수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위원장	車龍載	41	오산	39	010-7669-3289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 165, 218/805 (신내동, 신내 데시앙포레)	02055
위원	車康鉉	61	강령	41	010-2785-0606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430, 120-502(호계편한세상)	14126
"	車光烈	55	문절	39	010-4617-3454	광주 북구 북문대로8번길 28, 102호 (운암동, 이칠맨션)	61117
"	車慶鎬	52	강령	41	010-3879-5878	부산 진구 성지로74번가길 24-20(초읍동)	47117
"	車京和	68	강령	39	010-9968-2899	의왕시 안양판교로100, 104-1301(푸르지오@)	16014
"	車根晟	53	문절	41	010-5425-2320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17, 2동 302호 (세운빌라)	33168
"	車基煥	51	강령	40	010-3730-0701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0길 20, 105-130 (답십리동, 청솔우성@)	02536
"	車大植	57	강령	41	010-9565-2621	대구시 북구 동북로131,102/1902 (양우내안예@)	41519
"	車東壹	43	강령	41	010-3582-3349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934번길 20, 103/902 (삼정@)	46928
"	車萬基	58	오산	41	010-8768-1310	충남 당진시 시곡로207-32 (시곡동)	31674
"	車明吉	50	문절	41	010-7113-9131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로23번길 23	33176
"	車文善	50	문절	41	010-5268-9860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567 523-1007호 (잠실동, 주공5단지)	05503
"	車旻柱	58	강령	39	010-9291-7557	울산 남구 팔도로41번길 39	44679
"	車柄九	41	강령	39	010-5258-1234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110, 503-502 (신봉동, 5차LG빌리지)	16814
"	車炳錄	46	강령	39	010-3788-4477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6번길 7, 104/704 (현대아이파크)	21996
"	車柄立	57	강령	39	010-6306-2512	경남 창원군 이방면 옥천길136-3	50303
"	車炳謨	47	강령	37	010-9036-6754	화성시 장안면 버들안길 44-9	18574
"	車秉輪	44	강령	38	010-3811-0080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80길 48-4(송현동)	42820
"	車福濬	55	문절	38	010-8767-9558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647번길 32, 202/502호 (소촌동, 송광@)	62389
"	車鳳柱	55	문절	39	010-9885-5050	광주 서구 하남대로 680번길10,504/1302호 (호반베르디움@)	61903
"	車相式	55	강령	39	010-4580-0002	울산시 남구 북부순환도로35, 109-2201 (무거위브자이@)	44629
"	車尙洙	62	오산	40	010-5226-6682	안성시 일죽면 서동대로7416-10, 104/409 (일죽IC타운)	17529
"	車相一	64	오산	40	010-6316-1146	강서구 송정로4길 30-10, 401호 (공항동 마곡파크빌)	07626

직위	성명	생년	중시조	세수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위원	車成國	57	오산	40	010-4173-7100	포천시 소흘읍 검바위길 84, 104동408호 (포천상운@)	11182
"	車狹玟	72	오산	40	010-5674-3323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20가길 22, 301호 (면목동.정원빌라)	02142
"	車成智	44	오산	40	010-9755-6030	속초시 미시령로 3337번길 6-43.302/904호 (교동현대A)	24817
"	車世運	48	강령	42	010-9301-0007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3길 3-1, 3층	50233
"	車秀煥	51	강령	40	010-3721-0701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07-10, 104-2001 (방배동, 아크로리버)	06551
"	車勝奎	56	강령	40	010-5469-2790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48, 111-807 (전농동, 전농SK@)	02532
"	車承煥	48	강령	40	010-6211-1632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8길 8, 105-503 (도곡동, 아이파크)	42738
"	車暎圭	52	오산	41	010-5126-5608	경북 봉화군 재산면 농암로 3251 (남면리 879)	36263
"	車英一	46	문절	39	010-7309-8886	광주시 광산구 사암로95번길 42, 102-102 (금호웨이퍼파크@)	62368
"	車英子	63	문절	40	010-8505-2513	울산 북구 달천로103-20, 304/1305 (달천아이파크2차)	44205
"	車榮澈	44	문절	39	010-3863-1944	부산 동래구 복천로5번길 31101/1303호(현대@)	47803
"	車暎濤	78	오산	41	010-4276-1110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1178, 101/103호 (이안 남양주A)	12195
"	車昀京	79	강령	39	010-4821-8116	화성시 동탄대로4다길 78, 3311-1101 (호반베르디움@)	18507
"	車允善	58	오산	41	010-5566-4662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165번길 16(용암동)	28762
"	車潤桓	58	문절	43	010-3268-7876	충남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두런길 78	32451
"	車日淳	42	강령	38	010-9564-5061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28길8 (낙원동 신한빌딩 5층)	03133
"	車殷喆	70	강령	41	010-5347-8356	화성시 전나무골길 46-8(장지동)	18510
"	車義錄	55	오산	41	010-4180-4529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48, 101-903(성원@)	03719
"	車長雄	40	강령	40	010-3338-4773	평택시 송탄로 170,112/1203호 (서정동,롯데캐슬)	17780
"	車載憶	65	강령	41	010-3817-6162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로172-26	39868
"	車鍾淳	45	강령	38	010-2882-8342	부산시 동래구 쇠미로 119번길85 102-1205 (사직동, 유원아파트)	47871
"	車柱琬	54	강령	39	010-4063-0708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51, 211-103 (거여동, 이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	05764
"	車濬善	70	오산	42	010-5937-8920	충남 서산시 온석2길 47-12	31966
"	車濬完	55	강령	42	010-4410-6157	구리시 동구릉로85번길 63, 401/2502 (아름마을인창래미안@)	11914

직위	성명	생년	종사조	세수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위원	車昌會	58	문절	41	010-4555-3620	충남 예산군 신양면 청신로388(신양리)	32453
"	車天淳	47	강렬	38	010-9057-4395	경남 창녕군 이방면 새실길 141-2	50301
"	車台煥	54	강렬	40	010-9539-5754	경남 창녕군 이방면 새실길 130-11	50301
"	車泰煥	63	강렬	40	010-8266-879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화산로 172	28101
"	車判洙	46	강렬	38	010-8312-8685	대구시 달서구 비슬로2724, 102/2007 (대곡한라하우젠트)	42765
"	車判淳	52	강렬	38	010-3820-9581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85길 120 (송현동)	42738
"	車炯昊	69	오산	41	010-3399-4733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99, 111-2001 (잠실동, 잠실엘스)	05501
"	車漢敦	53	강렬	43	010-3508-1924	대구시 달서구 송현로103, 102-1001(송현우방맨션)	42746
"	車憲淳	53	강렬	38	010-2053-2457	경남 창녕군 이방면 새실길 130-1	50301
"	車洪奎	52	강렬	40	010-9036-2842	화성시 동탄반석로96, 403-1503 (반송동, 경남아너스빌@)	18456
"	車洪乾	57	강렬	41	010-6449-2276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대로 5길 57, 201-2003(대구테크노폴리스남해오네뜨2차)	43016
"	車桓復	41	문절	40	010-2308-4941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454, 702 (개금동)	47323
"	車興洙	43	문절	40	010-2973-5242	충남 부여군 부여읍 백제문화로161번길 3-10	33130
"	車相弼	78	오산	40	010-6625-1295	전북 전주시 덕진구 떡전4길 29, 301호(금암동)	54932
"	車文淳	44	강렬	38	010-2508-8576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274, 5-1407호(궁전맨션)	42099
"	車錫哲	53	오산	41	010-6296-9710	남양주시 도농로 34, 307-503(플로리움@)	12251



17. 青年委員會

직위	성명	생년	중시조	세수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위원장	車孝烈	68	문절	39	010-3238-1426	평택시 추담로 58-78, 1021/705 (장안동, 평택장안마을코오롱하늘채)	17731
위원	車敏煥	50	강렬	43	010-8990-1375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4. 4만제로 45	31798
"	車相旻	51	"	42	010-6401-1267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날개로 355-13	31798
"	車載宇	52	강렬	40	010-3742-2839	화성시 장안면 석포2리	18102
"	車相連	53	오산	40	010-3395-0528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안터2길 19, 207/601 (신도보래뉴2차@)	31233
"	車吉秉	54	문절	43	010-3339-1100	평택시 이충로 16, 403-1002호(휴먼시아 추담마을)	17737
"	車泰榮	54	문절	40	010-223409531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 499번길 127	11123
"	車明燮	55	문절	39	010-4644-8259	포천시 신북면 독곡1길 34-32	11139
"	車德煢	56	문절	40	010-6287-5330	포천시 화현면 금강로 4036-18	11123
"	車炳憲	56	강렬	39	010-5473-4563	화성시 우정읍 작은낭개길 60-6	18572
"	車炳澤	57	강렬	39	010-3245-2450	화성시 우정읍 조암로 52-6, 나/102 (삼괴@)	18566
"	車泰秉	58	오산	44	010-7211-5955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117번길 5(둔전리)	17027
"	車鎮儀	59	강렬	40	010-3688-2826	화성시 장안면 석포2리	18574
"	車炳周	61	강렬	39	010-3765-1673	오산시 현충로 72번길 41, 101-609(현대@)	18116
"	車信奎	61	강렬	40	010-5319-6171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 260번길 36.105/1403 (매탄동, 현대힐스테이트A)	16532
"	車鎮亨	61	강렬	41	010-6345-1574	화성시 정남면 쾌랑2길 17번길 57	18516
"	車光鎬	62	문절	41	010-6358-5805	오산시 큰말길 1(세교동)	18574
"	車鎮烈	64	강렬	40	010-9606-9652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39번길 11-4, 1/905 (우만동, 한효우만타운A)	16239
"	車東基	66	강렬	40	010-5358-0577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04번길 29	16273
"	車起烈	66	문절	39	010-9883-3629	평택시 지제동삼1로 91, 106-902 (세교동, 힐스테이트지제역)	18026
"	車在潤	69	강렬	41	010-4759-9123	화성시 향남읍 발안남로66, 109-903(우림@)	18596
"	車榮駿	70	오산	42	010-5214-9123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8번길 22, 1404-1001	16402
"	車光一	71	문절	43	010-6270-9919	오산시 부원로 67-6, 109/207 (원동, 대원@)	18149
"	車賢敏	74	문절	44	010-2777-2069	평택시 장안길 32(장안동)	17738
"	車承贊	87	문절	41	010-6635-2036	평택시 용죽1로 83, 1003-2602 (e편한세상 비전센터포레)	18033

V. 연안차씨의 由來

연안차씨(延安車氏) 유래문(由來文)

<2020.5.25.임시이사회 의결>

황제(黃帝)의 후손인 사신갑(姒辛甲)께서 고조선 때 평양 일토산(一土山) 아래에 살면서 성을 왕씨(王氏)로 하고 이름은 조명(祖明)이라 하였다. 고조선 말 그의 후손 왕몽(王蒙)이 기자조선 준왕(準王)의 모함을 받아 7남 림(琳)과 함께 지리산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

이 때 몽(蒙)은 자손 번창을 위하여 성을 세 번 바꾸어 차씨(車氏)로 하고 이름은 무일(無一)이라 하였다. 공은 신라를 세울 때 시중(侍中)이 되었으며, 차씨 득성시조(得姓始祖)가 되었다.

차무일의 32세손인 건신(建申)께서 신라39대 소성왕 때 승상 벼슬에 있었는데 소성왕께서 태자를 잘 보살펴 달라는 왕의 유언에 따라 12세로 보위(寶位)에 오른 애장왕을 보필하시다가 아들 승색(承穡)에게 다시 왕을 보필할 것을 부탁하고 별세하시니 왕례(王禮)로 기장 만화동에 예장케 하였다. 이때부터 차릉(車陵)이라 하고 신위(神位)도 소성왕 종묘에 배향되었다. 그 후 왕의 숙부인 김언승(金彦昇)이 반역하여 왕위를 빼앗아 헌덕왕(憲德王)이 되었다.

차승색(車承穡)께서는 아들 공숙(恭叔)과 더불어 헌덕왕을 살해하려다 누설되어 황해도 구월산(九月山)으로 피신, 성을 류씨(柳氏)로 이름을 색(穡)으로 하고 아들은 숙(淑)으로 바꾸어 살았다.

고려 태조 남정(南征)시 류씨(柳氏) 6세인 해(海)께서 수레를 많이 내어서 군량의 길이 통하였으므로 차달(車達)이라고 사명(賜名)하였고 삼한(三韓)을 통합하자 익찬벽상2등공신(翊贊壁上二等功臣)으로 대승(大丞)이 되었다. 수공(首功)을 세운 장자 효전(孝全)에게는 개국정사1등공신(開國定社一等功臣)에 책록하고 대광지백

(大匡之伯)벼슬을 제수 받고 선대의 큰 공업을 승습(承襲)하기 위해 특별히 차씨(車氏) 성(姓)을 내리고 종적(宗籍)을 연안(延安) 땅으로 하였다.

차문(車門)은 신라·고려조에 수많은 문무장상(文武將相)이 대를 이어 배출된 명문 집안이다.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 군부판서(軍簿判書) 용산군(龍山君) 차포온(車蒲溫)은 고려가 원(元)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때 국방 및 외교로 뛰어난 활약을 하신 고려의 명신이며, 차문의 자랑스런 현조(顯祖)이시다. 불의(不義)에 굴하지 않았던 고려 말 성리학(性理學)의 대가이시며 고려조 간의대부(諫議大夫) 운암(雲巖) 차원부(車原頴)께서 조선 개국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추살되시고 차씨 문중도 멸족지화(滅族之禍)를 당하였다. 태조(太祖)의 질책으로 태종(太宗)은 공의 영혼을 위로하는 치제(致祭)를 올렸다.

다행히 세조(世祖) 2년에 왕명으로 박팽년(朴彭年)의 5인의 기문(記文)과 유신 석학(儒臣碩學) 40여 인의 응제시(應製詩)를 모아 예조참판(禮曹參判) 하위지(河緯地)가 서문(序文)을 지어 엮은 차원부 설원기(車原頴 雪冤記)에 의하여 억울한 사실을 소명하기도 하였다.

차씨 문중에는 세조 13년 이시애(李施愛) 난의 평정(平定)에 공(功)을 세운 강렬공(剛烈公) 운혁(云革),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평양성 수복(平壤城 收復)의 로포문(露布文)을 지어 명(明)나라를 놀라게 한 동방문사(東方文士) 오산공(五山公) 천로(天輅)와 같은 명조(名祖)·현조(賢祖)님들이 많이 계셨다.

근대(近代)에는 포우단(砲牛團)을 만들어 독립운동을 하신 도선(道善), 대동공보(大同公報)를 창간(創刊)하고 독립운동을 하신 석보(錫甫),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큰 활약을 하신 리석(利錫) 외 많은 독립유공자에게 정부 건국훈장이 수여되었으며 이 분들이 차씨 문중을 빛내고 있다.

차씨 문중은 절개 굳은 충신·공신·의사와 열사가 유달리 많은 종문(宗門)이며, 명문(名門) 갑족(甲族)다운 긍지(矜持)를 잃지 않고 자자손손(子子孫孫) 계승(繼承)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유래문 개정안 작성에 참고한 문헌>

1. 고려대승문화류공신도비명 (黃海道 九月山, 柳陵의 現況)
2. 원파록 병견 기사보 수(源派錄 竝見 己巳譜 首). 유처후 공 (1689년 발간)
3. 차원부 설원기, 박팽년 외 (1456년, 경태 7년, 세조 2년)
4. 대동운부군옥, 권문해, 1589년
5. 류지원의 글, 광해조 1609~1623
6. 차헌기의 기록 (왕배조로부터 얻은 기록, 일명 강남보 1632)
7. 차식의 신도비명. 유몽인 1619
8. 씨족 원류 조종운. 1652
9. 대승공 신도비명, 1863년 남병철 찬(撰)과 1909년 이용원 찬(撰)
10. 증보문헌비고, 고종의 명으로 박용대·조승광 외 30여명 공저
11. 차류문의 족보에 대한 고찰, 연안차씨 문헌위원회. 차문종보 통권 19호
2012년 12월 발간 53~94쪽
12. 연안차씨 최초 족보 戊子(1708)보 서문, 세재 병술 8월 대광보국송록대부
의정부우의정 유상운 서
13. 연안차씨세보 서, 1764년 승정후 갑신 4월 상완 가선대부이조참판 장수
황경원 서

<대광지백, 대광백, 대광백 연안군, 연안군 등 어떤 호칭을 쓸 것인가?>
문헌위원회에서 위 내용의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까지 써온 문헌을 참조 아래와
같이 의결하기로 하다.

- 아 래 -

대광(大匡)의 사전적 의미 (신기철·신용철 저 <새 우리말 큰 사전>)

1. 태봉의 관호의 하나
2. 고려초 문무 관계(官階)의 하나. 성종14년(995)에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로 고쳐 문관의 품계로 사용

※¹ 開府儀同三司: 고려때 가장 높은 정1품의 文官品階

□ 결 론 □

‘어느 호칭이 맞고 틀리다’고 지적할 수 없다. 그러나 2004년 대동보(大同譜) 수단시 대광지백(大匡之伯)이라 하였으니 가능한 한 대광지백(大匡之伯) 연안군(延安君)으로 통일하여 쓸 것을 권장한다. (문헌위원 전원 찬성)

高麗大丞公文化柳公神道碑銘

公姓柳氏車達文化人也初諱海字應通鵝沙其號也當麗祖之南征羅濟多出車乘以張軍威贊成統一策壁上勳官大丞封開國公卒葬文化九月山柳氏之貫文化者大勝其鼻祖也謹按家乘遠自軒皇時暨于我東累改賜姓後爲車氏又改柳氏有諱穉仕新羅官至左相五世而生大丞公公之考諱普林月黑山長祖諱茂先海平山長曾祖諱振阜皆隱德不耀高祖諱叔官司空司空之考即左相公世稱有豫讓國土地風唐憲宗之時居儒州因爲貫焉大丞娶新羅王闕智智孫梱女生二南長孝全延安伯襲舊姓車氏次孝金官左尹六世有諱公權金紫光祿大夫政堂文學集賢殿太學士詩若筆俱入海東雋選諡文簡文簡第一子諱彥沉官上將軍上將軍生淳官密直使密直使生成庇封文山君諡忠成第二子諱澤尙書左僕射僕射生璫僉議中贊世子師諡文正三典禮闡所得皆當世名彥文正生陞忠孝名世官至參理諡貞慎貞慎生墩以贊成致仕諡章敬有崑山君諱益貞官三重大匡入本朝有諱曼殊官左議政有諱寬官右議政諡文簡號夏亭有諱廷顯官領議政諡貞肅號月亭有諱亮官右議政諡忠景有諱思訥諡文肅有諱季聞官刑曹判書諡安肅

以下 省略

※ 黃海道 九月山 柳陵碑文에서 옮김



VI. 선조(先祖)의 사적(事蹟) 研究

1. 延安車氏 世系總論

황제(黃帝)의 공손성(公孫姓)과 희씨성(姬氏姓)으로 내려오다가 하우씨(夏禹氏)에 와서 사씨성(姒氏姓)으로 바꾸어 10여 세대를 내려와 공갑(孔甲)과 신갑(辛甲)의 형제가 나시어 장성하시매 공갑(孔甲)은 왕이 되고 신갑(辛甲)은 유루(劉累)와 같이 용(龍)을 훈련시키는 것을 배우다가 암용이 죽으매 그 고기로 젓갈을 담아서 공갑(孔甲)에 드렸더니 공갑(孔甲)이 먹어보고 맛이 좋아서 또 다시 그 고기를 구하니 신갑(辛甲)의 생각에 용의 고기라하면 공갑(孔甲)이 대노하여 벌을 주지 않을까 두려워 유루(劉累)와 같이 도주하여 요동을 건너 고조선의 평양(平壤) 일토산(一土山) 아래에 살면서 산명 일토(一土)를 합하여 왕자(王字)를 만들어 성을 왕씨(王氏)로 정하고 이름을 조명(祖明)으로 개명하고 단군조에 치민장(治民長)으로 지봉 덮는 법과 토질을 정리하여 곡식을 심게 하고 방아짚는 법과 밥 짓는 법을 가르쳐서 백성을 다스렸다.

그 후 누대를 내려와서 왕조명(王祖明)의 25세손 수궁(受兢)에 와서 기자(箕子)가 동쪽 땅에 임하여 평양(平壤)에 도읍(都邑)을 정하였다. 팔조지교(八條之教)를 만들고자 하니 풍토가 달라 나라에 어진 중용(中庸)을 얻고자 하니 사람들이 공을 천거하여 기자(箕子)는 공을 교민사사(教民士師)에 피명하여 기자(箕子)를 보필하고 팔조(八條)를 만들어 예락(禮樂) 문물(文物) 의관(衣冠)의 법도(法度)로 다스려 백성을 교화하여 풍속을 이루니 기자가 기뻐하였다. 그 후 또 여러 대를 내려와 기자조선의 준왕(準王)에 이르러 수궁의 34세손 몽(蒙)이 탄생하시니 재질이 과인(過人)하였다.

그 때에 비결(秘訣)의 동요(童謠)에 『일토초가자위왕의(一土草家者爲王矣)』라는 말이 있었다. 이 말은 곧 왕몽(王蒙)이 왕(王)이 된다 하는 것이니 이에 기자조선 준왕이 미혹(迷惑)하여 평양 일토산하에 왕씨(王氏)를 모조리 죽이고 공을 해하고자 하니 공은 일곱째 아들 임(琳)을 데리고 수난을 피하여 남쪽 지리산에 들어가 은거생활로 십여년을 고생 하시더니 어느 날 신인이 감응하시어 현몽(現夢)에 가

로되 너의 성자인 왕자(王字)를 세 번 글자를 고쳐서 성으로 정하면 이 난을 피하고 자손이 대창한다 하시니 즉시 공은 성 왕자(王字)를 동서를 막아 전자(田字)로 하고 그 후 전자(田字) 중획(中劃)을 상하로 이어 신자(申字)로 하고 그 후 신자(申字)를 상하로 양획(兩劃)을 가하여 차자(車字)로 하여 성을 차씨(車氏)로 정하고 무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뜻으로 이름을 무일(無一)로 개명하고 아들 임(琳)은 신인(神人)이 예시한 두 번째라 하여 이름을 신을(神乙)이라 개명하고 지리산을 떠나 계림(鷄林=現慶州)으로 이거하였다.

이때에 신라태조(新羅太祖)인 박혁거세(朴赫居世)는 신라 육촌 촌장의 추대로 왕(王)이 되어 도읍을 계림(鷄林)으로 천도하시니 이때에 공께서 훈공을 세우시니 신라태조는 공에게 시중(侍中)을 제수하고 성을 차씨(車氏)로 사성(賜姓)하시니 비로소 차씨가 시작되어 공은 차씨의 득성시조(得姓始祖) 일세(1世)가 되었다.

공의 아들 신을(神乙)과 손자 부기(夫起)와 증손자 유전(惟典)은 모두 벼슬이 승상(丞相)이요.

득성시조의 현손자(玄孫子) 복(復)은 벼슬이 승상이며 음즙국(音汁國: 지금 慶州인데 安東一部이다)을 정벌하여 큰 공을 세웠고 득성시조의 9세손 괘(适)와 10세손 인상(仁相)과 11세손 갑승(甲承)과 12세손 자개(自開)와 13세손 무기(武奇)와 14세손 근각(斤閣)은 모두 승상(丞相)이요.

득성시조 17세손 제능(濟能)은 미추왕조(味鄒王朝)에 승상으로 국정을 바로 정하였고 19세손 은보(殷甫)와 20세손 연광(延廣)도 벼슬이 승상이요 21세손 휘만(徽蔓)도 벼슬이 승상(丞相)으로 왜국(倭國)에 인질로 간 눌지왕(訥祗王)의 셋째 동생 미사흔(未斯欣)을 구출하기 위하여 박제상(朴提上)과 같이 왜국에 사신(使臣)으로 가서 미사흔을 구출하고 왜국에 잡혀서 왜국의 임금이 항복을 받고자 하나 굴하지 않고 박제상과 같이 일본에서 순절하였다.

공의 위패는 충남 공주 계룡산동학사(忠南公州鷄龍山東鶴寺)에 박제상(朴提上)과 같이 배향되어 있으며 22세손 지(智)와 23세손 온백(溫伯)과 24세손 순(楯)도 벼슬이 승상(丞相)이요 27세손 순계(盾階)도 벼슬이 승상(丞相)인데 선덕왕조(善德王朝)에 사병(謝病: 病을 핑계 謝絶)하고 숨어살며 나가지 않았으며 28세손 단식(段式)도 벼슬이 승상인데 신문왕(神文王) 2년 임오에 상소로 국학(國學)을 청하여 세우니 설총(薛聰) 고질(高秩)등이 예(禮)를 갖추어 스승으로 섬기며 29세손 헌(憲) 벼슬이 승상인데 경덕왕(景德王) 15년 병신에 당나라 현종(玄宗)이 안록산(安錄山)의 난을 피하여 촉중(蜀中: 地名)으로 거동을 했을 때 경덕왕(景德

王)이 공을 보내어 찾아보니 당나라 현종(玄宗)이 기뻐서 친히 십운시(十韻詩)를 짓고 그리고 수찰(手札)을 공에게 주어 왕(王)에게 내리셨다.

31세손 휘 검부(檢夫)는 벼슬이 승상인데 원성왕(元聖王) 4년 무진에 상소하여 학교(學校)를 세우고 독서출신과(讀書出身科)를 정하였고 32세손 건신(建申)은 소성왕조(昭聖王朝) 원로승상(元老丞相)으로 오래도록 쌓은 덕망(德望)으로 나라에 주석(柱石)이 되었다.

이에 소성왕은 태자는 나이가 어리어서 종족의 세력을 근심하며 공에게 주공(周公)이 주(周)나라 성왕(成王)을 업고 제후와 조회하는 그림을 주시며 세자보필을 부탁하시니 공은 고명(顧命)을 받고 세자를 도와 보위케 하시니 곧 12살의 애장왕(哀莊王)이다. 공은 애장왕의 보상(輔相)이 되시어 충성(忠誠)을 다하여 보필하시며 나라에 큰 공훈을 세우시고 별세하시니 애장왕은 만조백관(滿朝百官)에 하명하시어 왕례로 예장(禮葬)하고 공의 위패(位牌)는 소성왕묘(昭聖王廟)에 봉안 배향케 되시니 공의 묘소를 세칭차능(世稱車陵)이라 하고 그 후 신라 42대(四十二代) 흥덕왕(興德王)이 기장현(機張縣)을 차릉(車陵)이 있는 곳이라 하여 차성(車城)으로 승격 개칭하니 이것이 기장군(機張郡)의 고호이다.

득성시조의 33세손 승색(承穡)은 애장왕조(哀莊王朝)에 벼슬이 좌상(左相)인데 애장왕(哀莊王) 10년 기축에 왕숙(王叔)인 김언승(金彦昇)이 애장왕(哀莊王)을 시해하고 자립헌덕왕(自立憲德王)이라 하니 좌상공(左相公) 휘 승색(承穡)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아들인 신라 벼슬 사공(司空) 휘 공숙(恭叔)과 더불어 임금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언승(彦昇)이 사냥을 나갈 때를 엿보아 궁수(弓手)를 사냥길목 다리밑에 복병으로 거사를 도모하였으나 계획이 누설되어 김언승이 발병(發兵)하여 체포하려 하니 공의 부자(父子)는 생질(甥姪)인 요동백(遼東伯) 김생(金生)의 집으로 피하였다. 언승(彦昇)이 공(公)의 부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현상으로 금 천근(金千斤) 식읍만호(食邑萬戶)로 찾으니 김생(金生)이 현상을 탐을 내어 외숙(外叔)의 부자(父子)를 해하고자 하니 생질(甥姪)의 종이 이를 알고 공에게 알리니 공의 부자(父子)는 밤을 타서 도주하여 유주 구월산 묵방동(墨坊洞)으로 들어가 조모의 성 양씨(楊氏)로 하였다.

이 양자(楊字)가 뜻이 같은 류자(柳字)로 하고 이름을 백(栢)으로 개명하였으며 그 아들 휘 공숙(恭叔)은 이름을 숙(淑)으로 개명하여 유주의 거부(巨富)의 집에 고용살이를 하면서 본 성명을 지켜 내려왔다.

좌상공(左相公) 승색(承穡)의 6세손 해(海)까지 약 109년을 류씨(柳氏)로 내려

왔으며 신라좌상(新羅左相) 승색(承穡)의 둘째아들 신라사공(新羅司空) 휘 공도(恭道)는 애장왕과 헌덕왕의 변란을 피하여 옛 구성왕씨(舊姓王氏)로 복성하니 이분이 개성왕씨(開城王氏)의 시조이시며 고려태조 왕건(王建)의 증조부이며 고려국조(高麗國祖) 원덕대왕(元德大王)이시다.

휘 해(海) 선조는 삼한제일(三韓第一)의 호부(豪富)였다. 이때에 고려태조(高麗太祖) 왕건(王建)이 남정(南征)을 하였는데 휘 해(海)는 장정을 모집 고려왕실(高麗王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흥원(興原:九月山 주변 地名)땅에 조(粟)로써 진대(賑貸)하고 현릉(顯陵:高麗祖의 墓號)과 정사(定社:開國의 宗社를 定함)에 공을 세우고 남정(南征)을 할 때에 수레를 판출(辦出)하여 계량(繼糧)을 실어 곡식을 운반하여 향궐(嚮饋=軍糧)를 떨어지지 않게 한 공으로 차달(車達)이라고 사명(賜名)하였다.

고려태조는 승음수봉(承蔭受封)의 날에 휘 해(海)에게 대승(大承)의 벼슬을 제수(除授)하여 벽상이등공신(壁上二等功臣)에 봉하였고 장자 휘 효전을 본성차씨(本姓車氏)로 복성케 하시고 특별히 명하여 가로되

「念昔車氏之弘烈은既不可忘也요」

옛 차씨를 생각하면 원래의 홍열(弘烈)을 잊을 수 없고

「這間柳氏之冒稱又不可廢也라」

그간 류씨(柳氏)로 불려온 것을 또 폐함도 옳지 못 함이라 하고 큰아들 휘 효전(孝全)은 고려개국(高麗開國)의 수공자(首功者)로 벼슬 대광지백(大匡之伯)을 제수하고, 또 신숭겸(申崇謙) 복지겸(卜智謙)과 같이 개국일등공신(開國一等功臣)에 봉하여 식읍천호를 염주(鹽州)로 하사 하시니 이곳이 차씨(車氏)의 종적지(宗籍地)로 하였으며 조상의 구성차씨(舊姓車氏)의 홍열(弘烈)을 승습케 하시니 이분이 차씨(車氏)의 득관시조 1세가 되시었다.

득관시조 대광지백(大匡之伯) 연안군(延安君)의 2세 휘 수비(諱 秀毗)는 벼슬이 고려태보(高麗太保)요 3세손 휘 계인(季隣)은 벼슬이 광평시랑(廣平侍郎)이요 4세손 휘 용기(用杞)는 벼슬이 내사(內史)요 5세손 휘 백소(伯炤)는 벼슬이 시어중승(侍御中丞)이요 6세손 휘 무강(茂綱)은 벼슬이 평장사(平章事)요 7세손 휘 계한(稽漢)은 벼슬이 서평백(西平伯)이요 8세손 휘 자순(子順)은 벼슬이 유주백(儒州伯)이요 9세 휘 유개(幼塏)는 벼슬이 간의대부(諫議大夫)요 10세손 휘 중규(仲規)는 벼슬이 명종조(明宗朝)에 병마사(兵馬使) 삼한대장군(三韓大將軍)이요 려사강

목(麗史綱目)에 이르되 명종(明宗) 4년 갑오(甲午) 구월에 서경유수(西京留守) 조위총(趙位寵)의 난에 순절하셨고 11세손 휘 거수(擧首)는 벼슬이 고려직사관(高麗直史館) 대복시사(大僕侍事)요 12세손 휘 약춘(若椿)은 벼슬이 병부시랑(兵部侍郎)이요 공의 동생 휘 약송(若松)은 벼슬이 려사(麗史)에 이르되 명종십육년 십월에 장군(將軍)이 되고 무관(武官)으로 문관(文官)을 겸(兼)하였고 신종즉위(神宗即位) 정사년 11월 계사에 추밀원부사(樞密原副使)가 되고 신종 4년 신유 12월에 문하시랑(門下侍郎) 동중서(同中書) 평장사(平章事)가 되고 신종 6년 계해 12월에 중서시랑(中書侍郎) 동평장사(同平章事)가 되고 희종즉위(熙宗即位) 갑자 8월에 참지정사(參知政事)로 별세하고 13세손 휘 덕위(德威)는 벼슬이 병마사(兵馬使)요

14세손 휘 척(倜)은 려사(麗史)에 이르데 고종 삼년 병자 8월에 승상으로 전군병마사(前軍兵馬使)가 되고 거란병(契丹兵)이 창주(昌州)로부터 연주(延州)로 옮겨 주둔(駐屯)하니 개평(開平)과 원림(原林) 두 역에서 삼군(三軍)과 더불어 싸워 연주신리(延州新里)에서 이백여급(二伯餘級)을 참수하고 익일(翌日)에 또 싸워 조종수(朝宗成: 귀순해 오는 兵卒) 760여급을 참수하고 가축과 병장(兵仗)을 얻음이 넘쳐 기록이 불가하며 이로부터 적이 다시 분병(分兵)을 모아 주둔하지 않으니 개평역에서 격파하여 북방경계를 편안하게 하였고 고종 17년 경인 정월 경오에 추밀원부사(樞密原副使) 어사대부(御史大夫)가 되었다.

15세손 휘 수하(受河)는 벼슬이 중랑장(中郎將)이요 공의 동생 휘 수동은 벼슬이 시중(侍中)이요 16세손 휘 송우(松祐)는 려사(麗史)에 이르기를 공종조에 훈로이며 고종 45년 무오 3월 병자에 최충헌(崔忠獻)의 손자 최의(崔)의 조정기강(朝廷紀綱)을 문란케한 최씨(崔氏)의 무단정권(武斷政權) 타도(打倒)를 위하여 류경(柳璈), 김인준(金仁俊)등과 함께 최의(崔)를 제거하고 왕정을 복구한 공으로 위사공신(衛社功臣)이 되었고 옛 염주(鹽州)는 여러번 변천하여 고종조에 거란병(契丹兵)을 막은 공(功)이 있는 현(縣)으로 승격하여 영응현(永膺縣)인데 위사공신(衛社功臣)이 사는 현(縣)이라 하여 복주현(復州縣)으로 승격하고 이듬해에 공을 지복주사(知復州事)로 하였다.

공은 원나라 조정에 들어가서 도적을 토벌한 공(功)이 있어 은전으로 금은제기(金銀祭器)와 도형벽상(圖形壁上)을 받으시고 세은공(世恩公) 시호를 받았다. 그 후 원종조에 또 복주현(復州縣)에 사는 이분희(李汾禧)가 위사공신(衛社功臣)이

되어 승격하여 석주(碩州)로 개칭하고 고려(高麗) 25대 충렬왕(忠烈王)이 또 석주(碩州)를 승격하여 온주목(溫州牧)으로 개칭하고 26대 충선왕(忠宣王)이 모든 목(牧)이 사치하니 부(府)로 낮추어 연안도호부(延安都護府)로 개칭하니 이로부터 차씨(車氏)의 종적명(宗籍名)을 연안(延安)으로 개칭하고 득관시조는 연안군(延安君)으로 칭존(稱尊)하며 오늘날 까지 내려오고 있다.

17세손 휘(諱) 득규(得珪)는 벼슬이 도총제장군(都摠制將軍)이요 충열왕 7년 신사에 경사(京師=京洛)의 조회(朝會)에 들어가 시종(侍從)의 공(功)을 세워서 사직(社稷: 國家를 말함)에 의론하여 상전(賞典: 상품으로 받은 물품)을 내리고 충열왕 8년 임오에 또 시종보좌록(侍從輔佐錄)에 전민(田民)을 내리고 자손을 쓰게 한 기록이 상세히 있다.

18세손 휘 포온(蒲溫)은 공민왕 원년 임진에 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 군부판서(軍部判書)요 공민왕3년 갑오에 용산군(龍山君)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요 공민왕5년(恭愍王五年) 병신(丙申)에 지도첨의(知都僉議)요 공민왕육년 정유에 동경유수(東京留守) 동중서(同中書) 좌평장사(左平章事)요 시호 문목공(文穆公)이시며 두 번의 사신(使臣)으로 연저수종록(燕邸隨從錄)에 일등공신(一等功臣)으로 기록 되었고 전민(田民)을 내려 자손을 쓰게 한 기록이 상세히 있다. 공의 동생 휘 만온(滿溫)은 벼슬이 충열왕조 좌대언(左代言)이요 포온(圃隱) 정몽주(鄭夢周)는 도총제공(都摠制公) 휘 득규(得珪)의 따님의 손자이다.

19세손 휘 수동(壽童)은 벼슬은 공민왕조에 정당문학(政堂文學)이며 승국명류표방록(勝國名流標榜錄)에 이르기를 고려가 망함에 조선의 신복을 거부하고 공은 정과(鄭過) 조운흘(趙云佐) 장하(張夏) 김광서(金光叙) 이중인(李中仁) 임득충(林得忠) 염저(廉訥)등과 같이 팔판사동(八判寺洞)에 은거 불사이군의 충절을 사수하여 세인이 팔판(八判)이라 칭송하였고 문학공파(文學公派)의 파조이다.

20세손 휘 밀부(密類)는 벼슬이 밀직(密直) 또는 시중(侍中)이며 문학공(文學公) 휘 수동(壽童)의 큰아들이며 둘째아들 휘 종부(宗類)는 벼슬이 참정(參政)이요 셋째아들 휘 형부(亨類)는 벼슬이 부사(副使)인데 적족지화(赤族之禍)에 다 마원(麻原)에서 죽임을 당하고 19세손 휘 명동(命童)의 초휘는 수해(壽孩)요 벼슬은 전서

(典書)며 전서공파(典書公派)의 파조이시며 적족지화에 남주(南州)로 귀양가고 큰 아들 휘 강질(剛質)은 초휘 상질(尙質)이며 벼슬은 대언(代言) 또는 총제(摠制)이며 적족지화에 서수(西陲)로 귀양가고 아들로는 큰아들 휘 덕륜(德輪) 둘째아들 휘 연(衍) 셋째아들 휘 지보(止輔)가 있다.

전서공(典書公) 휘 명동(命童)의 둘째아들 휘 공질(公質)은 벼슬이 총제대언(摠制代言)이요 적족지화에 남주(南州)로 귀양가고 큰아들 휘 지안(止安), 둘째아들 휘 지순(止順)이 있다. 전서공(典書公) 휘 명동(命童)의 셋째아들 휘 보명(寶命)은 벼슬이 참정(參政)이요 적족지화에 려흥(驪興)으로 귀양가고 큰아들 휘 종혁(從革), 둘째아들 휘 종경(從慶)이 있다. 전서공(典書公) 휘 명동(命童)의 넷째아들 휘 보륜(寶輪)은 벼슬이 정당감무(政堂監務)요 적족지화에 적지(謫地)를 두 번이나 남평(南平)으로 옮겨 의분(義憤)으로 장사(長沙)에서 굶어 죽었으며 큰아들 휘 을봉(乙鳳), 둘째아들 휘 기봉(己鳳)이 있으며 19세손 휘 종로(宗老)는 벼슬이 지방어사(知防禦使)로 권신과 간신의 그릇된 것을 보고 벼슬을 버리고 강호(江湖)에 은거하여 벼슬의 뜻을 끊고 담박한 뜻을 밝히고 몸은 인덕을 쌓으며 처사(處士)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공의 호는 월파옹(月波翁)으로 월파공파(月波公派)의 파조이시다.

20세손 휘 숭부(崇頰)는 월파옹(月波翁)의 큰아들이요 벼슬은 참정(參政)이며 둘째아들 휘 숭질(崇質)은 벼슬이 밀직부사(密直副使)인데 적족지화에 형과 함께 송원(松原)에서 죽었고 셋째아들 휘 원부(原頰)는 자(字) 사평(思平)이며 호 운암(雲巖)이요 시호는 문절(文節)이며 벼슬은 고려(高麗) 간의대부(諫議大夫) 보문각(寶文閣) 직제학(直提學) 겸(兼) 지국평장사(知國平章事)요 예설(禮說)을 고증(考證)하여 제사법전의 조리를 만들었고 정의(正義)를 지키고 요사한 불교를 배척하였고 송유사학(崇儒斯學)의 대성리학자로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와 야은(冶隱) 길재(吉再)등 제선생과 같이 그 명성이 높아 그 문하에 일시에 많은 명사가 배출하였고 신돈(辛旽)을 죽이고 임견미(林堅味)와 염흥방(廉興邦)을 제거함의 지론(持論)이 정대(正大)하였고 친척이라도 사사로이 하지 않았으며 나라를 구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평산(平山) 수운암동(水雲巖洞)에 은거하고 역리를 탐구하며 차류양성의 보판을 판각(板刻)하여 해주(海州) 신광사(神光寺)에 소장하였다. 이때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 이성계(李成桂)의 위덕(威德)이 나날이 올라감으로 최영(崔瑩)이 모의하여 천조(天朝)로 하여금 꾸짖음을 얻게 하고자 계획하여 이성계

(李成桂)의 군사(軍士)로 요동정벌(遼東征伐)을 하라 하니 이성계는 위화도(威化島)로 행군을 하면서 심중이 우번(憂煩)하여 위화도에 군사를 쉬게 하고 평원(平原)의 사냥을 빙자하고 수운암동(水雲巖洞)에 공의 오두막을 찾아가 요동정벌의 계책을 물으니 공이 가로되 「속국(屬國)이 중국을 범함이 첫째 불가함이요 제후(諸侯)가 천자를 범함이 두 번째 불가함이라」 하니 이성계는 크게 깨달아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대업(大業)을 세워 만년종사를 열어 개국하고 공훈(功勳)을 기록하는 날 조준(趙浚) 이양우(李良佑) 등이 동참을 요청하니 공이 가로되 식초(食醋) 다섯 말을 마시는 것이 편하니 공훈을 가리는 데는 불참한다 하니 세인이 그 망복(罔僕)의 충절의 뜻은 조송산(趙松山) 운홀(云佐)과 야은(冶隱) 길재(吉再)와 같다 하더라.

이태조는 만년에 국본(國本)을 정하고자 하나 마음에 의심이 있어 지식인에 문의(問議)를 생각중에 용루(龍樓)의 꿈에 운암공의 토옥중(土屋中)에 들었는지라. 드디어 소명(召命)으로 학서(鶴書)를 하루 다섯번 내리고 칙사(勅使)가 월(月)에 삼일(三日)이 있으니 공은 비록 신복의 뜻은 없으나 고구를 저버리기 어려워 권양촌(權陽村) 근(近)과 이목은(李牧隱) 색(穡)에게 서찰(書札)을 보내고 공은 초의청려(草衣靑驢)로 소명에 나가니 태조 천안(天顏)에 기쁨이 넘쳐 옛날같이 친하게 지내며 약간의 날을 머무니 임금이 미복(微服)으로 인도하여 놀면서 정언(正言)을 아들 이상으로 좋아하는데 어찌 머무는 것을 즐기지 않는가 하며 이태조는 공에게 세자(世子) 윤전책(輪傳策)을 물으니 공이 답왈 불가하다 하고 때가 태평하면 적실소생의 장자가 먼저요 세상이 난시(亂時)면 공이 있는 자가 먼저라 하고 방원(芳遠)의 공을 높이 칭찬하였다.

그 후 간자(奸子)들의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좋게 보지 않는 공을 방원(芳遠)에게 말하기를 차원부(車原頰)는 정몽주(鄭夢周)와 더불어 외종형제가 되어 명을 도우는데 오지 않고 또 사위원비(嗣位元妃)의 집에 친척의 종조항렬(從祖行列)이 되니 장차 태제(太弟=芳遠)에 이롭지 않으며 또 정몽주(鄭夢周) 최영(崔瑩) 등의 남은 무리로 결당하여 초야에서 옛보아 임금을 해할 것이니 경성(京城)에서 죽이고 저 합니다. 하고 태조 7년 무인 9월 15일에 이숙번(李叔蕃)으로 하여금 송원(松原)과 마원(麻原)에서 공의 삼사종형제와 친족 칠십여인의 대륙적족지화(大戮赤族之禍)를 입히고 신광사(神光寺)에 소장된 차류보판(車柳譜判)과 문헌을 분당하고 공의 배위 정경부인(貞敬夫人) 평산신씨(平山申氏) 또한 태조 7년 무인 9월 21일에 참화를 당하였고 휘 송부(崇頰)의 생모 파평윤씨(坡平尹氏)는 정주(定州)로 귀양

가고 휘 송질(崇質)의 생모 안동김씨(安東金氏)는 안주(安州)로 귀양 갔으며 차씨 친족은 조선개국의 역적의 누명을 입어 멸족의 수난을 당하였다.

이 비참함을 다 말할 수 없으며 문절공(文節公) 휘 원부(原頴)의 아들 21세손 휘 안경(安卿)은 벼슬이 고려조 중랑장(中郎將)이요 조선 태종(太宗)이 현량(賢良)으로 특별히 칭송하여 이품직을 추증하였으며 태종조(太宗朝)에 적족지여화로 자액(自縊)하시니 수는 54세(五十四歲)요 세종조(世宗朝)에 좌찬성(左贊成)에 추증(追贈)되었으며 공의 아들 휘 상도(尙道)는 벼슬이 고려 성균관(成均館) 진사(進士)요 태종조에 현량(賢良)으로 특별히 칭송하여 이품직(二品職)에 제수 되었으나 적족지여화(赤族之餘禍)의 두려운 생각이 들어 청맹(靑盲)과 나병자(癩病者)로 위장하여 처자를 데리고 청량동(淸涼洞) 이함장(李誠長)의 집에 기식하다가 그 후 순흥(順興)으로 도주하여 그 두 아들 휘 계생(繼生) 휘 중생(仲生=繼方)을 조명(趙溟)의 가노(家奴)인 금석(金石)에게 맡겨 숨어살게 하고 가정명 임성부(林成富) 혹은 선생(善生)이라 말하고 7년간 순흥에 사는 재인(才人=백정) 이종실(李宗實)의 집에 고용살이를 하다가 그 후 해주 신광사(神光寺)에 사문(沙門)으로 과생거사(誇生居士)라 하고 5년간 여생을 기식하며 피난생활을 하다가 고향의 옛집에 돌아와 태종 12년 임진년에 별세하시고 세종 29년 정묘에 충정공 황보인(黃甫仁)과 충정공 박팽년(朴彭年)이 진언으로 세종대왕이 운암공(雲巖公) 휘 원부(原頴)에게 문절(文節)이란 시호를 내렸고 그 손자 휘 상도(尙道)는 좌찬성(左贊成)에 추증(追贈) 되었다.

진사공 휘 상도(尙道)의 셋째아들 휘 중연(仲連)은 유일한 유복자로 강보유아(襁褓幼兒)로 어머니를 잃고 유모 학금(學今)에 의하여 구사일생으로 자라 나라의 은전을 입었다.

월파옹(月波翁) 휘 종로(宗老)의 넷째아들 20세손 휘 원명(原命)은 벼슬은 도총제(都摠制)요 적족지화로 선산(善山)으로 귀양 갔으며 아들 21세손 휘 현경(顯卿)이 있다. 월파옹(月波翁)의 다섯째아들 20세손 휘 견질(堅質)은 벼슬이 찬성(贊成)이며 회령(會寧)으로 귀양 가고 아들 21세손 큰아들 휘 안기(安耆)는 벼슬이 고려조에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 광주병마사(廣州兵馬使) 상주국(上柱國) 상장군(上將軍)이며 적족지화로 영변(寧邊)으로 귀양 갔고 찬성공(贊成公) 휘 견질(堅質)의 둘째아들 21세손 휘 운혁(云革)은 벼슬이 어모장군(禦侮將軍) 충좌위좌부사직(忠佐衛左部司直) 겸사복장(兼司僕將) 정충출기포의(精忠出氣布義) 적개일등공신(敵愾一等功臣) 연천군(延川君)이며 적족지화에 북변으로 귀양가 초배(初

配)때는 쌍성(雙城)의 관노요 재배(再配)때는 길주(吉州)의 관노요 삼배(三配)에 회령(會寧)의 관노의 수난을 당하였다. 그 후 세조 13년 정해에 이시애(李施愛)의 변난에 단천옥(端川獄)에서 순절 하였으며 찬성공(贊成公) 휘 견질(堅質)의 셋째 아들 21세손 휘 운포(云苞)는 벼슬이 통덕랑(通德郎)이며 적족지화로 북변으로 귀양 갔으며 월파옹의 여섯째 아들 20세손 휘 견명(堅命)은 벼슬은 대명국(大明國)의 진사(進士)며 중국에 후손이 살고 있으며 월파옹의 일곱째아들 휘 원석(原碩)은 서출(庶出)로 벼슬이 시어사(侍御使)이며 북변(北邊)에 세 번 옮기다가 대명국(大明國)의 왕후 초친(椒親)으로 중국으로 들어갔으며 여서(女婿)는 동원인(東原人) 함부림(咸傅霖)이요 월파옹의 여서(女婿)는 성주인(成州人) 도길부(都吉敷) 강진인(康津人) 안정(安定) 안동인(安東人) 권중화(權仲和)이며 문목공(文穆公) 휘 포온(蒲溫)의 넷째아들 20세손 휘 안로(安老)는 벼슬이 상장군(上將軍)이며 상장군공파(上將軍公波)의 파조이시며 공의 큰아들 20세손 휘 의남(倚南)은 벼슬이 별관어사(別官御史)요 상장군공 휘 안로(安老)의 둘째 아들 휘 지남(指南)은 벼슬이 총제(摠制)요 남중(南中)으로 귀양가 죽었다.

상장군 휘 안로(安老)의 여서(女婿)는 파평인(波平人) 윤번(番) 장흥인(長興人) 주언방(周彦邦) 서녀서(庶女婿) 진주인(晋州人) 강승윤(姜承裕)의 여서(女婿) 진주인(晋州人) 하운인(河允隣)이요 그의 아들이 하륜(河崙)이다. 세은공(世恩公) 휘 송우(松祐)의 둘째 아들 17세손 휘 덕규(德珪)는 벼슬은 중랑장(中郎將) 광주병마사(廣州兵馬使)요 송림백(松林伯)이며 송림백공파(松林伯公波)의 파조이시다.

송림백공 휘 덕규(德珪)의 큰아들 18세손 휘 진(珍)은 벼슬이 시중(侍中)이요 그 아들 19세손 휘 중문(仲文)은 벼슬이 예빈경(禮賓卿)이며 귀양을 혹은 가까이 혹은 멀리 옮겨서 면죄(免罪)의 대상이나 사면을 받지 못하였다. 그 아들 20세손 휘 인부(仁頹)는 벼슬이 시중(侍中)이며 그 아들 휘 치남(致南)이 있다. 송림백공 휘 덕규(德珪)의 둘째 아들 18세손 휘 진(璣)은 벼슬이 령동정(領同正)이요 그 아들 19세손 휘 인수(仁守)는 벼슬이 현감령동정(縣監領同正)이며 그 아들 20세손 휘 성부(聖頹)는 벼슬이 좌우위보승랑(左右衛保勝郎)이며 시호(諡號) 문양공(文襄公)이다.

송림백공 휘 덕규(德珪)의 셋째아들 18세손 휘 공윤(公胤)은 벼슬이 충열왕조에 중랑장총파(中郎將摠把)요 그 아들 19세손 휘 안도(安道)는 벼슬이 공민왕조에 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며 호종일등공신(扈從一等功臣)에 기록되고 도형벽상(圖形壁上)하였고 공의 아들 20세손 휘 중부(仲頹)는 벼슬이 공민왕조(恭愍王朝)

에 정당문학(政堂文學) 겸 참정(參政)이며 적족지화로 장성(長城)으로 귀양 갔다. 설원록(雪冤錄)의 기록에는 남황(南荒)으로 귀양 갔는데 죽은 곳을 알지 못한다 하고 공의 여서(女婿) 경주인(慶州人) 최습(崔隰)이며 공의 서녀(庶女)가 정도전(鄭道傳)의 처이다.

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 휘 안도(安道)의 둘째 아들 20세손 휘 인부(仁頹)는 벼슬이 시중(侍中)이며 역성혁명으로 은거하고 적족지화로 선산(善山)으로 귀양 갔다가 그 후에 송경(松京)의 옛집으로 돌아와 별세하였고 사적은 중경지(中京志)에 있다.

중랑장(中郎將) 총파공(摠把公) 휘 공윤(公胤)의 여서(女婿)는 단양인(丹陽人) 우연(禹淵)이며 공의 서녀서(庶女婿) 봉화인(奉化人) 정운경(鄭云敬)이며 그의 아들이 정도전(鄭道傳)이다.

우리 차문 일족은 조선초에 이러한 수난을 겪고 일어나 조선조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 충성심으로 나라를 돕고 명(明)나라를 문장(文章)으로 놀라게 한 27세손 오산공(五山公) 휘 천로(天輅)의 조·부·형제(祖·父·兄弟)를 세인이 삼세오문장(三世五文章)으로 칭송을 하였으며 광해 무오에 심하(深河)에서 순절한 휘 재중(載重)의 동생 휘 예중(禮重) 휘 영중(英重) 종제 휘 임중(壬重) 휘 치중(致重) 공의 아들 휘 경양(敬亮)등 육절사(六節士)와 임진난에 부령(富寧)에서 창의(倡義)한 병잡공(兵公) 휘 득도(得道) 종제 휘 응인(應麟) 휘 덕홍(德弘)등 삼의사(三義士) 또 심양옥(深陽獄)에서 충절을 지키며 순절한 풍천공(風泉公) 휘 예양(禮亮) 증(贈) 통정대부(通政大夫) 병조참의(兵曹參議)이요 학생 휘 충양(忠亮)은 증(贈) 통훈대부(通訓大夫) 군자감정(軍資監正)이요 학생 휘 원철(元轍) 증(贈) 통훈대부(通訓大夫) 장락원정(掌樂院正)으로 받은 사의사(四義士)와 근대에 임시정부 국무위원 차리석(車利錫) 항일투쟁의 독립군 차도선(車道善) 차병수(車炳修) 차천모(車天模) 차병제(車炳濟) 차병혁(車炳赫) 차인범(車仁範) 차희식(車喜植) 차병한(車炳漢) 차병철(車炳澈) 차미리사등 많은 분이 나라에서 훈장을 수여하였고 오늘날 사회에 정치인과 주석(柱石)의 인재를 배출하면서 번성하였다.

우리 일족은 일치단결하여 조선조의 수난을 극복하고 고려 이전의 문벌의 위상을 찾아 번연(蕃衍)하고 전진을 기원(祈願)하면서 삼가 기록을 한다.

延安車氏 甲申譜(2004) 首卷 世系總論

2. 무자보(戊子譜) 서문

태조7년 戊寅(1398) 9월15일 문절공께서 이태조와 작별하고 대궐에서 개성 집으로 가는 도중 송원과 마원 사이에서 개국공신 중 차씨 庶外孫들이 이방원에게 모함하여 일족 71인(이제공 비문에는 81인)이 추살 당하고, 문절공께서 출판하신 신광사에 보관된 譜版까지 불태워 버린 지 310년 만에 참혹한 원한과 비참했던 시대를 겪으며 살아남은 자손들이 문적을 수집하고 종재를 모아 士大夫집안에도 거의 드문 족보를 발간하였다. 이는 오로지 지극한 마음으로 작은 관직도 없는 고단한 선비가 위대하신 선조님들의 痕迹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기려는 후손의 도리를 다 하려는 일념으로, 족보를 발간하신 星老 선조님과 함께 이루어 주신 어른들의 숭조정신을 영원히 기리고자 함이다. 아울러 병술팔월에 무자譜(족보) 서문을 撰하여 주신 '서재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우의정 류상운' 어른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무자년에 발간된 족보 서문을 올립니다.

165

舊世譜序文

戊子譜序文

族氏之有譜 常尚也 我東國 偏小人 皆以門戶輕重而不及中華 士族之傳其譜者鮮矣 近來 士大夫稍以修譜系 爲事 余每喜聞而樂道焉 車氏與余一般 同宗之人 在三韓麗朝東方大族 至諫議大夫雲巖先生車原頰 爲門擊被赤族之禍而略千餘孫 各謫遠方 入我朝以來 至殘爲 庶 幼學星老慨然出計 遠近同宗 收輯文蹟 求財募工 將欲以記 久請余以序 辭不獲 謹以 一言贊之 曰星老其向心之道至矣盡矣 雖地隔要荒 其積善餘慶 澤流後胤則亦豈有二致也 程夫子有言曰管攝人心敦厚風俗 須是明譜系立宗法 誠使此譜中人 沿波而求源 自本而達 枝 胥忠孝胥友睦 以識名賢之姓氏則祖先 其尚曰子有後 而不耻其於今爲庶 而其餘氏歸 俗之所助豈淺哉 抑又難者 夫以名卿顯位不爲無人而譜牒之行 有未暇焉 今者星老 一布 之孤寒 乃能成就著明 如此其志行之勤篤 又烏可無言哉 斯舉也 闡揚世蹟 爲主能之者星 老也 可謂車氏之宗也 夫

歲在 丙戌 八月 日 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府 右議政 柳尚運 序

무자보서문(肅宗三十四年戊子西紀一七〇八年) 연문(譯文)

씨족이 족보가 있는 것이 몇몇하며 승상할 만한 일이다.
우리 나라가 땅이 좁고 작아 사람말이 다 좋은 집안으로서 경중(輕重)의 차이는 있으나
중국에 미치지 못하고 사대부(士大夫) 집안에도 족보가 적하여 진 것은 거의 드물다. 그러

延安車氏大同譜 首卷

延安車氏大同譜 首卷

에 사대부들이 점점 족보 수보를 한다하니 내 항상 기쁘게 듣고 즐거우게 생각한다 바이다.

차씨(車氏)는 나와 같이 그본이 같으니 사람이라 삼한 고려조(三韓麗朝)에 있어 동방대주
 이었는데 그의대부 유담 차원부(諫議大夫 雲巖先生車原類)에 이르러 집안의 서자(庶子)들
 에 의해 명문지화를 일으키고 나뉘니 자손들이 각각 먼 곳으로 귀양감으로 인하여 조선(朝鮮)
 에 와서 더욱 외지하였다. 성보(星老)가 계화를 세워 원근 종친의 무전(無前)을 수집하여 증재
 (宗財)를 모아 보책(譜冊)을 세상에 내고자 하여 나에게 서문을 청하기를 사양하지 못하고
 찬(撰)해 이르기를 비록 가문이 황폐하게 되었으니 조상의 선행(善行)으로 인한 은덕이 후
 손에 이어지는 것 또한 성보(星老)의 조상을 생각하느라 마가 지극한 것이 아니겠는가?
 공자(程夫子) 말씀에 인심(人心)을 바로잡고 풍속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모름지기 조본의 계통을
 밝히고 종법(宗法)을 세우는 데 있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보소의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명분을 거슬러 그 원인을 구하고 그 근원으로 부터 지손에 도달하는 것을 알아 서로 충효하
 고 도모하여 명현의 후손이란 것을 안다면 조상께서 반드시 내 자손이 있다고 기뻐하실
 것이니 오늘날 서인(庶人)이 된 것이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요 또 풍속의 두터움으로 돌아
 가는 데 도움이 어찌 적다 하겠는가? 또 어려운 바는 이름난 벼슬진위에 있는 자라도 족
 보 편찬에 소홀한 지라 이제 성보(星老)가 한 보잘 것 없었고 고다한 서비로서 하의
 명분이 이뤄 밝혀이니 그 뜻과 행함의 독실함의 이 같으니 어찌 칭찬하지 않겠는가? 조상
 의 은덕이 들이오니 내 주장하는데 그 어한 자는 성보(星老)가 하차씨(車氏)의 으뜸이라
 함 마하이다.

세재 병을 팔 팔 일 대량보부 수보대부 의정부 우의정 류상이다 시

3. 4세에 걸친 저항과 애국정신

【우리 일가들이 168년(1851~2019)동안 알고도 몰라서 잊고 살아온 4세에 걸친 일제의 저항과 애국정신을 숙연한 마음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一世 차치구(車致九)

종교: 천도교(동학)

가족관계: 배우자 밀양(密陽) 박씨(朴氏)

자녀 슬하 4남

차경석(倫洪아들), 윤경(倫京), 윤칠(倫七), 윤덕(倫德)



○구민사 - 황토현전투에 참여한 차치구와 손화중을 비롯해 여러 사람의 농민군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차치구(車致九, 1851년 ~ 1894년 12월 29일(음력 3월 30일), 44세)

차치구는 조선 말기의 동학 지도자였다. 1894년 동학 농민 운동 당시 전봉준과 함께 보국안민(輔國安民)의 명분을 내걸고 농민군을 이끌었다.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대흥리에서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연안(延安), 본명은 중필(重弼), 자(字)는 치구(致九)이다. 흥덕(지금의 고창)의 동학 접주였던 차치구는 기골이 7척 거구로, 1척은 30cm이니까 키가 약 180cm 정도로 컸다.

그는 동학농민군은 2차 봉기 때는 함께 두령을 맡아 출전했던 손여옥과 정읍에서 농민군 5,000명을 이끌고 참전했으며, 공주와 원평, 태인에서 전봉준과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전봉준과 농민군은 1894년에 명성황후 시해에 적극 가담했던 친일파 이두항이 이끄는 관군과 일본군에 밀려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고, 그 후 다시 태인 전투에서 크게 패하자 주력 부대가 해산했다. 차치구는 전봉준이 태인 전투를 끝으로 부하 10여 명을 데리고 장성의 입암산성과 백양사를 거쳐 순창 피노리에서 숨어 지낼 때 아들 차경석과 함께했다. 차치구는 전봉준을 그의 집으로 모신 뒤 그의 곁을 지켰다. 전봉준은 다시 전력을 가다듬고 재기하기 위해 순창으로 향하여 김개남과 만나기로 했으나 김개남이 잡히고, 다음 날 자신도 붙잡혔다. 차치구는 정읍의 국사봉에서 피신해 있었는데, 친구의 밀고로 붙잡혀 자신이 살려준 윤석진에 붙잡혔으며 사형 명령에 따라 분살형을 당했다. 차치구의 나이 44세였다.

차치구의 아들 차경석은 당시 15세의 나이였는데, 분살당한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해 정읍 대흥리로 모시고 와 장사지냈다. 그의 위패는 황토현전투에 함께 참전했던 농민군과 함께 구민사에 모셔져 있다.

차경석은 훗날 강증산을 만나 도통을 이어 받아 보천교의 교주가 되며, 상해임시정부의 김구에게 독립운동 자금과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에 많은 군자금을 조달하였고 물산장려운동의 선구라 할 수 있는 자급자족운동, 민족대학설립 등 민족의 교육에도 힘썼다.

훗날 김구는 보천교에 큰 빛을 졌다고 말했으며, 김좌진 장군은 청산리전투로 일제의 감시가 심해 군자금을 모집하기 힘들었으나, 보천교의 자금으로 군대를 재정비할 수 있었다.

일제는 법령상 불교, 기독교, 신도 이외의 종교를 모두 유사종교라는 굴레를 씌워 보천교를 탄압했다. 보천교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민족성 고취, 반일성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보천교의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은 일제의 이간질과 술책으로 역사 속에 한낱 사이비종교로 치부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러한 시각은 21세기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二世 차경석(車京石)

차경석(車京石, 1880년 6월 1일 ~ 1936년 3월 10일(55세))

일제시대의 보천교 교주 등을 지낸 이로, 종교인 겸 저술가이기도 하였으며, 증산 계파(보천교)의 성직자 출신이기도 하였다. 본명(本名)은 차윤홍(車輪洪)이다. 자(字)는 경석(京石)이며, 도호(道號)는 월곡(月谷)인 그는 조선시대 전라도 고창군 벽사면 용산리 반정 마을의 아버지(차치구)의 고종사촌 형님 김광배의 집에서,

아버지 차치구(본명 차중필)의 4남 중 3남(셋째 아들)으로 출생하였으며, 1883년 4세 때부터 조선 전라도 정읍군 입암면 대흥리(현재의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접지리)의 친가 향리 동네로 돌아와서 쪽 자랐고, 1894년 아버지 차치구의 동학군 참전 중 전사를 목도하였으며, 먼 훗날 1907년 스승 강일순을 처음 만나 두 해가 지난 1909년, 스승인 강일순이 병으로 갑작스레 죽자, 이듬해 1910년부터 보천교의 교주로 활동하였는데, 흔히 차월곡(車月谷), 차천자(車天子)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월곡(月谷)은 그의 호(號)이기도 하며, 스승이자 이종사촌 자형인 증산 강일순이 지어주었다.

그는 그의 배우자와 사이에 3남 2녀(그 중 장남 차일혁, 차남 차일수)가 있었다.

○동학 활동○

아버지는 전봉준과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차치구이다.

차월곡은 전북 고창군(高敞郡) 벽사면(碧沙面) 용산리(龍山里)라는 마을의 반정리에 있는 김광배의 집에서 태어났다. 차월곡은 동학의 접주였던 아버지 차치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아버지를 따라 동학 농민군에 들어가 전장을 누볐다.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 농민군이 크게 패하고 전봉준과 아버지인 차치구가 관군에 쫓기는 신세가 되자 아버지와 함께 전봉준을 고향에 피신시켰다. 하지만 아버지 차치구는 밀고에 의해 잡혀 분살형을 당했다.

당시 15세였던 차경석은 형장을 찾아가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해 고향에 장사지냈다. 정읍에서 차경석은 영학당 사건(흥덕 봉기)에 적극 가담하였다. 영학당은 동학 농민군이 만든 조직이었다. 하지만 1899년 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로 총살형을 선고받았으나 총살 직전에 석방되었다.

1904년 동학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는 대동회(大同會)를 조직하였다.

그 후 대동회는 진보회(進步會)로 바뀌어 이용구가 실무를 맡았다.

진보회를 도운 것이 일진회였다. 일진회는 갖가지 친일활동을 하며 을사조약에도 지지성명을 냈다.

1905년 12월에 손병희가 이용구의 일진회 세력이 친일로 치달자 이용구와 결별하고 천도교를 세웠다. 이때 차경석은 일진회를 탈퇴하였다.

○증산에 입문○

1907년 28세 때 강증산과 우연히 만났다. 차경석은 증산과의 만남 이후 그의

제자가 되어 증산도문에 들어갔다. 1908년 증산은 월곡의 이종누이인 고씨(고판례)를 수부(首婦)로 하고 대흥리 월곡의 집을 포정소(布政所)로 정하였다.

증산은 월곡에게 “너는 접주(接主)가 되라, 나는 접사(接司)가 되리라.”라고 말하였다. 1909년 증산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차경석은 증산의 교통을 받아 교단을 꾸려나가면서 새로운 교리를 세우기보다는 증산을 신앙대상으로 삼았다. 이때를 보천교에서는 포교 원년으로 보고 있다. 1910년 20세 때 아버지의 고향인 정읍군 입암면 대흥리로 이사하였다. 고판례 밑에서 교단 운영의 실권을 담당하고 이치복(李致福) 등과 함께 포교활동에 전념하였다.

○보천교 내부 조직 완성○

1917년 차경석의 모친 밀양 박씨 회갑연을 기화로 24방주와 주요 간부를 모아 놓고 북도(北道) 재무책임자인 북집리(北執理)에 김흥규, 남도 재무책임자인 남집리에 채규철(蔡奎喆)을 각각 임명하여 천지에 고천(告天)하게 하여 그들에게 교재(敎財)를 부탁했다. 이어 차경석은 김흥규, 문정삼에게 교단의 일을 부탁하고, 도피의 길을 택해 비밀포교에 나서 몇 해 지나지 않아 수만 명의 교도를 모이게 하였다.

교세 확장은 더욱더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불러왔고, 이르는 가운데 1918년에는 보천교인들이 일제에 항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전국을 돌다 경상북도 영일군 출신의 김연일 등과 상의하여 1918년 9월 19일 제주도 법정사(法井寺)에 교도 약 30명을 소집하여 “왜놈은 우리 조선을 병합하고 우리 동포를 학대하고 가혹하게 다루니 실로 왜놈은 우리 조선민족의 원수다. 이제 국권을 회복함으로써 교도는 우선 도내 거주 의 일본인 관리를 죽이고 일본인 상민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1918년 10월 6일 밤 김연일은 신도 33명을 소집하여 인근 각 면장과 이장들에게 “일본관리를 소벌(掃伐)하여 국권을 회복하자”는 격문을 배포한 후 제주 성내를 돌며 전선을 절단하고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여 방화 전소시켰다. 보천교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법정사의 집단 항일운동은 국권상실 이후 3·1운동 이전 일제에 항거한 단일 투쟁으로는 최대 규모 항일무장봉기였다.

이해에는 1918년 고판례가 강응칠(姜應七) 등 일부 교인을 데리고 김제군 백산면 조종리에 교당을 세우고 ‘태을교’라는 명칭으로 교단을 세워 떠나자 차월곡이

교단의 제 일인자가 된 해였다.

차경석이 교주로 있는 보천교의 항일투쟁은 전국적으로 증산도 신도 검거 선풍을 불러왔다. 이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일제의 감시를 피해 다니던 차경석은 1919년에 피신처인 강원도 울진군에서 채규일과 김홍규를 불러 종전의 24방주제를 다시 확대하여 60방주제를 창설하여 보천교의 내부조직을 완성하였다.

○독립운동○

-상해임시정부 지원

60방주 조직 이후 5~6개월 동안 교인의 수는 100만 명에서 600만 명에 이르렀다. 보천교의 교세는 부침이 컸지만 한때는 한반도를 들쭉이게 할 정도로 큰 종교단체였다. 엄청난 교인의 수는 일제 총독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다. 일본 헌병의 보천교인에 대한 수색과 검거는 극에 달했다. 경찰은 보천교를 기미년 '3·1 운동'을 다시 일으키려는 음모단체로 보았다.

1920년 1월에 경상북도 청송에서 방주 권태호(權泰鎬)에 의해 60방주 조직이 누설되었고, 이 사건으로 교인 3000여 명이 검거되었다. 또한 교도 수십 명이 죽임을 당하고 700여 명이 기소되고 도망 다닌 교도는 3만 여 명에 달했다.

차경석은 보천교를 통해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그가 지원한 독립운동 자금은 전체 독립운동 지원자금의 50%가 넘는다. 그는 1920년에 3·1운동에 민족대표 48인 중 한 사람인 임규에게 5만 원(지금의 약 50억 원)을 보내어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임규는 이 돈을 나용균(羅容均)을 통해 임시정부에 보내어 보천교가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 조달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하였다. 임규는 당시 보천교 진정원의 형평사장(衡平司長)이라는 간부였다. 이와 함께 조선물산장려회의 보천교 측 회원이었다.

-국권회복운동

1920년 9월에 보천교도(태을교도) 국권회복운동이 일어났다.

이해 12월에는 보천교도(태을교도)들이 조선의 독립을 기도하며 성금을 걷는 일이 발각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21년 차경석은 경상남도 함양 황석산(皇石山)에서 하늘에 고하는 고천제를 지냈다. '보화교(普化教)'라는 교단의 교주가 되는 동시에 '시국(時國)'이라는 나라의 황제의 지위에 등극함을 하늘에 고했다. '보화'는 '조화를 널리 세상에 편다'라는 뜻이다. 고천제를 통해 당시 민중들에게는 일제

지배하에 있던 우리나라에 나라의 이름을 선포하고 자존심을 세워준 사건이었다. 고천제를 통해 민중들에게는 1924년 갑자년에 황제가 등극한다는 ‘천자등극설’이 널리 퍼졌는데, ‘천자등극설’은 일제를 부정하는 동시에 중국의 신하의 나라로 치부했던 우리나라를 중국과 대등한 위치로 끌어올려 우리나라를 스스로 독립된 국가로 인정한 국권회복운동의 하나였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민중적 사건이자, 식민지 백성의 울분을 삭혀주는 청량제였다. 일제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국가 건설은 당시 상실감에 빠져 있던 민중들의 기대를 하나로 모으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차월곡이 고천제를 통해 교단에 대한 교명을 선포하고 공식적으로 교주에 취임한 것은 보천교의 창립사에 있어서도 포교기구와 행정기구의 조직 강화라는 중대한 의의가 있는 동시에 보천교가 종교에서 정치의 장으로 옮겨감을 의미한다. 교단의 제문에 나라 이름이 등장하고, 그 나라 이름을 ‘시(時)’라고 규정한 것에서부터 보천교 운동의 목적이 종교를 통한 사회구원의 차원을 넘어섰다는 것을 뜻한다.

1921년 1월~8월까지 보천교 교인 대규모 검거선풍이 또다시 일어났다. 경찰은 교인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까지 만들었다. 전국에서 수개월 사이에 이상호, 김홍규 등 교단의 주요 간부와 일반 교인 1,000여 명이 체포되었고, 이들은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다. 이것은 1919년 3·1 운동 이후 전국 최대 규모의 검거였다. 이로 인해 일부 간부들의 배교행위가 속출하였으며, ‘보천교(普天教)’라는 명칭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보천교 입장에서는 교단이 공개되어 공개적으로 종교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일제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독립운동의 본거지로 생각한 보천교와 교주인 차월곡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좌우익에 독립운동 지원

그해 차경석은 대태평양회의한국외교후원회에 보천교 대표 2명을 파견하였다. 대태평양회의한국외교후원회는 1921년 미국 워싱턴에서 조직된 외교 지원 단체로 원래 명칭은 대태평양회의한국외교후원회(對太平洋會議韓國外交後援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권한 밑에 있었다.

일제는 차월곡을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하는 단체의 우두머리로 생각하여, 보천교 조직을 파악해내고, 이를 해체시키려는 공작을 끊임없이 펼쳐나갔다. 이에 대한 기사는 1921년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 잘 나온다.

특히 1921년 8월 6일자 《동아일보》 기사에는 ‘태을교인의 독립운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조선이 독립되기를 기도하다 발각’됐으며, 8월 25일 기사에는 서석주라는 자가 조선독립을 위해 독립자금 삼백 여 원을 모았다가 고소당했고, 강원도의 이주범 등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발각돼 체포되었다고 하였다. 10월 29일 기사에는 ‘십만 원의 독립자금’이라는 기사가 크게 실렸다. 이러한 기사는 일제가 엄청난 교세를 확보한 차월곡과 보천교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경찰은 차경석과 보천교를 끊임없이 감시하다가 보천교 본소에 상주해가며 감시와 감찰을 벌였고, 집회 때마다 경찰을 증파해서 감시하였다. 1922년 보천교의 집회를 감시하던 경찰과 교인 및 집회에 참가했던 주민들이 결국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권총으로 교인 한 명을 죽이고, 또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으로 민중들의 보천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반면, 총독부의 보천교에 대한 무력화 공작이 적극적으로 시작된 계기가 됐다.

1922년 차경석은 고려공산당에서 모스크바 약소민족회의에 참석하는 김규식, 여운형, 김철, 김상덕, 나용균, 정광호, 장덕수 등을 파견하는데, 자금을 지원하였다. 자금은 최팔용, 장덕수 두 사람에게 건네주어 당시 제3차 공산당 책임비서를 지낸 김철수에게 전해주게 하였는데, 당시 1만원(지금의 10억 원)을 지원하였다. 1923년 차경석은 2월 상해에서 열린 한민족 국민대표회의에 보천교 간부들을 파견하였다. 참가한 100명의 대표자 중에는 보천교 대표로 보천교 진정원이었던 배홍길(裵洪吉)과 김종철(金種喆), 보천교 청년당 강일(姜逸) 등 3인이 공식적으로 참가하였다. 특히 강일은 1923년 7월 김원봉(金元鳳)의 의열단에 입단하여 김원봉의 지시로 군자금을 모집 임무를 수행하였다. 차경석은 만주에 있는 독립군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1923년 7월 만주 독립군단 총사령관 김좌진의 밀사 참모 유정근(兪政根) 검거 후 김좌진과 보천교 간부와의 연락 상황을 발견한 뒤 알려졌다. 차경석은 1924년 9월 김좌진 장군 만주별동대(滿洲別動隊)에 2만원의 군자금 제공하였다. 김좌진 장군은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한 싸움으로 일본은 대대적으로 만주에 병력을 투입한 일본 때문에 군자금을 공급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전투 준비를 못 하는 상태에 처했지만 차월곡에게서 받은 2만여 원으로 부하를 소집하여 일본에 맞서 무력행동에 나설 수 있었다. 이처럼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은 차월곡이 교주로 있는 보천교의 지원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

○민족운동○

-교육·문화 운동

출판사업, 민립대학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에 참여했다.

1923년에 인쇄소를 설립해 《보광(普光)》잡지를 발간하고, 보광사라는 출판사를 설립하였으며, 종교·문화와 예술 부문을 다루었다.

조선물산장려회 초기 기관지 《산업계(產業界)》를 발간하였다.

1924년에는 최남선이 운영했던 일간지 ‘시대일보사’를 인수하였다.

이것은 보천교를 맹렬히 비판하던 《동아일보》와 맞서기 위한 대책이기도 하였다.

3.三世 차일혁(車一赫)



차일혁(車一赫)

1920년 8월 20일 ~ 1958년 8월9일, 37세

가족관계: 본관 연안, 배우자 진복희, 자녀 차길진

학력/경력: 흥성공업전수학교

황푸군관학교

복무기간: 1938년 ~ 1943년(조선의용대)

1948년 ~ 1950년(반공유격대)

1950년 ~ 1953년(전투경찰)

근무 전북경찰국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충주경찰서 서장

진해경찰서 서장

충남경찰국 경비과장

공주경찰서 서장

차일혁(車一赫, 차갑수(호적상 이름), 차용철(족보상 이름), 이강(李剛, 금강산에 몸을 숨겼을 때 호적이 없는 것처럼 꾸며 장인이 새로 지어준 이름, 중국 중앙군 관학교 시절까지 사용), 차철과 차용철, 주충홍(車燕, 주충홍, 중국에서 지하활동

을 할 때 사용), 차리혁(車利革, 해방 후 지강 선생을 따라다니던 때 이름)

한국의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경찰관이다. 차일혁은 1920년 8월 20일 김제군 금산면에서 태어났다. 그의 출생일은 7월 2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는 1935년 15세 때 흥성공업전수학교(현 국립한밭대학교)에 입학하였다. 이때 그는 인생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한다. 1936년 16세 흥성공업전수학교 2학년 때, 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는 발언을 하였던 한 조선인 교사를 체포하려던 일제 고등계 형사를 때려서 일본경찰의 수배를 받았다.

-독립운동

그는 흥성학교를 그만 두고 일제경찰로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기생이 일제에 옥하다가 일본순사에 연행되자 그를 구출하기 위하여 폭력을 쓰다 그렇게 되었다고도 한다. 학교에도 가지 못한 채 도피생활을 하다가 정읍 본가에 잠시 들렀다가 상주에 있던 정읍경찰서 형사들에게 붙잡혀 압송되던 중 탈주에 성공하였다. 이후 그는 전주 송광사와 대월사에서 숨어 있다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금강산 신계사(神溪寺)에 피신하였다. 이곳에서 결혼 후 차일혁은 처가의 권유로 1936년 말 중국 상해의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1937년 17세에 그는 중국에서 운명을 결정짓는 스승을 만난다.

그가 지강(池江) 김성수(金聖壽)이다. 1900년생인 김지강은 차일혁에게 정신적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다. 김지강은 고향인 경남 밀양에서 3·1독립만세 운동에 주동자로 참여했다가 일본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자 중국으로 건너와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됐다. 김지강은 차일혁에게 조국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항일운동에 투신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그는 금융회사를 과감하게 그만두고 가족과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춘 채, 격렬한 항일운동에 뛰어들었다. 차일혁은 김지강을 따라다니며 남화한인청년연맹에서 활동하던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때부터 김지강은 차일혁에게 스승이자 부모였다. 김지강의 활동영역은 넓었다. 만주에서 김좌진 장군과도 교분을 나누고 있었고, 의열단과 남화한인청년연맹 일도 하며, 일본군과 친일파 처단에도 그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행동파 독립투사였다.

1937년 김지강은 일본헌병에 체포돼 해주와 서대문 형무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하다가 해방이 되어 풀려났다.

차일혁은 김지강이 체포된 후 헤어져 상해일대에서 한국전지공작대로 활동했다. 1940년 20세 2월에 본격적인 항일 무장투쟁을 위해 중국 중앙군관학교 황포분교에 입학하고 7월에 졸업했다. 이곳에서 군사 지식과 전술을 배워 졸업과 함께 7월에 중앙군 제1전구 32사단의 중국 포병장교, 정치 장교 등의 자격으로 항일전쟁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또한 포병운용전술은 후에 빨치산 토벌작전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1942년 22세에 중앙군 제1전구 제32사단 포병중대장으로 일본군과 싸웠다. 그 후 김원봉이 창설한 조선의용대에서 활동하면서 아나키스트로 활동했다. 조선의용대에서 차일혁은 차철(車轍)과 차용철(車鏞徹)이란 이름으로 활동했다. 2월부터 일본군은 태항산 일대를 포위하고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조선의용대는 이에 맞서 전투를 벌였다. 이때 동원된 일본군의 병력은 4만 명에 5월에는 20개 사단 약 40만 명을 투입하였는데 전차와 항공기까지 동원하였다.

차일혁은 조선의용대에서 모택동의 팔로군과 함께 작전을 하며 전투를 지휘하였으며 일본군이 포위한 태항산 일대를 중국 팔로군 포병사령관인 무정(武亭)과 함께 전투하여 등소평을 포함한 중국 팔로군 지휘부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때 차일혁은 모택동식 전법인 유격전을 접하고, 포병 전술을 익혔다. 차일혁의 포병 전술은 중공군 포병사령관이었던 무정(武亭)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모택동은 장개석 국민당 정부군보다 무기도 열악하고 병력이 뒤떨어졌으나, 민심을 얻은 유격전에서 이겨 중국 대륙을 차지했다. 차일혁은 이런 모택동의 유격전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이런 경험을 통해 빨치산들의 유격전을 잘 알고 있어 주민들을 빨치산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들의 유격전을 역으로 이용하여 토벌하였다. 빨치산으로부터 매수된 주민의 거짓정보로 큰 피해를 봤을 때도 주민에게 복수하지 않고 민심을 얻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낙동강전선에서 미처 북으로 도망가지 못한 북한군 패잔병과 남한점령지역에서 활동하던 지방공비들은 지리산을 근거지로 유격전을 펼치며 빨치산을 조직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들은 뼈라 살포와 차량습격, 파출소 등을 습격하였다. 빨치산들은 그들이 장악한 지역에 이른바 ‘인민공화국 체제’를 모방한 통제기구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치안이 미치지 못하는 ‘해방구(解放區)’를 만들어 게릴라 활동의 군사기지로 이용하였다. 이에 국군과 함께 이들을 토벌하기 위한 전투경찰대(戰鬪警察隊)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전북도경(전라북도 경찰국)에서도 전투경찰대의 신설을 위해 인재를 모집하고 중국 항일전선 당

시의 동지였던 최석용(崔錫備) 전북지구 전투사령관 등의 권유로 경찰이 되기로 결심하였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군이 점령했던 전북지역으로 제11사단 제13연대가 들어오고, 제18전투경찰대대가 창설되자 대대장이 되어 경감 직책으로서 경찰이 되었다.

12월 15일 경상도 경찰간부학교에서 갓 졸업한 김근수, 이진찬, 조명제, 이원배 경위와 전쟁 초기 인민군과의 실전 경험이 있는 박기락, 이기린 경사 등 50명을 새로 배속 받아 200여 명의 대원을 확보하고 김의택 도경국장, 김가전 전북지사, 이우식 법원장 등의 지방유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18대대 창설식을 가졌다. 우희갑, 김진구 등 호국군 출신 부하들을 중대장에 임명하고 정동렬 경위를 중화기 대장에 임명하여 어느 정도 전투대열을 갖추었다. 제18전투경찰대대는 후방을 교란하고 있는 이들 빨치산을 토벌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그는 제18전투경찰대대에서 적지적소에 적합한 군인을 배치하였다. 전투를 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파악하여 전투요원 담력과 운동성이 뛰어난 자와 담력은 약하나 행정능력을 갖춘 자로 구분하여 전투편성을 하였고, 전투요원 중 정예요원으로 척후정찰대를 편성하여 빨치산의 동정을 탐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 뒤 작전을 실시했다. 또한 인민군에게 부모를 잃은 17~18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대대를 만들어 신라 화랑에서 이름을 따와 '화랑소대'라 이름을 붙이고 실전경험이 풍부한 이한섭에게 통설하도록 맡기고, 화랑의 강한 정신을 심어주어 제18전투경찰대대의 핵심 전력으로 육성하였다. 이들은 빨치산 토벌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다. 당시 차일혁 대대장이 토벌해야 했던 빨치산 숫자는 국군의 정규군 2개 군단과 맞먹는 6만 명에 달했다. 빨치산들이 전북 지역에 몰려 있었던 것은 그 지역이 평야지대로 식량을 얻기 쉬웠기 때문이다. 지리산에는 빨치산의 총본산 격인 '남부군사령부'가 있었으며, 지리산-회문산-내장산-덕유산 등의 산악지대는 게릴라 활동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차일혁은 빨치산 귀순자로 구성된 '수색대'를 편성하여 공비토벌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구이면 작전 (편집)

12월 26일 ~ 12월 28일, 제18전투경찰대대의 첫 출전이 있었다.

일명 '구이면 작전'이다. 6.25전쟁이 일어나고 12월 16일 대한민국의 경찰은 전투경찰부대를 만들고 빨치산 토벌에 나섰다. 하지만 제대로 된 무기와 장비를 지원할 수 없었다. 차일혁은 12월 27일 빈약한 장비와 훈련이 부족한 대원들을 지휘하

여 빨치산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다. 전북 완주군 구이면은 밤에는 인민공화국으로 변하는 등 항상 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차일혁을 비롯한 전투경찰대원들은 이 지역 산 속에 근거를 두고 있는 빨치산 부대를 공격하여 열악한 무기에 도 불구하고 6시간 20분간의 교전 끝에 승리하였다. 전투 중에 빨치산들이 쓴 총알을 세어가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이 몇 정인지 정확히 알아맞혔다. 그 정도로 담력이 션고, 전세를 읽는 판단력도 빠르고 정확했다. 지역 주민의 거짓 정보와 빨치산 전향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빨치산을 기습 공격하려던 중 빨치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당황하지 않고 박격포를 쏘면서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빨치산들 중 귀순한 정황이 인정되고, 전향의 의사가 보이면 귀순자로 처리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배려하였다. 구이면에서 생포한 5명의 빨치산을 귀순자로 처리하여 취사반에서 일하도록 하였고 인민군에게 협조한 주민일지라도 자수하면 관대히 처분하였다.

차일혁은 철저한 빨갱이가 아닌 주민들에 대해서는 혹 그들이 좌익에 동조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편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빨치산을 부대원으로 편성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많은 희생을 줄이고 동시에 전투전력도 향상시켰다. 전투 이후 생포된 포로 등에 대해서는 포로들을 전향시키는 등 여러 노력들을 통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고자 노력하였다.

-고창 작전

1951년 1·4후퇴로 서울을 중공군에게 다시 내어주고 아군은 남쪽으로 밀려났다. 이에 지리산에 결집된 빨치산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당시 고창은 도내에서 가장 위태로운 지역이었다. 3월 13일 밤 1, 2, 3중대는 연화봉을 향하여 총 공격을 개시, 아군의 화력과 사기에 밀려 적들은 물러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차일혁은 특유의 기지를 발휘하여 부안면을 통하는 길을 제외한 삼면으로 공격해 들어가 빨치산들을 포위하자 적들은 부안면 방면으로 도주하기 위해 장연강을 건너려 하였으나 물이 불어 건너지 못하였다. 애기봉 기슭에 있던 중회키부대와 부안면에 포진하였던 고창경찰서부대가 적들을 향하여 집중 공격하여 경찰사상 보기 드문 대전과를 이루었다. 적의 벼 700가마는 주민들에게 돌려주었다. 3월 30일 부대는 영암, 도솔암, 선운사 등을 지나 능선을 타고 계곡을 넘으며 일대 산악 소탕전을 벌여 빨치산들에게서 벗어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상부에서 전과 확인을 위해 비인간적인 공비토벌 경쟁에 항의하자 이후 야만

적인 전과 보고가 없어졌다. 고창 작전 당시 고창 선운사 인근에서 태어난 서정주는 선운사를 좋아했던 시인이다. 서정주는 당시 『전북일보』에 글을 기고했는데, 전북일보 김만석 기자에게 차일혁 장군이 선운사와 도솔암 등 우리의 천년사찰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전해주기를 당부했다. 20일간에 걸쳐 고창지역의 치안을 확보하게 되었다.

-정읍 작전

1951년 4월 15일, 차일혁은 정읍여중에 지휘본부를 설치하였다. 정읍은 전북에서 농토가 기름지고 산림이 울창해 물자가 풍부한 곳으로 늘 빨치산에게 식량을 수탈당했다. 빨치산들은 산간부락을 기습한 것을 제외하고도 정읍읍을 24회에 걸쳐 거의 매일같이 기습했다. 정읍군(郡)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야산에 공비들의 출몰이 끊이지 않았다. 정읍은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빨치산이 활개를 치던 곳이다. 당시 빨치산 세력은 만만치 않았다. 백암부대(대장:박판쇠) 300명, 왜가리부대(대장:박춘생, 전북도당 군사령관) 야산대(野山隊) 300명, 정읍 군당과 각 면당부대 300명 기포병단 300명, 기타 300명,도합 1,500명가량의 빨치산들이 정읍에 인접한 산악지대에 포진하고 있었다. 이런 정읍에서 차일혁의 부대는 군경 합동작전에서 정문산, 입암산, 쌍치 등지의 공비들을 추격하여 8사단 작전지역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임무였다. 정읍의 청년방위군들은 전쟁 이전부터 이곳의 치안을 맡아서 해왔고, 이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작전을 수행하였다. 정읍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하다 산중에서 백조가극단의 가극 '눈 나리는 밤'을 공연했는데, 1998년 차일혁의 아들 차길진은 이때의 공연을 '눈물의 여왕'이라는 오페라로 만들었다. 이 작전으로 내장산과 백암산 등에 숨어 있던 빨치산들을 격퇴하여 사살 190명, 생포 62명을 비롯해 총기와 실탄 등을 압수했다. 작전을 수행하다 내장사 대웅전이 불에 탔는데, 아쉬운 점이다.

-화엄사를 지켜내다

1951년 5월, 전라북도에 새로 주둔한 8사단(당시 사단장 최영희 준장)과 군경합동 회의 참석차 차일혁은 도계로 갔다. 회의에는 지리산 전투경찰대 사령관 신삼목을 비롯한 경찰 지휘관들과 최영희 사단장 및 8사단 참모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빨치산들의 근거지가 될 만한 사찰을 불태우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회의 후

따로 모인 전투경찰대 지휘관들은 화엄사 소각 명령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수풀이 우거져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만한 사찰이나 암자를 소각하라는 지시는 작전상 당연한 것이었지만 모두들 난색을 표하였다. 화엄사 소재 지역은 8사단 방득윤 대대장이 관할하고 있었고, 명령도 방득윤 대대장에게 내려진 것이었다. 그러나 방득윤 대대장은 명령 수행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차일혁 18 대대장은 방득윤 대대장에게 해결책을 제안했다.

차일혁은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절을 세우는 데는 천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라고 하며 문화재에 대한 소신과 우리 문화를 지켜내려는 철학을 밝혔다. 이에 화엄사 대웅전 등의 문짝을 떼어내어 문짝만 소각했다.

차일혁은 명령을 "공비들의 은신처를 없애고 관측과 사격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으로 이해했고, 문짝만 뜯어내어 소각해도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방득윤 대대장도 이에 동의했고, 이로써 화엄사는 전체 사찰이 소각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천은사, 쌍계사, 선운사 등 유명한 사찰 등 문화재들에 대한 폭격도 될 수 있는 대로 피했다. 차일혁은 화엄사를 완전히 소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봉급이 깎이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계속된 한국전쟁은 많은 사찰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아무리 깊은 산중이라도 전쟁은 피해갈 수 없었고, 아니 오히려 깊은 산중이었기에 그 피해가 더 컸다. 때로는 적군에 의해 때로는 아군에 의해 오랜 세월 전해져 온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들이 훼손되거나 소실되었다. 하지만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보다 문화재를 더 소중히 여기며 천년 고찰을 지켜 낸 사람이 있으니, 바로 차일혁 총경이다.

지리산 남쪽 기슭, 그윽한 노송 숲에 둘러싸인 화엄사.

지리산 산세에 견주어도 위축되지 않는 모습의 천년 고찰이다.

화엄사는 신라 진흥왕 때인 544년 인도의 승려 연기가 처음 지었으며, 그 후 신라 문무왕 때인 670년 의상대사가 중수하였으나, 임진왜란에 소실되고 이후 숙종 때인 1702년 중건되었다. 화엄사는 우리나라 화엄종의 총본산이자 화엄사상의 상징적인 사찰로 문화재적, 불교사적으로 귀중한 자료이다. 화엄사 일원은 문화재로 지정돼(명승 및 사적 제7호) 있는데, 특히 화엄사 각황전(국보 제67호)은 우리나라 불교건축물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각황전에서 떨어진 돌조각인 구례화엄사 화엄석경(보물 제1040호)은 부서진 것일망정 보물로 지정될 만큼 그 문화재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다. 화엄사의 대문격인 일주문을 지나고 천왕

문을 지나면 고려 때 국사(國師)를 지낸 의천스님이 화엄사 효대(孝臺)를 예찬한 노래를 적은 시비(詩碑)가 있다. 효대는 화엄사를 창건한 승려 연기가 어머니에게 정성스레 차를 올리는 모습이 조각된 사사자삼층석탑(국보 제35호)과 공양 석등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그리고 화엄사 부도전 맞은편의 '시의 동산'에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비석이 있으니, 시인 고은이 글을 쓴 '차일혁 총경 공적비'이다.

「이제 해원의 때가 무르익었으니 천하의 영봉 지리산을 생사의 터로 삼아 동족상잔의 피어린 원한을 풀어 그 본연으로 돌아감이 옳거니. 여기 근본 법륜 화엄사 청정도량에 한 사람의 자취를 돌에 새겨 기리도록 함이라. 」

사찰 안에 고승도 아닌 경찰관의 공적비가 이곳에 세워지게 된 데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 차일혁은 전주로 돌아와 그동안 밀린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각종 성금과 위문품이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알고 주민들에게 돌려주었다. 1958년 조계종 초대종정 효봉 스님은 화엄사를 지켜낸 차일혁에게 감사장을 주었다. 전투경찰대 제2연대장으로 재직 중에는 전라남도 백양사·화엄사·천은사, 전라북도 선운사·금산사, 경상남도 쌍계사에서 전쟁의 화마로부터 소실될 위기에서 천년고찰을 지켜 낸 공로로 감사를 표현했다.

1998년 화엄사 경내에 차일혁 공적비가 세워졌으며, 2022년 화엄사는 10월 화엄문화제를 주최하면서 차일혁 경무관 추모식을 거행했다.

지리산 대화엄사(주지 덕문 스님)가 차일혁 경무관 추모비 앞에서 추모식을 엄수했다. 주지 덕문 스님은 내년부터는 각황전에서 차일혁 경무관 추모제를 봉행하겠다고 밝혔다. 화엄사 등 지리산 사찰을 지켜낸 차일혁 경무관을 사실상 중창조로 모시겠다는 뜻에서다. 차일혁기념사업회에서도 유가족과 함께 기꺼이 참여하였다.

-이현상과 첫 대전, 명덕리 전투(전북 장수)

1951년 7월 11일 이현상은 장수군 명덕리 출장소를 습격하고, 다음 날 장계 주변에 있는 903고지, 악호산, 백화산, 삼봉고지를 점령하였다.

7월 13일 당시 남부군을 이끌던 이현상은 장수군 명덕리 출장소에 출몰했으며, 곧 경찰 측에 소위 정전회담을 제의하였다. 명덕리를 자신들의 권역으로 인정하면 생포한 경찰을 석방한다는 내용이었다.

7월 15일 이후 차일혁은 남부군 사령관이던 이현상 과 전투를 벌여 명덕리를 되찾아 왔다. 이로써 무주, 장수, 거창 방면의 교통로가 다시 열렸고 빨치산들에게 잡혀간 경찰관 25명과 양민 500명 구출하였다.

8월 2일 차일혁은 철주부대 부대장이 되어 전북경찰국 철주부대장(연대장급)에 임명받아 17대대, 18대대, 36대대를 통합하여 지휘하게 되었다.

철주부대는 윤명운 경무관이 제17전투경찰대대와 제18전투경찰대대를 합친 데다 36전투경찰대대를 창설하여 함께 묶어 만든 부대이다.

-가마골 탈환 작전

1951년 8월 15일~9월 25일 철주부대장 차일혁(車一赫) 경감이 첫 번째 맡은 임무는 가마골 탈환 작전이었다. 가마골은 '빨치산의 모스크바'로 불릴 정도로 빨치산의 위세가 대단했다. 빨치산 관련 소설이나 기록에 단골로 등장하는 가마골은 남한 빨치산을 지휘한 남로당 정치위원 여운철이 반드시 사수해야 할 곳으로 정한 요충지였다. 가마골은 전북 빨치산의 거점일 뿐만 아니라 전국 최강 빨치산 부대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가마골 구림면은 빨치산의 영향권에 있었다. 회문산 기슭 가마골 베틀마을은 정읍과 임실로 가는 도로가 만나는 곳이어서 '베틀마을'이 누구의 수중에 있느냐에 따라서 군경 또는 빨치산의 세력을 가늠할 수 있었다.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이후 방준표가 이끌던 빨치산들은 군경이 토벌작전을 펼치자 순창의 회문산 깊숙이 들어와 기간포까지 설치해 놓고 전투를 벌였다. 이런 가마골은 노령산맥의 험준한 봉우리로 둘러싸여 외곽고지를 방어하기는 쉽지만 공격은 힘들어 군경이 발조차 들여놓지 못한 지역이었다. 차일혁 부대장은 가마골을 탈환하기 위해 외곽의 고지를 포위하면서 하나씩 점령해 가는 작전 펼쳤다.

전남 부대와 17대대는 추월산, 전남 특공대장 기우대 경감이 지휘하는 부대와 36대대가 내장산, 가마골 후방인 서자봉 능선에는 순창경찰서부대가 회문산으로 가는 퇴로를 막았다. 18전투경찰대대가 빨치산의 탄막을 뚫고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대대장 연락병이 쓰러지는 등 많은 희생 끝에 마침내 용추봉을 탈환하게 됐다. 때맞춰 17전투경찰대대도 용두봉을 점령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차일혁은 부대 지휘소를 재빨리 용추봉으로 옮기고, 진두지휘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이 전투를 통해 차일혁 부대는 빨치산 사살 135명, 생포 95명, 총기 78정을 노획했다. 그에 비해 차일혁 부대의 피해는 전사 7명과 부상 8명이었다. 작전에 함께 동참했던 전남 경찰부대의 전과는 사살 114명, 생포 11명

이었고, 피해는 전사 9명에 부상 9명이었다. 가마골 전투는 1951년 9월 1일에 창설되어 빨치산 출신 문순목이 이끌고 일반인, 빨치산, 경찰로 구성된 보아라부대가 11월에 참여해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보아라부대는 가마골 작전에서 단 1명의 사상자 없이 무사히 귀환하였다.

-무주에서 6지대 섬멸

1951년 말부터 1952년 초까지 군과 경찰은 군단급 규모의 '백야전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이현상이 소속된 남부군을 대대적으로 소탕하는 작전에 돌입하였다. 9월 말~10월 초 무주는 북괴의 공비 남파 루트인 태백산맥의 줄기인 육십령에 인접해 있고, 경상도 충청도의 공비들이 연결되는 루트와 가까운 지역이었다. 또한 이현상의 고향인 금산과도 인접한 곳이었다.

차일혁 부대는 기존의 이현상 부대와 김일성의 지령으로 남하하는 6지대가 합류하려는 중간 지점에 자리를 잡아 이현상 직속의 57사단과 남하하는 6지대가 합류하지 못하도록 작전을 펼쳤다. 이런 작전 수행 과정은 9월 18일 차일혁의 『진중기록』이 『전북일보』에 게재되었다. 10월 2일 6지대 유인작전으로 사살 61명, 생포 7명, 미식경기 1정, 소식경기 1정, 따발총 2정, 아카보 소총 28정, 권총 2정의 전과 거두었다.

11월 28일 차일혁은 무주경찰서장이 되었으며, 전 무주경찰서장이었던 김두운으로부터 무주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12월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는 '백야전전투사령부'가 벌이는 지리산 빨치산 토벌 작전에 참여하였다. 조선노동당 남부지도부 정치부책 여운철의 사살했으며, 이 작전의 성공으로 차일혁과 사찰유격대장 김용식 경사, 보안계 임덕준 경사가 금성화랑훈장(金星花郎勳章)을 받았다. 당시 무주는 건물의 80%가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엄동설한에 주민들이 움막생활을 하자 유엔에 빨치산과 대치하기 위한 참호를 건설한다고 해 건축자재를 지원받았다. 이 자재로 차일혁은 추위에 떠는 주민들에게 가옥 1,000호를 보수하고 지어 주었다.

1952년 10월 28일 임실경찰서장이 되었다.

차일혁은 무주에서 데려온 김용식과 10명의 대원들을 합쳐 사찰유격대를 더욱 더 훈련시켰다. 11월 4일~11월 17일까지 많은 공비를 사살하거나 생포, 그중 임실군당 전공대장으로 전라선 기습을 비롯하여 차량습격을 감행한 이기봉을 생포하여 귀순시킨 뒤 이상윤 사살에 큰 도움을 받았다.

12월 8일 사적지계 작전으로 남원과 회문산에서 주민들을 괴롭혀 온 북한군 대위였던 외팔이 이상운을 사살. 외팔이 이상운이 다리에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12월 25일 사망하였다.

-이현상 생포작전

1953년 5월 15일 차일혁은 총경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서남지구전투경찰대 제2연대장에 임명되었다. 서남지구전투경찰대 제2연대장 시절, 이현상 생포 작전에 돌입했으며 서남지구전투경찰대에서는 광주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한 반공포로 200여 명을 모아서 만든 '618부대'를 배속 받아 빨치산 토벌작전을 벌였다. 차일혁은 그 이전부터 빨치산 출신으로 구성된 수색대를 운용하면서 부임지마다 데리고 다녔으며, '618'부대는 작전에 투입되었다.

8월 3일 화개장 작전: 화개장을 포위하여 집중 공격하였으며, 이현상이 있을 만한 곳을 집중수색, 주변으로부터 중심부로 작전 범위를 좁혀, 그의 측근들을 하나둘씩 체포해 나갔다. 이현상의 호위대장이었던 송관일 사살, 전남도당 병기과장 최달만 사살, 전남도당 진위대 88부대장 이봉삼을 사살하였다.

9월 4일 경성의전 출신으로 광주에서 안과에 근무했고, 6.25발발 이후에 전남도당에서 활동 중 지리산으로 들어가 제5지구당 전속 의무관이 된 이형련을 생포하여 그가 파상풍으로 죽어갈 때 자신 몸의 피를 수혈해 주고, 부인을 만나게 하는 등 인간적으로 대하자, 이형련은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이현상이 숨은 곳을 알려주고는 죽었다.

휴전협정 체결 직후에 남로당 지도부가 미국의 간첩이라는 죄명으로 숙청당하자 북한에서 남로당을 지지할 세력이 사라짐. 1953년 8~9월 지리산에서 개최된 조선인민유격대 회의에서 김일성이 행한 남로당계 숙청을 지지하면서 이현상은 평당원으로 강등당하고 지리산 빗점골에 유폐되었다.

차일혁은 이현상이 완전히 실권을 잃고 반 감금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9월 13일 이현상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인 빗점골에 수색대를 매복해 있다가 9월 17일 수색대는 20시경 3~4명으로 보이는 공비들과 조우하여 접전을 벌였다. 이때 이현상이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며 618부대가 이현상의 호위병 둘을 사로잡았고, 그들이 이현상의 시신을 확인하였고 차일혁은 이현상의 시신을 하동의 쌍계사로 옮겼는데, 그의 몸에서 소련 권총, 일기와 한시, 염주가 나왔다. 이현상의 시신은 서울로 옮겨져 방부 처리하여 전시되었다. 전시를 마친 이현상의 시신은

친척들이 모두 인수를 거부하자 차일혁이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님을 불러 독경하고 불교식으로 화장해 자신의 철모를 벗어 이현상의 뼈를 모아 담고서는 MI 소총으로 곱게 빻아 화개장터 근처 섬진강에 유골 가루를 뿌렸다. 이로 인해 상부로부터 질책을 받아서 부대원들에게 태극무공훈장이 3개나 수여되었지만, 차일혁은 받지 못하였다. 이현상 사살 이후 지리산의 빨치산들은 힘을 잃고 소멸해 갔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1948년 여순 10·19사건과 6·25전쟁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전북 등 삼남지대와 지리산 일대를 주 무대로 삼아 군경과 대치하며 후방지역을 불안에 떨게 했던 빨치산들을 완전히 토벌하고, 후방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되찾게 됐다.

차일혁은 빨치산과 솔한 전투를 치렀다. 그는 가급적 귀순을 유도하여 많은 빨치산의 목숨을 살렸다. 이 싸움을 두고 차일혁은 “이 싸움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후에 세월이 가면 다 밝혀질 것이다.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벌어진 부질없는 동족상잔이었다고.”라는 글을 <전북일보>에 기고하였다. 이현상과 차일혁이 취했던 삶의 방식을 기억하고 재음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두 사람은 폭력의 불가피성 속에서도 단순한 이념적 대립을 넘어 민족적 고통에 아파하면서 같은 민족으로서의 민족애를 발휘하였는데, 인명을 함부로 살상하지 않고 포로로 잡은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우하였다. 가장 치열하게 폭력의 현장에서 대립했던 이현상과 차일혁에게는 민족적 고통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었고 생명을 존중하는 민족애가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다른 빨치산 지도자나 토벌대장과는 다르게 자신의 편에서도 잘못을 찾고 책임을 묻는 그래서 잘못을 단순하게 상대에게 떠넘기지 않는 성찰적 태도도 보여준다. 또한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는 데에서 벗어나 민족의 상생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4. 四世 차길진(車吉辰) 1947.5.27.~ 2019.12.3.



[차길진 삶과기억] 빨치산 토벌대장 차일혁 아들, 원혼 위로한 영혼능력자로 살다 가다.

‘영(靈) 능력자’라는 독특한 직함을 지닌 차길진(72) 후암미래연구소 회장(전 한겨레아리랑연합회 이사장)이 2019년 12월3일 지병으로 타계했다.

편도암에 이은 악성 뇌종양으로 긴 투병생활을 했다.

차회장은 ‘차길진 법사’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구명시식(救命施食)이라고 이름붙인 초혼위령제로 명성이 높았다.

영혼을 불러내어 달래는 ‘천도제’ 의식인데, 그는 최면이나 영매 같은 보조 수단 없이 바로 영(靈)과 통하는 능력자로 꼽혔다.

김희선(한국 심령과학협회장, 전 서울대 교수) 박사는 그를 ‘사람’이라 보기 어렵다며, 외계인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차법사는 대체 어떤 분이며 어떤 생을 살았을까.

차길진 선생은 1947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다.

문화기획자, 사학자, 언론인, 작가 등으로 활약하는 그를 가리켜 ‘천수관음(천개의 손을 가진 관음보살)’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2008년부터 약 10년간 한국야구위원회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구단주 대행을 맡았으며, 한겨레아리랑연합회 이사장, 차일혁기념사업 회장,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자문위원, 경찰박물관 운영위원을 맡았다.

공연에서도 역량을 드러냈는데 창작대중가극 ‘눈물의 여왕’과 오페라 ‘카르마’를 제작했다.

2014년에는 공연예술계 기여 공로로 화관문화훈장을 받는다.

2015년엔 아리랑 보급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5 아리랑상’(한겨레아리랑연합회 시장)을 받았다. 그는 또 시인으로 활약하여, ‘그토록 그리움이’라는 시를 발표했다. (이 시는 이탈리아어로 번역되어 노래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는 또 서울 송파구 석촌동과 충남 유성 계룡산, 미국 뉴저지, 일본 등 4곳에 후암정사를 설립해 종교적인 활동(조계종 국제포교사)을 한 바 있다.

그는 많은 책을 냈다. ‘빨치산 토벌대장 차일혁 수기’, ‘애정산맥’, ‘영혼의 목소리’,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한 마리 까치 되어’, ‘영혼은 비자가 없다’, ‘영혼의 엑스파일’, ‘영혼을 다스리는 49가지 이야기’, ‘영혼을 팔아먹는 남자 이야기’, ‘어느날 당신에게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또 하나의 전쟁’,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영혼산책’ 등이다.

그를 한껏 유명해지게 한 것은 그의 뿌리였다.

그의 증조부 차치구(車致九)는 전봉준의 참모로 우금치 전투에서 잡혀 화형당한 동학혁명의 선봉장이었다. 그의 할아버지 차경석(車京石, 1880~1936)은 보천교의 교주(천자)였다. 전북 정읍 입암산에 본부를 두었던 보천교는 일제시대 조선 최대의 민족종교 단체다. 보천교와 차경석은 박경리의 소설 ‘토지’에도 등장하며, 이 종교단체는 당시 인구 1,200만명 중 300만명의 신도를 거느렸다고 한다. 보천교의 본부 건물은 1936년 일제에 의해 해체되고 그 자리에 선 것이 조계사 대웅전 건물이다. 그의 아버지 차일혁(車一赫, 1920~1958)은 1950년대 제18전투경찰대장으로 빨치산 토벌을 했던 사람이다. 이현상과 전투를 벌였던 그 총경이다. 이현상은 차일혁에 대해 비록 적이지만 훌륭했다는 말을 남겼다. 두 사람은 빨치산 전투를 치르면서 인명사살을 최소화하자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차일혁은 전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총을 겨냥야 했던 비극을 이후에 깊이 앓을 수 밖에 없었다. 그는 그 슬한 죽음에 대해 인간적인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 하다가 의문의 익사로 생을 마감했다. 금강에서 수영을 하던 아버지가 가만히 가라앉을 때 12세 아들 차길진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의 생은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했는지 모른다. 그는 아버지의 영혼을 달래고 적군 이현상과 빨치산들, 그리고 남북의 모든 전쟁 피해자들의 영을 위로하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 그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영혼체가 흩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집착이 많은 영들을 흩어지게 하는 해원(解冤)의 생을 시작한다. 그 매개 역할을 하는 영매를 자임하게 된 것이다.

차길진은 2018년 4월3일 한 언론(스포츠월드)에 ‘잘 죽는다는 것’에 대해 칼럼을 기고했다. 칼럼니스트이자 정치평론가인 어느 분과의 인연에 대한 얘기다. ‘잘 살진 못했지만 잘 죽고 싶다’는 제목의 칼럼을 쓴 분이었는데, 막역한 사이가 되어 여행을 함께 했다. 강원도에서 차 선생이 카메라를 들고 그의 사진을 찍었는데

데, 사진이 이상하게 나왔다. 얼굴이 빛바랜 사진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빛이 들어온 것이겠지요.” 이렇게 말했더니, 사진 전문가인 그가 “이 각도에서는 빛이 들어오지 않거든요”라고 했다. 차 선생은 입을 열었다. “앞으로 3년을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배도 끊고 술도 줄이십시오.” 그렇게 말하자 그는 웃으며 “저주를 하시는 건 아니죠?”라고 말했다. 차길진 선생의 말, “이미 정해진 운명이니 남은 시간 재미있게 사십시오.” 3년 뒤 그는 정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마지막 그가 한 말은 이랬다. “정말 운명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까?” 차 선생은 말했다. “예. 하지만 누구보다 잘 죽을 수 있습니다.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했다. 섬뜩하지만, 이것이 고인이 작년에 남겼던 칼럼이라 의미심장하게 읽힌다.

차길진은 한국의 월드컵 4강 진출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을 예언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 예언들에 대한 경탄이나 신뢰는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주역의 지혜처럼 일의 흐름과 시대의 전환, 그리고 삶의 기복을 성찰하는 탁월한 안목으로만 이해해도 충분히 놀랄 만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는 ‘미래’를 꿰뚫는 형안을 가진 사람답게 우아한 예언 하나를 해준다. 이른바 부자가 되는 3대 비법이다. 첫째, 부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조상의 음덕이 있어야 한다. 이걸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잘 베푸는 공덕을 쌓다 보면 자신은 그 성취를 맛보지 못하더라도 후대가 받을 수 있으니, 겸허하고 어질어야 한다는 얘기다. 둘째, 부자는 단순해야 한다. 부자는 무식하게 일만하는 머슴도 쓰지 않고 너무 사근사근한 머슴도 쓰지 않는다. 머슴이 입을 굳게 다물고 쉽게 웃지 않는 자도 쓰지 않는다. 인재를 어떻게 고르느냐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셋째, 부자는 작은 인연을 큰 인연으로 만든다. 한번 맺은 인연을 어떻게 깊게 하고 넓게 하느냐가 부자가 되는 핵심이라고, 그는 특유의 통찰력으로 말을 한다. 시대를 풍미하고, 전시대를 해원한 저명한 예언가 한 사람이 낙엽이 가득한 어느 시월 초입에 ‘영혼산책’을 떠났다. 평안한 영면을 빈다.

각주

- 위키백과 중에서

- 김화성 《전라도 천년》(김화성 저, 2018.2, 맥스교육) 186~187쪽.
박종렬 《차천자의 꿈》(박종렬 저, 1996.2, 장문산) 24~25쪽.
감역은 벼슬 이름이다.
이이화 《파랑새는 산을 넘고》(이이화 저, 2008.10, 김영사) 179쪽.
안원전 《증산도》(안원전 저, 1991, 대원출판사) 274쪽.
김화성 《전라도 천년》(김화성 저, 2018.2, 맥스교육) 187쪽.
박종렬 《차천자의 꿈》(박종렬 저, 1996.2, 장문산) 25~27쪽.
박종렬 《차천자의 꿈》(박종렬 저, 1996.2, 장문산) 27쪽.
김철수 《일제기록으로 본 보천교의 민족주의적 성격》
(김철수 저, 2016.8, 동학농민혁명 이후 근대 민족운동 학술대회 자료집) 145쪽.
김철수 《잃어버린 역사 보천교》(김철수 저, 2017.5, 상생출판) 81쪽.

관련 서적

- 이이화, 《파랑새는 산을 넘고》 (김영사, 2008)
김철수, 《잃어버린 역사, 보천교》 (상생출판, 2017)
김재영, 《일제강점기 보천교(普天教)의 민족운동》
김화성, 《오매! 징허고 오지게 살았네 전라도 천년》, 186-187쪽.
박종렬, 《차천자의 꿈, 시국》 (장문산, 2001)
김철수, 《잃어버린 역사, 보천교》 (상생출판, 2017)
김철수, 《일제강점기 종교정책과 보천교의 항일민족운동》
김철수, 《일제기록으로 본 보천교의 민족주의적 성격》 (학술대회자료집, 2016)
김재영, 《일제강점기 보천교(普天教)의 민족운동》
김재영, 《동학 이후 증산계열의 민족운동》 (학술대회, 2016)
김화성, 《오매! 징허고 오지게 살았네 전라도 천년》, 186-187쪽.
남창희 《보천교의 정체성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학술대회, 2016)
《동아일보》 (1921. 4. 30)
박종렬, 《차천자의 꿈, 시국》 (장문산, 2001)
亞細亞局第3課關機授제32743號
안원전, 《증산도(하)》(안원전 저, 대원출판사, 1991)
안후상,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독립운동》 (학술대회자료집, 2016)
장신 《일제하의 요시찰과 倭政時代人物史料 제11호》(역사문제연구소, 2003)
황선명 《잃어버린 코문》(황선명 저, 학술대회자료집, 2000)

Ⅶ. 종친회 자산취득 사항

중앙종친회 재산취득의 의의

평택시 장안동 137~138번지(답), 139번지(전) 1,285평 종토가 평택시 개발계획으로 2019년 2월7일 토지 보상금 1,338,120,000원을 수령하여 그중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잔액 945,562,500원을 지금까지 은행 정기예금을 하였으며 예금만기 시에는 이자 100원까지도 원금에 넣어 1원도 낭비 없이 저축하였습니다. 최초 보상금 잔액보다 현재 일금 51,409,70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시에 받은 보상금은 혹시 모를 개발로 의덕사가 이전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임야를 구입하기로 하고 3년 가까이 적합한 임야를 찾아다녔지만 마땅한 토지가 없어 미루어 오다가 2022년도 이사회와 총회에서 수익자산을 취득하기로 의결되어 상가 및 작은 공장을 답사하여 왔으나 그것 또한 적합한 것이 없다가 2023년 12월 취득한 부동산을 수도권 주요 당직자들과 답사한 후 심사숙고하여 이사들과 감사들의 의견(서면질의)을 근거하여 취득하였습니다. 연안회관을 취득한지 27년 만에 갈망하던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만 제종 여러분들과 위대하신 조상님들의 음덕이며 여러분들과 기쁨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자료로 대신 합니다.

중앙회장 차 병 표

1. 요당리 19-23 공장 전경



2. 계약서

부동산(공장)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합일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오당리 19-23(1,447㎡), 19-45(도로지분, 1,210㎡)중 약23.4㎡
면적	1470.4㎡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오당리 19-23(1,447㎡), 19-45(도로지분, 1,210㎡)중 약23.4㎡
면적	594㎡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일십억구천만원정 (₩1,090,000,000)
계약금	금 사천만원정 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매수인 김경희 (인))
1차종도금	금 삼억칠천만원정 은 2023년 12월 29일에 지급한다.
2차종도금	금 오천만원정 은 2024년 01월 22일에 지급한다.
잔금	금 육억구천만원정 은 2024년 06월 30일에 지급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료 차에 협력 하여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4년 06월 30일**로 한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지상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채권과 관련된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행사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송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재산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 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시정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7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제8조 [중개보수 외]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 이외의 업무를 의뢰한 경우, 이에 관한 보수는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지급하며 그 금액은 합의에 의한다.

제9조 [중개대상물확인명세서교부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명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금계중서 (공제중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교부일자 : 2023년 12월 19일)

[특약사항]

●도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오당리 19-23번지 (공장용지; 1,447㎡) = 금631,000,000원
 ●건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오당리 19-23번지 (594㎡) = 금450,000,000원 (부가세 별도)
 ●도로-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오당리 19-45번지 (도로; 1,210㎡) = 금9,000,000원

1. 한 시실 상대방의 매매 계약이며, 매수인은 현장답사 및 공부상서류를 확인하고 계약한다.
2. 매매 목적은 현황측량을 하지 않고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건물면적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측량으로 인한 면적의 증감이 있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호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3. 건물본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4. 매도인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추가대출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근자당금: 농협은행주식회사: 차권최고액 금792,000,000원)
5.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6.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품질 험기되어, 건물 지붕을 수리해주기로 하며, 건물 내부 쓰레기를 처리해주기로 한다.
7. 잔금일 전이라도 본 공장 임차계약이 이뤄질 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잔금일을 협의하기로 한다.
8.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4억원에 대한 가등기설정용 하기로 하며, 잔금시 변동기하기로 한다.
9. 계약시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 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
10.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11. 공부서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2. 매도인계좌 (카본텍사 (주), 농협은행): 301-0318-4138-71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 각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다. 2023년 12월 19일

매도인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송림죽림길 86, 카본텍사 주식회사 (법인인)	성명 카본텍사(주) 대표이사 김경희 (인)
매수인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18길 10, 연안회관 4층 (방배동)	성명 연안차지중개사 대표자 박병준 (인)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도성로 646 (송산리)
 사무소 명칭 미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 명 김혜민 김혜민 (인)
 전화 번호 031-354-3334 등록 번호 41590202100212 소속공인중개사 명 김혜민 김혜민 (인)

KA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 중앙중중 공장취득 경위 및 主要事項

소재지: 화성시 양감면요당리19-23, 공장용지1,447평방미터 건물594평방미터
동 소 19-45, 도로지분1,210평방미터 중 23.4평방미터

-.취득가격: 10억9천만원

-.매매가 지불조건: 계약금4천만원, 1차 중도금 지불금 삼억일천만(2023.12.9)
2차 중도금 지불 금액오천만원(2023.12.29.) 잔금지불 금액 육억구천만원
(2024.6.30.)

-.특징

1. 토지가 4각으로 모양이 반듯하고 건물 기둥 높이가 7미터이다.
- 2.건물면적이 180평 단독이며 기존 기둥옆에 H-빔을 세우고 호이스트 설치.
- 3.주차장이 넓어 가설건물 설치 등 활용도가 높다.
- 4.2차선 지방도에서 공장까지 진입도로가 8미터이상.
- 5.행거도어 건물 앞면에 2문, 뒷면에 1문이 설치되어 화물차가 건물 내부로 진입이 편리하다.
- 6.최초 산업단지로 조성되었고 2023.1.1.~12.31 화성시 도시계획에 산업지역으로 지정(2024.1.1. 부터는 산업지역에만 공장허가됨)
- 7.양감면 사무소 인근지역이며 평택시 청북I·C가 5분거리. 기반시설 양호

-.문제점

- 1.건물에 대한 부가세사천오백만원 과 등기비용, 각종공과금, 부동산 수수료 등 부족 - 부가세는 3개월 내에 환급받음
- 2.예상되는 부족금 약칠천만원은 집행부에서 융통하여 사용할 것임.

-.주요 특약사항

- 1.잔금지불 약정 기일 내에 건물 임대가 성립되면 상호협의하여 잔금 지불일을 정한다.
- 2.매도인은 2023년12월29일 1차 중도금 지불일에
 - ㄱ.은행에서 대출거래 내역 조회표 및 대출계좌 기본정보 조회 결과서를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 ㄴ.매도인은‘소유권이전 청구 가등기’를 매수인에게 하여준다.
 - ㄷ.매수인은 1차중도금 삼억일천만원은 ‘소유권이전청구 가등’서류가 등기소에 접수통보를 받은 후 지불하기로 한다.
*2023년12월29일14시40분 접수확인. 접수번호297263호
 - ㄹ.등기부등본 재확인 후 중도금 입금함.

#소유권이전 청구 가등기의 효력

서류가 등기소에 접수된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대출, 압류, 근저당 설정은 매수인이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모두 소멸된다.

4. 가등기설정 접수증

접수증 1의 2페이지




접 수 증

1.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 : 2023년 12월 29일 접수 297263호
2. 부동산의 표시 :
 - [토지]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9-23 공장용지 1447㎡
 - [건물]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9-23 1동 (도로명주소)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170번길 34
 - [토지]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9-45 도로 1210㎡
3.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4. 신청인
 - 성명(명칭) : 연안차씨증친회중앙회
 - 성명(명칭) : 카본핵사주식회사
5. 대리인
 - 성명(명칭) : 법무사 최성배
6. 담당계 : 등기3계

위와 같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등기관 

※ 해당 사건 처리현황 확인방법

PC 또는 모바일기기로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로그인(회원이입은 PC로만 가능) 후 등기 신청사건 처리현황 메뉴에서 접수번호/소재지번/도로명 등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 좌측상단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
 다만, 접수증에 표시된 담당계는 등기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b112/r4/selectRecevContCntt.do>
2023-12-29

VIII. 차문의 집성촌 소개

1. 연안차씨 문절공파 하동문중 세거지



중앙회이사, 하동문중 국장 차 승 찬

연안차씨 문절공파 하동문중은 경상남도 하동군에 입향한 27세손 휘 언린(彦麟) 공의 자손들이다. 하동에 입향한 연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하동적량면지, 차운암설원록, 하동문중 소장 집안 고문서 등을 토대로 아래의 글을 작성하였다.

하동 입향조 27세손 휘 언린(彦麟)공은 20세손 문절공 휘 원부(原頤)공의 7대 종손이다. 언린(27세)공은 여수에서 하동으로 입향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동 입향조 27세손 휘 언린(彦麟)공 묘소. 하동 적량면 선산

20세	원부(原類)	간의대부	
21세	안경(安卿)	고려조 중랑장	
22세	상도(尙道)	성균 진사	상의(尙義) 상인(尙仁)
23세	계생(繼生)	성균 유학	중생(中生) 중연(中連)
24세	경복(敬輓)	봉훈랑 후릉참봉	경철(敬哲)
25세	희인(希仁)	진사-문과-직강-양산군수	희손(希遜) 희윤(希允)
26세	연부(延富)	종사랑	
27세	언린(彦麟)	하동 입학조	언식(彦軾) 언범(彦範) 언가(彦軻) 언구(彦龜)
28세	응로(雄略)		응규(雄圭) 응현(雄賢)
29세	정흠(廷紘)		
30세	홍윤(弘潤)	통정대부	
31세	전래(展駟)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	
32세	희재(禧載)	절충장군 행첨지중추부사	형재(亨載) 두재(斗載)
33세	석량(錫良)	차운암설원록 간행	석관(錫官) 석일(錫一)
”	27세 언린공 이후 후손 하동문중		

문절공파 하동문중 계보도

여말선초 차씨문중의 참화로 인해 원부(原類)공과 안경(安卿)공이 화를 입고, 상도(尙道)공은 경상도로 도피하여 화를 면하였다. 이후 조선 조에서 정종(定宗)이 사제(賜祭)를 하고(조선왕조실록) 세조(世祖)가 문절(文節) 시호를 내리고 설원기 간행을 명하는 등 제재가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 23세손 형제들(계생(繼生) 중생(中生) 중연(中連))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훗날 문절공파(文節公派)의 큰 세(勢)를 이루고 24세손 형제들(경복(敬輓) 경철(敬哲))은 여수 읍촌 구암마을에 입학하여(현 여수공항 부지) 여수와 강진으로 이거하고, 25세손 형제들(희인(希仁) 희손(希遜) 희윤(希允))은 하동 여수 광양 순천 장흥 남해 등으로 세거지를 이루었다.

희인공(25세)은 진사(進士)-문과(文科)-직강(直講)-양산군수(梁山郡守)를 지낸 후 여수 읍촌면 구암리에 이거 하고, 손자 언린공(27세)의 형제들이 경상도 하동군 적량면 관리로 이거하고 운암사(雲巖祠) 건립하고 3월 3일 사림제(士林祭)로 봉향 했다는 하동적량면지 기록을 토대로 전남 여수에서 경남 하동에 이거하여

정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언린 공(27세)의 묘소는 하동인데, 윗대인 경복공(24세) 희인공(25세) 연부공(26세)과 자손 응로공(28세) 정흘공(29세) 흥운공(30세) 전래공(31세)의 묘소가 여수인 점, 하동 차운암별묘(車雲巖別廟) 여수 구암별묘(龜岩別廟, 현 여수공항) 간 교류, 하동문중 보유 고문서들의 기록을 토대로 하동과 여수 간 자주 오가며 생활했거나 여수에서 생활하다 후대에 하동으로 묘소를 옮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희재공(32세) 석량공(33세)과 후손들의 묘소는 하동이다.



32세손 휘 희재(禧載)공, 33세손 휘 석량(錫良)공 묘소. 하동 적량면 선산

원부공(20세)의 13대 종손인 석량공(33세)은 차원부 설원록의 경진본을 발간하고, 사림(士林)들과 함께 여러 차례 정조(正祖)에게 고려 말 간의대부를 지낸 충신 운암 차원부에게 시호(諡號)를 내려달라는 취지로 상언(上言)을 작성하고 상소하였다. 이 상언 말미에는 진사 김의집(金義集) 등 62명의 진사, 유학들과 차석량(車錫良) 등 33명(경상도 하동 12명, 흥양 고읍면(현 고흥) 5명, 전라도 순천(현 여수) 9명, 광양 2명, 화천(경남 함안)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아쉽게도 일성록(정조 11년 2월 6일자 및 정조 12년 4월 4일자)에 ‘옛날 일로서 실적(實蹟)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기각되었으나 1786년 당시(정조 10년) 문중 구성원들이 뜻을 모았던 증거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조선조 한성부

(漢城府)는 1804년(순조 4년) 순천에서 연시(延諭)행사를 통해 후손에게 차원부 증시교지(贈諭教旨)를 내리고, 차씨 본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직계손, 서자까지 모두 균역을 면제받고 제사를 지냄에 부족함이 없도록 땅과 쌀을 주도록 순천부(順天府)에 명령을 내렸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차원부 증시교지(경태7년, 1456) 및 하동문중 고문서 60여 점

현재 생업으로 전국으로 흩어져 살고 있기에 하동군에 거주하는 가구 수는 매우 적다. 이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으로 소통하며 문절공 불천위제사(不遷位祭祀) 하동문중 합동 시제 명절 등 문중 행사 시 차운암별묘에 모여 뜻을 함께하고 있다. (차운암별묘 창건기록 : 입주상량에 승정기원후 을미(1655년) 2월 15일 신시 - 崇貞紀元後乙未二月十五日申時立柱上梁)

하동문중은 2021년 문절공 차원부 시호교지(諡號教 1456년, 세조 7년) 진품(眞品) 판정(한국고미술협회), 2022년 차운암별묘 보수공사를 마쳤으며, 2022년부터 집안 고문서 60여 종(1804년 교지 연시(延諭)행사 시 한성부(漢城府) 문서, 약 200년 간의 준호구(准戶口), 1700년대 상소문(上疏文), 1800년 대 절목(節目), 통문(通文), 변의록(辨疑錄) 등)을 번역하고 있다. 향후 시호교지와 함께 경상남도 문화재로 신청할 예정으로, 선조님들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남기고자 한다.



하동 적량면 관리 차운암별묘 전경

2. 합천 덕후(德厚)문중



중앙회자문위원 차 승 환

1. 위 치

경남 합천군 덕곡면 장리의 한동 마을은 연안차씨의 집성촌이다. 행정 구역상은 경남 이지만 경북 고령군과 접해있고 창녕군과 맞닿아 있는 경계지역에 있으며, 합천군의 17개 면 중에서 인구 면적 등 면의 세력이 가장 작다. 대구광역시의 영향권으로 상급 학교 진학과 취업 등으로 출향민의 생활은 주로 대구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 행정면 이름이 덕곡면(德谷面)으로 정해진 것은 당시 이 고을의 대성 씨족인 연안차씨의 재실 이름인 덕후재(德厚齋)에서 德자와 지형이 8km인 긴 계곡의谷자를 접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입향조

이곳 한동 마을 입향조는 약 430년 전 27세손(강렬공 8세손) 여익(汝益) 할아버지인데, 기록에 의하면 경기도 양주 도봉면 우이마을에서 난(임진왜란)을 피하여 가족과 함께 합천군 초계면과 창녕군 이방면을 거쳐 이곳에 정착 하였다. 이곳은 지형적으로 서울의 수서동 지역과 같이 앞에는 강(탄천)이 흐르고, 계곡이 깊고 길어(약 8km) 난을 피하기 아주 적합한 지형의 오지이다.

625 기습 남침 당시 북괴군도 국군의 강을 교두보로 한 방어선에서 돌파하지 못한 큰 강인 낙동강 원류가 하류 쪽에 가로 막고 있으며, 나룻배를 타고 건너와 4km나 북쪽의 계곡으로 더 들어가야 하고, 삼면이 높은 산과 강으로 둘러 싸여 있다. 서북쪽 산을 넘으면 경북 고령군과 경계사이에 가야산에서 발원하는 회천(가야강)이 흐르고, 남서 쪽 산을 넘으면 거창군에서 발원 하는 황강이 흐르고 있어, 당시로서는 천혜의 피난지로 적합한 산골 오지이다. 6.25 격전지의 흔적으로는 어릴 때 저의 집의 서랍 속에는 M1 총알, 장총 탄환, 칼빈 총알이 있었고, 마루 밑의 호미 등 연장을 넣는 통은 미군의 탄약 상자나 기관총탄 케이스였고, 어

뒀던 집은 대포 꺾데기로 굴뚝을 만들어 사용했다. 625전쟁 당시 북괴군이 마을 앞 산의 밤나무 숲에 주둔 했다는데 북괴 여군들의 군가 소리가 요란 했다 하였다. 전쟁 이후 비가 오는 날 밤에는 낙동강 전투에서 죽은 인민군들의 귀신들이 “동무야 낙동강이 원수다 원수” 라고 애석해 하는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다.

3. 가문의 번성과 현황

입향조의 아들 종(從) 할아버지께서는 효성과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고을의 인물이었다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문이 번성할 토대를 마련 하셨다. 숙조 운암 선생으로 부터 학문과 문장력을 이어 받았는데 당시 시대가 어지러워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다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당시 같은 고을의 경상도 서부의 대유학자 남명 조식(1501~1572)의 제자인 임진왜란 시 의병장이요 조선의 개혁인물 내암 정인홍(1536~1623, 광해군 시대의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이 서인의 음해로 인조반정 때 역신으로 추살 당함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 된다.

종(從)할아버지의 저서로는 유학의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가르침으로 의례 문답일책(儀禮問答一冊), 세효우출천(世孝友出天), 애강남부(哀江南賦), 남향윤락(南鄉淪落)을 남겼으나 유실되어 기록으로만 남아있다. 또한, 종 할아버지는 입향조 여익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3년의 시묘(侍墓)살이를 하면서 죽만 드셨고, 상복을 벗은 다음에도 한 달에 세 번 성묘를 하였다.

이후, 한동 마을의 차씨 가문은 지역의 전답과 주변의 산을 거의 소유 하면서 일가를 이루었는데, 그 전답과 임야는 지금도 후손이나 종중의 재산으로 남아 잘 관리 하고 있다. 한동 마을은 계속 번성 하여 100여 호의 대 부락으로 변하였는데, 약 100년 전 여름의 대홍수에 마을 절반이 물에 잠기는 천재지변 후에 지대가 높은 인근 상대부락 등으로 이주하거나 더 좋은 터전을 찾아 많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당시의 물난리가 얼마나 심하고 오래 끌었는지 나룻배를 타고 내렸던 마을 우측 밭 언덕의 밤나무 숲 지역을 배탈밭 이란 지명까지 생겨 내려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면장, 부면장 등 지역 유지는 전부 차씨였고, 학급의 절반도 차씨 학생들이 점유 했는데,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란 시대적 큰 변화에 따라 한동마을 인구도 여느 농촌마을과 같이 줄어들어 현재 주변마을 까지 합하여 30여 호에 불과 하다.

4. 종중의 덕후재 재건축과 활동

필자가 초등학교 시절에 언덕위의 팔작지붕 덕후재 재실에 가보면 종(從) 할아버지의 업적을 기록한 기념 현판이 많았다. 현판은 검은 바탕에 흰 한자 글씨로 서각하여 현란한 단청색의 봉황으로 테두리를 장식 하여 마루 곳곳에 걸려 있었다. 방에는 검은 옷칠을 한 책을 보관 하는 꺾꽂이가 있었는데 이 상자 속에는 목판본 한서(4서5경)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필자의 아버지 세대들은 종중에서 이곳 재실을 서당으로 하여 외부의 한학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6살 때부터 기숙하면서 4서3경의 글공부를 배웠다 했는데, 겨울에는 서당이 얼마나 추웠던지 자고나면 먹던 물그릇이 얼었다면서 우리들보고 공부를 채근하곤 했다.

서당에서 학습 순서는 천자문, 동몽선습, 계몽편, 명심보감, 소학, 사서삼경 순으로 공부 했다 하였다.

재실의 행랑채 초가지붕의 집에는 재실 관리와 마을의 애경사, 묘사 등의 행사시에 굶은일을 해주던 고지기(하인)가 살았고, 하늘높이 솟은 은행나무에는 까치집이 3,4층이 있었으며, 호두나무 옆의 화장실은 당시로서는 매우 근대적 시설이었다. 또한 매우 큰 맷돌이 한 칸에 있었는데, 명절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두부콩을 갈곤 했었다. 행랑채는 고지기가 마을을 떠난 후 허물고 그 자리에 가운뎃가 높고 양옆이 낮은 삼문(三門, 솟을대문) 형식의 대문으로 신축 하였다.

이후 덕후재는 시대 변화의 격변기 속에서 후손들의 많이 떠나고 유지관리를 소홀히 되다보니 여름철의 집중 호우에 그만 반파 되고 말았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뜻있는 선각 후손(차준섭, 차화섭, 차항섭, 차기찬등) 들이 2014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덕후재 복원 성금(차한섭, 차항섭, 차흥섭 등)을 모아 재건축을 완료하고, 새로이 종중회(宗中會)를 설립하였고, 종중 규약, 재산 목록 등을 완성 하였으며, 과거에는 2~3일간 선산의 조상 묘에서 하던 시제를 시대에 맞게 매년 11월 첫째 토요일 날 이곳에서 시제를 지내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종중의 전답과 임야 등이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었던 것을 이관정리하고, 대종(大宗), 소종(小宗)의 재산에 대하여 과거와 달리 명절 행사와 산소관리 등을 소종별로 나누지 않으니 통합 하여야 할 것이며, 6개 지역의 선산에 흩어져 있는 조상님들의 묘지관리도 어렵고 다음세대를 배려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종중의 우뚝 선 종(從) 할아버지의 비석문을 탁본하여 한글화 하고 적지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 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입향조 할아버지(27세손)로부터 이곳에서 43세손 까지 번성하여 왔으니, 덕후재 문중만의 한글가첩을 완성하여 세손들의 전국각지의 어디에서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고 살더라도, 그의 후손들이 덕후재 문중과 연결성을 잊지 않도록 하고 연대감을 갖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 하다.

5. 인근의 연안차씨 집성촌

이곳 한동 마을을 기점으로 3개의 차씨 집성촌이 있다. 이웃 청덕면에 있는데, 한동 마을의 남서 방향의 산등성이(아홉고개)를 넘어가면 운봉이란 차씨 집성촌이 있다. 마을에는 차 박사라는 불리우던 한학자가 계셨다. 이 마을은 특이하게 산의 중턱에서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 필자의 초등학교 시절의 담임선생님이 이 마을에서 산을 넘어와 학교 수업을 끝내고 다시 이 산을 넘어 갔다, 두 번째로 청덕면의 집성촌인 삼학리 마을은 운봉마을에서 동쪽으로 약 4km 하류 낙동강 편에 있는데, 당시 어른들 말씀이 약 300호나 되는 큰 마을이라 하였다. 어릴 적에 이 마을을 지나다보면 아주 고풍스런 기와집, 사당, 기념비석 같은 것이 많이 보였고 우리 한동 마을보다 잘 살고 역사가 매우 깊은 마을이란 인상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운봉마을을 지나 남쪽으로 산을 하나 더 넘어 4km 쯤 가면, 경남남도 문화재자료인 1)덕원서원이 위치한 성태리가 있다. 이곳에는 문목공 차포은, 문절공 차원부, 강렬공 차운혁 선조님들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는 사당이며, 쌍청당실기목판 98매 등 연안차씨의 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성지의 하나이다. 어릴 적에 마을 어른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매년 덕원서원의 제사에 참석하러 가고 돌아와서는 사랑방에 모여 선조님들의 이야기를 하곤 했다.

6. 마을 부근의 주요유적, 명소

가. 다남산 성터와 솜다리 자생지

1) 세조(재위 1455~1468) 때 이시애의 난을 맞아 당시 선봉장으로 활약하다가 장렬히 전사한 강렬공 차운혁·문절공 차원부·문목공 차포은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서당 좌측에 위 세 선조의 위패를 모신 삼현사(三賢祠)가 있으며, 규모는 앞면 3칸·옆면 2칸으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으로 꾸몄다. 해마다 음력 3월 중정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덕원서원은 숙종 18년(1692) 세웠는데, 처음에는 호남승평에 세워 오천서원이라 했다. 그 뒤 지방 유림이 순조 6년(1806)에 청덕면 성태리로 옮겨 지어 덕원서원이라 하였다. 고종 5년(1868)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자진 철폐하였고, 고종 39년(1902) 지방 유림이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5.11.14.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지정)

한동 마을의 뒷산인 다남산(402m) 정상에 올라 청덕면과 경계지역에 넓은 고원평지가 나타난다. 이곳에 돌로 길게 성벽을 쌓아놓은 성터가 있는데 내성, 외성으로 나누어져 있다. 남쪽 사면 쪽은 바위언덕으로 적이 쉽게 접근 할 수 없어 천혜의 요새 지형이다. 그런데, 이 성이 어느 시대에 왜 축성 되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아 군청 등 관계기관과 성곽 전문가에 의한 조사가 필요 하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성의 담벼락이 정교하지도 높지도 않고 또한, 성문 등을 발견치 못하여 산불 확산 방지용 방화선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당시 필자보다 10년 이상 연배들은 이곳의 완만한 고산 평지가 소를 방목하기 좋은 목장적지라 하였다.

이곳 성터주변 평지에는 봄철에 유럽 알프스의 고산지대에서 자생 한다는 에델바이스의 일종인 하얀 솜털 같은 것이 붙어있는 솜다리(귀죽이라 불렀음)가 자생하고 있어 이를 뜯어다가 썩떡을 만들면 아주 부드러웠던 맛의 기억이 있다. 자료에 의하면 솜다리는 설악산 오대산등 고산지대에 서식종이라 하는데 남쪽의 그리 높지 않은 이곳에 서식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나. 다남사 절터와 구름다리 마을

한동 마을의 오른쪽 다남산 계곡(한골)을 오르다가 너들강 못미처서 오른쪽 오솔길 밑의 양지바른(차준섭님 소유 산) 언덕에 오래전에 없어진 절터가 있다. 절터는 계단식으로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우물터도 있고 기와 같은 파편들도 많이 있었다. 이 절에 관하여 알려진 바는 없으나 이곳이 오래전부터 절터라는 지명으로 인근 부락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을 보면 꽤 영향력 있었던 사찰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동 마을 왼쪽에 마을이름을 굽달(구름다리의 변음) 이라 부르는데, 전설에 의하면 신선이 마을 앞의 소학산(489m)과 뒷산인 다남산 사이를 구름을 타고 피리를 불면서 왔다 갔다 놀고 있었다는 전설에 따라 마을 이름을 신선의 다리 마을이라는 의미로 구름다리, 굽달, 운교동(雲橋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다. 거목 굴참나무와 왕버드나무

한동 마을 뒷산의 수호신 당산에 가 보면 이 마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 당산에는 수백 년 된 당산나무 고목이 쓰러져 있는데 어른들은 엄나무라 하였다.

여름이면 이고목이 울음소리를 낸다고 하였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한여름 밤에 우는 두견새(소쩍새) 소리가 아니었나 생각되고 엄나무가 거목으로 성장한 것은 보지 못했다. 그 쓰러진 고목 앞에는 곁가지도 없이 하늘로 솟아오른 아름드리 굴참나무 거목 한 그루가 있는데, 저는 아직 까지 이렇게 크고 쪽 뺨은 잘 생긴 굴참나무를 본적이 없어 장차 보호수로 지정 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 마을 앞의 개천 제방에는 수백 년 된 왕버드나무 5그루와 팽나무가 있는데, 수형이 아름답고 비스듬히 누워있어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과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늦가을이 되면 하늘을 뒤덮는 철새인 검은 떼까마귀들의 보금자리로 역할을 다해주고 있어 마을의 운치를 한층 더 높여준다.

라. 오광대놀이 발상지 밤마리와 학리 지석묘군(支石墓群)

입향조 여익 할아버지가 낙동강을 건너(1595년경)온 나루터가 밤마리(울지)인데, 이곳 밤마리 나루터는 당시 물동 수송수단이 큰 강의 수로를 따라 이루어 졌는데, 밤마리는 지역적으로 경상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1870년에는 부산등지에서 생선, 젓갈, 소금 배들이 올라와 큰 시장을 형성 하여 여러 지역의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여름 6월에는 삼베의 원료인 대마 집산지로 난장이 펼쳐졌으며, 시장마을의 규모가 300호로 번창하던 지역의 거점 장터였다.

자연히 사람이 모여드는 시장에 사람을 즐겁게 하는 다섯 광대가 출연하는 오광대가 나타났으며, 이들 오광대는 시장상인들의 보호아래 더욱 발전되었고, 이 오광대의 명성이 대단하여 여러 지역으로 전파 되었다. 수영야루, 동래야루, 김해 오광대, 창원, 통영, 진주, 고성오광대로 이어졌다고 한다.

이후 산업화에 따라 육로교통이 발전하면서 밤마리 시장도 급속한 쇠락과 함께 오광대도 과거의 역사 속에 묻혔는데, 수년전부터 지역 유지들이 지역의 특별한 무형 문화재인 밤마리 오광대놀이를 새로이 복원하여 정기공연을 하는 등 명맥을 이어가고 으며, 지역의 간선 도로이름도 오광대로라 지었다.

초등학교 시절에 약 3km 떨어진 학동마을로 들어가는 농로 옆에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들이 여러 개 놓여 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청동기시대 무덤 양식인 지석묘(支石墓)로 밝혀져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2021년)되었다. 이곳의 지석묘는 남방식의 고인돌 특성으로 덮개돌 밑에 받침돌 2개로 받치고 있는 직사각형 형태다. 현재는 주변 200평에 5기의 지석묘가 있고, 인접에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원이 자리하고 있다.

마. 사향노루 등의 야생동물 서식

지금은 산속의 야생동물인 멧돼지와 고라니가 내려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어릴 적 이곳 한동 마을에는 보호야생동물을 접하면서 살았다. 산토끼, 노루, 너구리가 흔했고, 닭을 물어가는 살쥍이도 있었다. 늦가을 밤이 되면 너구리가 먹이를 찾아 집주변에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뒷산에는 올빼미(부엉이?)도 살았다, 겨울철이 되면 산토끼 등의 야생동물을 잡고 하였는데, 어떤 어른이 좁고 깊은 땅굴 속에 살아서 잡기가 매우 어려운 오소리를 잡았다하여 구경 갔더니 약 60cm 크기의 통통한 몸에 희색 털이 있었고 짧은 네 다리에 날카로운 발톱이 달려 있었다.

하루는 봄에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건넌 밭 언덕 나무에서 까치들이 심하게 울고 있어서 내다보니 여우 한마리가 건너편 산으로 가고 있었는데, 텃새인 까치들이 위협을 느낀 것 같았다. 작은 강아지만한 크기의 여우는 여유 있게 한번씩 뒤돌아보고 꼬리를 끌면서 들판을 가로 질러 산으로 올라갔다.

어른들이 마을 뒤 다남산의 바위 절벽지대(차영조님 소유 산)에 사향노루가 산다고 하였는데, 어느 날 그 절벽 언덕에서 놀고 있는데 검은 염소 같은 동물이 짹짹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어른들에 알렸더니 사향노루라 하였다. 사향노루의 배꼽은 아주 귀한 한약재로 쓰이며, 일본의 지폐에는 사향향을 넣어 근방에 가면 돈 냄새가 난다고 하였다. 그밖에 고령으로 넘어가는 진등재에서 담비와 마주쳤다는 분(차기환님). 본인 소유의 산(손치 아래실)에서 딸나무를 묶다가 옆에 호랑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쳐 내려왔다는 분(차학섭님 부친)도 있었다.



二十八世 諱從(字龍雲 號雲巖) 處士公 墓所 全景

慶南 陝川郡 德谷面 上大洞 廣개상동산

IX. 종친들의 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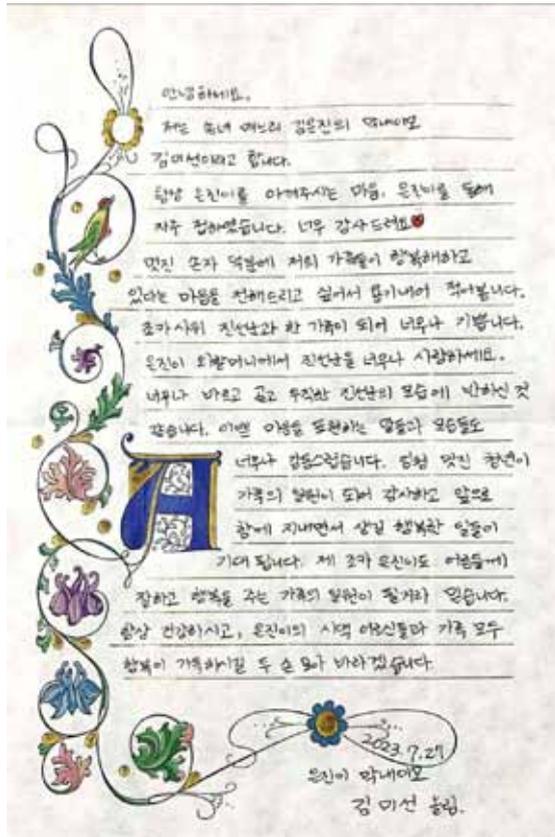
1. 은진이 이모님의 편지



중앙회장 차 병 표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모처럼 보는 햇빛은 용광로처럼 뜨겁다.
아내를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버스 정류장에 내려주고 과수원으로 갔다. 벌써 손자 진선은 언제 왔는지 아범하고 과수원 안에서 일을 한다.
나는 창고 옆에 심어놓은 블루베리 화분에 긴 장마로 풀씨가 발아하여 성장한 잡초를 사과상자를 놓고 앉아서 뽑아준다. 화분에 손이 닿으면 뜨거워 얼른 손을 떼는다. 땅에서도 뜨거운 지온이 더욱더 내 몸을 뜨겁게 한다. 얼굴에서는 땀이 흐르고 숨을 쉬는 것도 버겁다. 일손을 멈추고 창고 안으로 들어와 선풍기를 틀고 정수기에서 찬물을 두 컵 따라 마셔도 달구어진 내 몸은 시원하지 않다.
시간을 보니 11시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덥다. 나는 아들에게 작업을 중단하고 진선이 데리고 얼른 나오라고 전화를 한다. 창고로 나온 아들과 손자를 쳐다보니 얼굴이 빨갛다. 판매장에서는 며느리가 매일 점심식사 준비를 한다. 그곳에는 에어컨이 있어 무척 시원하다. 그곳에서 식사도 하지만 더위를 피하는 심터가 되곤 한다. 아내는 수영장에 갔다가 12시가 되면 수영 차로 과수원 앞 4차선 도로 건너편 상가 앞에서 내린다. 그곳은 건널목이 없어 무단 횡단하면 위험하다고 아내가 올 시간이면 아들은 매일같이 차를 가지고 가서 기다리다가 아내가 내리면 차에 태워서 데리고 온다. 혹 아들이 못 가면 손자가 길 건너에 있는 아내의 손을 잡고 온다. 아내는 아들과 손자 진선 이에게 늘 고마워한다. 며느리는 아내가 들어오면 식사를 하도록 밥상을 놓는다. 7월27일 아내가 판매장에 들어와서 상에 앉으니 진선이 “은진이 막내 이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드리라고 선물을 주셨어요.” 하며 선물 가방을 아내 앞에 놓는다. 선물은 수제 약과이고 편지까지 정성껏 접어 넣었다. 아범이 진선에게 읽어보라 하여 내용은 들었지만 너무도 귀

한 편지라서 집에 와서도 읽고 또 읽었다. 바르고, 곧고, 우직한 진선이가 은진이 가족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준다면 진선이와 가족이 되어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다. 진선이는 편지를 보내신 이모님의 조카딸 김은진이와 2023년11월11일 결혼을 정하여놓고 모든 결혼준비를 하나하나 하고 있다. 양가 상견례 할 때에 은진이 부모님이 처음 만난 사람들 같지가 않았고 인자하고 화목한 가족 같아 좋았다. 은진이도 가끔 오면 나와 아내를 안아주고 정이 넘친다. 내가 좋아하는 견과류도 떨어지기 전에 사서 보낸다. 특히 은진이는 전기, 수도, 심지어치약도 다 쓰면 칼로 배를 갈라 조금 남아있는 치약을 끝까지 칫솔에 발라 쓰며 아끼고 절약한다니 마음이 예쁘다. 결혼 전 처음 인사 올 때에도 바지에 점퍼를 입고 까만 머리를 한 아가씨였다.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아가씨다. 그래서 더욱 나와 아내는 지금도 은진이를 좋아하니 결혼하여 한 식구가 되면 무척 행복할 것 같다. 진선이와 은진이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와 아내 또 우리 가족들이 일구어 놓은 모든 것들을 잘 지켜서 그들의 아들이며 나의 증손에게 물려 줄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놓인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수원에서 33년 동안 안경점을 경영하였다. 2023년3월쯤 아들에게 “엄마가 살림을 힘들어하니 이제 그만 안경점을 접고 어미가 살림을 맡아하면 어떠냐?”고 하며 생각해보라고 했다. 2012년 과수원을 조성한 후부터는 며느리가 기사를 두고 안경점을 운영하고, 아들은 과수원 일을 하지 못할 때 특히 비가 오는 날, 농한기, 기사가 쉬는 날은 안경점으로 출근 했다. 아들도 바쁘게 살지만 며느리는 명절에만 쉬고 1년 내내 일요일에도 출근하며 고생이 많았다. 아들과 며느리는 나의 뜻에 따라 6월30일로 33년을 지켜오던 사업장을 폐업하고, 며느리는 아들을 도와 과수원으로 출근하여 일을 도우며 점심 식사를 준비한다. 그래서 나와 아내는 점심은 과수원에서 식사를 한다. 진선이와 은진이가 수박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나에게 저희들 결혼식에 주례를 부탁한다. “지금은 결혼식에 주례가 없다면?” 하니 은진이는 “할아버지께서 주례를 서주시면 저희들에게 가장 큰 추억이 될뿐더러 저희들에게 주시는 덕담은 귀한 선물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하며 부탁을 한다. 나도 사랑하는 장손자 진선군 결혼식에 주례를 부탁받으니 싫지가 않고 한편 기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 어쩌면 내심 그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 은진이는 박수를 치며 감사하단다. 사실은 내가 더 고맙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진선이 결혼식에 나더러 주례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하니 아들은 “할아버지께서 주례서 주시면 좋지요. 그렇게 하여 주세요” 하며 “아버지 저는 축가 부르기로 했어요.” 한다. 나는 웃으며 “결혼식에 많이 다녀 보았지만 신랑 아버지는 축가 부르고 할아버지는 주례 서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것도 좋겠구나!” 하며 웃었다. “아범은 노래를 잘 하니 박수 많이 받을 거야.” 어쩌면 특수한 우리가정에 행복한 調和 라고도 생각이 든다. 지금껏 한 주례보다 우리 손자 주례는 멋지게 하여야 하는데 걱정도 된다.

8월19일(토)에는 진선이와 은진이가 야외에서 결혼기념 촬영한다고 아범이 “드레스 등 소품을 싣고 다니려면 큰 차가 필요한데 아버지 차를 빌려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며 부탁한다. “진선이가 내 차는 운행(운전)을 하여보지 않아서 괜찮겠니? 그렇게 하려면 아범이 차 기능도 알려주고 주행 연습도 시켜라. 그리고 보험도 가입하여 주고.” 아범은 “네, 염려마세요” 한다.

토요일 오후 8시가 넘어서 촬영을 모두 끝내고 집으로 왔다고, “할아버지 차는 모든 기능이 좋아서 무척 편 하였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화했다.

내 생일이 음력으로 7월6일이고 금년에는 양력으로 8월21일 월요일이라 직장 출근 때문에 전날 점심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고 큰아들이 지난주일

부터 이야기하였다.

일요일 11시쯤 작은아들 내외가 집으로 와서 아내와 내가 함께 식당으로 갔다. 진선이와 은진이도 와있다. 은진이는 “할아버지께서 좋은 차까지 배려해주셔서 편안하게 촬영 잘 끝내었습니다. 할아버지 차 아니면 중형택시를 하루 빌릴 뻔했어요. 고맙습니다.”고 한다. “하루 종일 사진을 찍었나?” 물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해 넘어갈 때까지 2000장은 찍었어요.”

“그렇게 많이?” “네.” “많이 힘들었겠다. 잘하고 왔다니 고맙다. 그리고 사과 수확하기 전에 부지런히 결혼 준비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 부부와 4남매 슬하에 외손까지 가족이 21명인데 은진이가 결혼하면 22명이다. 나는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 볼 때마다 4남매와 친손, 외손들이 착하고 성실하게 잘 성장하여 각자 주어진 일터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훌륭하게 역할을 하고 있으니 기쁘고 고맙다. 식사가 끝나니 용돈과 선물을 준다. 은진이도 선물을 주는데 결혼식에 하고 오라고 타이를 사왔다. 세월은 참으로 빠르다. 2022년 10월에 결혼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도 2023년11월11일 오후4시에 수원영통에 <더마레보 15층>으로 예약 할 때에는 언제쯤 결혼 날이 오나 했더니 세월은 빨라 이틀 후이면 잔칫날이다.

은진이는 넥타이를 또 사가지고 집에 와서 “먼저 것 보다 이 넥타이가 더 좋은 것 같아 샀어요. 저희들 결혼식에 이 타이를 매시고 오세요.” 한다. 나는 “고맙다. 하고 예식장에서는 없는 주례를 부담스러워 할 텐데 간단하게 덕담 겸 축사를 하면 어떨까?” 은진이는 좋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드디어 결혼일이다. 막내딸과 사위가 와서 나와 아내를 데리고 예식장으로 갔다. 내 순서가 되어 주례석으로 올라가서 “나는 신랑 차진선군과 신부 김은진양의 할아버지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여 주시기 위하여 공사다망하심에도 함께 하여주신 양가 친족과 친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과 땅이 화합하여 인연을 주고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 할 배필이 되기로 다짐하고 결혼하는 너희들은 정말 아름답고 내 가슴을 뛰게 한다. 그리고 너무너무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어 고맙다. 두 사람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행복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 바란다. 혹 살다가 다툼 일이 있어도 상처 되는 말은 하지 말고 빨리 화해해야 한다. 그렇게 살다보면 다투어 보아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성숙하여 가는 것이 결혼생활이고 우리들의 인생이란다.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이해하고 사랑으로 녹여 행복하고 보람된 날들을 만들어 가며 백년해로하길 응원하고 또 기원한다.

그리고 어른들과 조상님들을 성심껏 모시며 불로소득의 유혹을 과감히 부리치고 항상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하고, 남을 속이거나 아프게 하지 말고 항상 베풀고 나누며 너그럽게 살아야 한다. 나는 너희들의 땀을 식혀주는 그늘이 되어주마. 진심으로 너희들의 결혼을 축하하고 사랑한다. 은진이 부모님! 은진이를 훌륭히 키우시어 저희 가족으로 보내주시어 고맙습니다. 또 진선이를 착하고 성실하게 잘 키워 오늘 나에게 이토록 큰 기쁨을 주는 우리 효자아들과 며느리 고맙다. 하객여러분! 두 사람이 평생 사랑하며 아들, 딸 낳고 행복한 가정 이루며 백년해로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렁찬 박수소리가 끝나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축사를 마쳤다. 그리고 혼주인 신랑 아버지가 축가를 부른다. 가수보다도 율동과 노래를 더 잘한다. 양가 가족들과 하객들은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열광한다.

멋진 결혼식이다.

수많은 예식을 보았어도 신랑 아버지가 축가를 부르고 하객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는 것은 본적이 없다.

유명가수의 리사이틀(recital) 못지않게 열광과 환호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2. 세계 장수마을 생활탐색



명예회장 차 성 학

지구상에는 2021년 6월 7일 기준 78억 7천여 명이 살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그 중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지역 즉, 주민 10만 명당 100세 이상자가 30명 이상인 지역을 장수마을(블루존, Blue Zone)이라고 부른다. 이탈리아 의학 통계학자인 잔니 페스 박사에 의해 고안된 단어이다. ‘블루존’은 책, 다큐멘터리 등에서 다뤄지며 장수를 꿈꾸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인간은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 HEC 경영대학 레오 벨자일 조교수 연구팀이 실제 장수 사례의 수치 데이터를 분석해 “인간의 최대 수명은 130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

고, 이를 영국 더타임스가 2022년 1월 7일(현지시간)자로 보도하였다.

이 보도에 의하면 통상 50세 이상부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망위험도 같이 커지는데, 11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의 수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80세부터는 사망률 증가세가 완화되고 105~110세부터는 위험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110세 이후 장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벨자일 교수는 “특정 데이터 표본을 분석하면 인간의 수명에 한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며, “인간의 수명은 기존에 드러난 장수 사례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 특히 특별한 의료 기술 발달 없이도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인간의 사망·수명 전문가인 에일린 크리민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SC) 교수도 더 타임스에 “2100년 이전에 누군가 130세에 도달한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122세 이상 생존한 사람은 없다. 누군가가 130세를 살 수는 있다. 그러나 거기에 큰 의미는 없다. 사람이 많을수록 장수하는 사람이 나올 확률도 높다.”고 설명했다.

공인된 역대 최장수 기록은 122세다. 프랑스의 잔 루이즈 칼망 할머니가 1875년 출생해 1997년 마지막 숨을 거뒀다.

생존한 전 세계 최고령자는 일본의 다나카 가네 할머니로, 지난 2022년 1월 2일 현재 만 119세가 됐다.

여기서는 세계 장수마을 장수인 들의 생활방식과 환경을 탐색하여 100세 건강 시대에 적용할 만한 내용들을 간추려보고자 한다.

I. 세계 장수국가 순위

1. 건강 국가지수에 따른 2019년 순위

2019년 블룸버그 건강 국가 지수에 따르면 169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17위를 차지하였다. 건강 국가 지수는 기대 수명을 바탕으로 흡연, 비만, 수질오염, 위생시설 등을 고려해 나온 지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장수 국가의 상위권을 차지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지중해식 식단을 꼽았다. 올리브유와 견과류 등이 주요 심혈관 질환을 낮춰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미국의 순위가 낮은 이유로는 약물 과다, 자살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1위 스페인	6위 캐나다
2위 이탈리아(2017년에는 1위)	7위 호주
3위 아이슬란드	17위 한국(2017년에는 24위)
4위 일본	35위 미국
5위 스위스	

2. WHO 기준 국가별 평균수명 순위

1위 일본	7위 이탈리아
2위 스위스	8위 이스라엘
3위 싱가포르	9위 스웨덴
4위 호주	10위 프랑스
5위 스페인	11위 한국
6위 아이슬란드	12위 캐나다

3.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장수 노인수(2016년 조사)

순위	세계 국가명	장수노인 수	우리나라 시·군명	장수노인 수
1	프랑스	36	충북 괴산군	42.1
2	일본	20	경북 문경시	33.9
3	미국	18	전남 장성군	31.1
4	이탈리아	17	충남 서천군	31.0
5	호주	16	경남 남해군	29.0
6	캐나다	14	강원 양양군	28.5
7	뉴질랜드	12	충북 영동군	28.0
8	아이슬란드	10	전북 순창군	27.4
9	네덜란드	8	전남 곡성군	26.7
10	아일랜드	7		
	한국	6.6		

4. BBC가 선정한 세계 5대 장수 국가

(1) 스위스(Switzerland)

치즈와 유제품을 많이 먹기로 유명하다. 뛰어난 건강보험제도 역시 장수에 한 몫을 한다.

(2) 일본(Japan)

두부와 고구마 등의 음식을 즐겨 먹으며 소식을 하고 노인들의 커뮤니티가 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싱가포르(Singapore)

질 높은 건강보험제도가 장수의 주요 원동력이다. 특히 국민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심혈을 기울인다.

(4) 스페인(Spain)

올리브유, 견과류, 채소 위주의 식단과 시에스타(낮잠) 문화로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

(5) 대한민국(Korea)

기대수명이 90세를 넘어서는 세계 첫 국가가 될 전망이다. 발효식품이 많고 서구인들에 비해 낮은 혈압이 장수의 원인이다. 높은 수준의 건강보험제도 역시 빼놓을 수 없다.

II. 세계 장수마을 현황

1. 파키스탄 훈자 마을

훈자 마을은 인도 반도 북서부의 파키스탄령(領) 카슈미르인 길기트 발티스탄에 있으며,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의 국경사이에 위치한다. 6,000m 이상의 카라코람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에 위치하며, 고도 약 2440m의 고지대로 기후는 비교적 온화하고 건조하여 건강에 좋다. 경사지를 이용한 계단 경사지에서 감자, 밀, 옥수수, 야채, 살구, 사과, 체리 등을 재배한다. 주변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마을이다.

주도(主都)는 훈자(발티트)이고, 훈자 수장국(首長國)이었으나, 1947년 이후 파키스탄의 지배에 속하게 되었다.

훈자 지방을 세 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구는 모두 7,000명으로 조사 당시 인구 10만 명마다 100세 이상은 27.7명이었다. 여기서 147세까지 산 할머

니는 120세 때 머리칼이 다시 검어지고 이가 다시 나왔다고 한다. 이 마을 사람들은 암과 심장질환, 퇴행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 노인들은 평생 어떤 질병도 없이 살다가 평온하게 죽음을 맞는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언어인 브르샤스키어를 사용하며 외부와는 단절된 생활을 한다. 100세 이상의 사람들이 많고 평균 수명은 120세 정도이다. 40대 어른이 10대 같은 외모를 유지하며, 60대 노인이 출산하는 경우도 흔하다. 심지어 90대 여성이 아이를 낳는 일도 있다. 1984년 영국 런던의 한 공항에서 160세 노인 '사이드 압둘 모부트'가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160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체 외모, 언어, 걷는 모습 등이 아주 건강한 상태였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장수비결을 물로 꼽는다.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은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녹은 물이고, 바닥에 검은색 가루가 고일 정도로 광물질이 많이 녹아 있는 물이다. 그러나 이 물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 학자는 주민들의 장수비결이 소식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마을 사람들은 살구를 많이 먹고, 주식으로는 밀가루에서 가루를 빼고 남은 찌꺼기인 밀기울로 만든 빵과, 과일, 채소, 포도 과즙을 숙성시킨 음료를 먹는다. 섭취량은 일반 사람들의 1/3에 불과 하다. 실제로 이 학자가 쥐를 대상으로 나이가 많은 쥐에게 훈자마을 주식을 먹인 결과 단 한 마리의 쥐에게도 병변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했다. 그러나 일부 학자는 소식과 장수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학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장수비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훈자 마을은 외부와 단절된 자급자족의 사회이고,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없이 모두 즐겁게 생활한다.

또 다른 학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장수비결이라 주장한다.

훈자마을 외에도 파키스탄의 도시 라호르에는 기라니라는 장수노인이 살고 있다. 그의 나이는 1978년에 155세였다. 이 노인을 만나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얼굴에 주름도 많이 없고 85~86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듣는 장애는 약간 있지만 나이를 물어보면 곧 155세라고 대답한다고 하였다. 파키스탄 정부가 발행한 공민증(주민등록증)에는 이 노인이 <1823년 12월 23일 바하와르푸르에서 출생>이라고 쓰여 있다. 막내아들 아브다는 12세인데 같이 살고 있었으며 다섯 번째 아내인 아미나바비는 75세였다. 자식들 중 제일 만이는 러시아에 살고 있는데 나

이는 120세다. 기라리는 자기 아이는 9명, 손자는 21명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다.

2. 에콰도르 빌카밤바(Vilcabamba) 마을

남미 에콰도르의 빌카밤바(Vilcabamba) 마을은 에콰도르 남쪽 안데스 산맥의 조그마한 산간 마을로 해발 1500m ~ 1700m 고지에 위치하며, 연평균 기온이 18°C ~ 22°C, 습도 60% ~ 70%정도로 온화하고 상쾌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빌카밤바(Vilcabamba)란 말은 신이 내려준 초원이란 뜻으로 미국의 은퇴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를 바라는 마을이다.

빌카밤바의 인구 2,500명 중 100세 이상은 남자 11명, 여자 5명으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123세이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노인이 30명 정도다. 여자는 60세까지 해산하는 것이 보통이고 산모의 30%는 45세다. 145세까지 장수를 기록한 마을이다.

이곳 사람들은 흙바닥에 단순한 침대가 놓여 있는 주거 공간에서 주로 감자 옥수수 푸른 콩, 바나나와 옥수수를 삶아 만든 '레페'라는 스프를 즐겨 먹는다. 주식으로는 토란과 같은 감자류, 곡류, 두류와 채소이다. 최소량의 식사를 하고 농사를 짓고 있으나 휴일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휴식을 취한다. 이곳의 물은 마그네슘, 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하다.

빌카밤바(케추아어: Vilcabamba)는 '잉카의 잃어버린 도시'라는 이미지로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1539년부터 1572년까지 신잉카국의 수도였으며, 1572년에 신잉카국이 스페인 군대에 의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잉카 제국의 정통성을 이은 잉카인들의 마지막 수도였다. 빌카밤바는 약탈되고 버려진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갔다. 1911년 탐험가 하이럼 빙엄이 원주민들의 안내를 받아 빌카밤바의 유적을 다시 재발견하였으며, 1964년에 미국 탐험가 진 사보이가 이 유적을 빌카밤바의 흔적을 공식적으로 증명해냈다.

3. 그루지아(Georgia) 캅카스 마을

그루지아(Georgia) 캅카스 마을은 흑해에서 카스피해로 이어지는 캅카스 산맥의 4,000m 넘는 수많은 산들로 둘러싸인 세계 3대 장수 마을이다. 그루지아(Georgia)는 국가 전체의 면적이 스위스와 비슷하고, 인구는 약 530만 명의 작은 나라이다. 우리나라처럼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쪽으로는 흑해에서 카스피해로 이어지는 캅카스 산맥이 위치한다.

1978년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그루지야와 아제르바이잔에는 100세 이상 노인이 1,800명이나 된다. 1948년 아브하지야에서는 148세의 케바, 118세의 루카 시아리아가 지휘하는 <100세 합창단>이 조직되어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카프카스 사람들의 총애를 받는 가수 지라브도 100세 장수자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1936년 노력적기 훈장을, 1938년 레닌 훈장을 수여받았다. 90세가 넘어서도 운동을 계속 하였을 뿐 아니라 노래도 씩씩하게 불렀다. 그는 술 대신 젓산유(요구르트)를 즐겨 마셨다. 해발 1,005m 카프카스 산줄기의 바르자흐 촌에서 태어난 양치기 무솔리모프는 168세 까지 건강하게 산 보기 드문 장수자였다. 그는 100세 때 26세의 두 번째 아내와 결혼하였다.

건강한 전통 음식이 만든 장수마을 캡카스는 음식과 와인, 광천수맛이 뛰어나다. 와인의 발상지이며, '와인(wine)'이라는 단어도 그루지야 언어인 'gvino'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이러한 증거로 7,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루지야인들의 무덤 속에서 포도씨가 나왔다고 한다. 토종 포도의 품종이 500여 가지가 넘으며, 양질의 포도가 생산되어 그루지야산 와인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음식 역시 그루지야의 독특한 문화이다. 미각을 돋우는 독특한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그루지야에서도 서북부의 압하지야 자치국과 수도 트빌리시의 동북부에 장수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세계 제 1위 장수촌으로 유명한 압하지야는 인구 340만에 100세 이상 노인이 1978년 조사에서 3,100명이다.

유전학적으로 캡카스 장수인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트빌리시대학의 라지하르 교수는 "그루지야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고 주장한다. 장수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80%, 나머지 20%는 환경적인 요인이 좌우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캡카스 사람들은 축복 받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특히 혈액형이 중요한데, O형이 암에 걸릴 확률이 적으며, 그루지야인들은 대부분 O형이라고 한다.

또한 발효식품을 즐겨 먹는다. 캡카스 사람들이 '신이 내린 선물'로 여기는 발효식품은 '마츠오니'이다. 마츠오니는 설사나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유해한 세균의 발육을 억제하며 발암 물질 생성을 방지하는 대표적인 장수식품이다.

마츠오니는 염소, 양, 소의 우유를 발효시킨 음료로 이곳 사람들의 주요 동물성 단백질 및 칼슘의 공급원이다. 캡카스지역에서는 어느 가정이나 매일 마츠오니를 만들어 하루 1~2잔씩 마신다. 마츠오니의 맛은 약간 신맛이 나며 아주 맛이 있

다. “장이 튼튼해야 오래 산다.”는 말이 있다. 캅카스 사람들을 보면 그 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겨온 이 말의 중요성을 새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또한 캅카스인들의 식탁에는 샐러드가 빠지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오이, 토마토, 양파, 파, 마늘 등을 많이 먹으며 간식으로 과일도 많이 먹는다. 여름에는 살구, 체리, 복숭아, 가을에는 사과, 배, 감 등을 먹으며, 겨울에는 과일 주스와 건조시킨 과일과 견과류를 먹는다.

또 다른 장수요인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존경받으며 산다는 것이다. 가족 간의 유대 관계 역시 장수의 비결 중 하나였다.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 덕분에 노인들은 스트레스 없이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왔고 이를 통해 큰 자부심을 얻고 있었다.

캅카스는 장수마을로서의 환경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고 공기가 맑다. 마을에서는 ‘카즈베크’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맑은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날씨 또한 온화하여 여름철에도 날씨가 서늘하다.

특히 캅카스인들은 버스를 타거나 복잡한 곳에서 살지 않고 도시와는 고립되어 살아왔다. 그들은 산속에서 거의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만 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자신의 밭에 나가 일을 해야만 했다. 이 곳 사람들은 밭에 나가 일을 못하게 되면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한다.

노인들은 여가를 즐기며 살고, 큰 근심거리가 없는 것 같았다. 식사를 즐겁게 하며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으며 아침에는 와인을 한잔씩 마신다. 캅카스 장수노인들은 암에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고, 혈압도 정상이다. 안경을 쓴 노인들도 거의 없었으며, 청력도 정상이다. 노인들 중에는 살찐 사람들이 거의 없다.

4. 일본 오키나와(Okinawa) 오기미 마을

세계 제일의 장수 국가 일본에서 제 2의 하와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섬 오키나와는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가 약 55명에 이른다. 특히 오키나와 현 북쪽 해안가에 있는 오기미 마을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세계 최고 장수 마을로 인정받는 곳으로, 주민 3분의 1이 65세 이상이며 100세 이상 노인이 11명이나 된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일본에서 100세 이상 장수인이 1963년에는 153명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3만 명으로 늘어났다. 2019년에는 7만명을 돌파하였다.

오키나와 섬(沖繩島)은 동중국해와 태평양의 사이에 위치하는 난세이 제도 최대의 섬이자, 오키나와 현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이다. 면적은 1206.49 km²이고, 일본의 주요 4개 섬을 제외하고는 면적이 가장 넓은 섬이다. 오키나와 현의 45개의 시정촌 중 현청 소재지는 나하 시이다. 나하 시내에서 58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천천히 해안의 아름다운 모습을 즐기며 3시간 정도 달려가면 오기미 마을이 있다.

오기미 마을에는 오기미 노인 클럽 연합회에서 세운 비석이 있다. 이 비석에는 “80세인 당신은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 90세에 당신을 오라고 하면 100세까지 기다리라고 해라. 우리들은 점점 기운이 왕성하여 아이가 된다. 당신도 장수를 원하면 우리 마을에 와서 자연의 혜택과 장수의 비밀을 받아라. 우리 오기미 마을 노인들은 여기가 일본 제일의 장수촌임을 높이 선언하노라.”라고 적혀 있다. 또 다른 비에는 “70세에 어린이, 80세에 젊은이, 90세가 됐을 때 천국에서 당신을 부른다면 이렇게 말하라.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라고 적혀 있다.

오키나와 오기미 노인들의 건강 비결을 정리해 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 욕심 없는 편안한 삶, 밝은 표정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천혜의 환경’에 있다. 천정 바다와 숲에서 채취한 식재료로 음식을 해먹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땀 흘려 일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일본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지역인 오키나와 오기미 마을 사람들은 옛날부터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아왔다. 마을 노인들은 100세가 넘어가며 손에서 일을 놓지 않는다. 적게 먹고 많이 일하는 생활습관 덕분에 이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장수촌의 명성을 이어왔다.

특히 오기미 마을의 장수 비결은 밥상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비타민이 듬뿍 들어 있는 명약 ‘고야¹⁾와 적당한 육류 섭취가 건강에 도움을 준다. 직접 만든 ‘건강한 흑설탕’ 역시 장수 비결 중 하나다.

오키나와 장수인들의 식생활에서 첫 번째 특징은 콩을 많이 먹는다는 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콩으로 만든 음식을 많이 먹으나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 본토 사람들보다 1.5배나 더 많이 먹는다.

두 번째 특징은 생선과 해조류를 즐겨 먹는다. 오키나와 장수인들은 뼈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칼슘을 많이 섭취한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주는 것으로

1) 고야: 오키나와 방언으로 오이 비슷하게 생긴 여주(bitter melon), 오키나와 전통음식 고야참프르는 고야와 양파 두부 등 야채를 올리브유로 볶은 음식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된 생선을 많이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 중 하나이다.

세 번째 특징은 삶은 돼지고기를 일본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2.5배나 많이 먹는다. 네 번째 특징은 녹황색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다. 일본 본토에 비해 과일과 채소를 1.5배 이상 먹는다. 감귤도 많이 먹는다. 감귤나무는 오기미 지정 마을 나무이며, 감귤은 오기미 마을의 특산품이다. 고구마의 소비도 많은데, 고구마에는 유해물질을 흡착하여 배설시키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과식을 하지 않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으면서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먹는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장수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느냐하는 식생활과 어떻게 활동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생활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5. 그리스의 이카리아(Icaria) 섬

이카리아(Icaria)라고도 불리는 이카리아(Icaria)는 사모스(Samos)에서 남서쪽으로 10마일, 터키 서해안에서 48km 떨어진 256km²의 작은 섬으로서 에게해(Aegean Sea)의 그리스 섬이다.

미국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고향에서 임종하러 돌아온 60대 말기암 환자가 '100세 장수'를 누리게 된 '기적의 섬'이다. 2000년부터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지원을 받아 세계의 장수 지역을 연구 중인 『블루존: 세계 장수마을』의 저자 댄 뷰트너가 찾은 곳이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새롭게 떠오른 장수촌으로 그리스 이카리아섬을 소개했다. IHT에 따르면 1976년 10명의 의사로부터 “폐암으로 9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은 이카리아섬 출신 미국인 스타마티스 모라이티스는 그 해 고향으로 돌아와 ‘이카리아식’으로 살기 시작하였다. 연간 1500L의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를 일구고 집도 손수 개축했다. 자정까지 동네 친구들과 도미노 게임도 즐겼다. 그가 87세가 되어서 “어떻게 암이 나았는지 설명을 들으러 미국에 갔더니 말기 폐암 진단을 한 의사 10명이 다 죽고 없더라.”고 말했다.

뷰트너와 이탈리아·벨기에·그리스 연구진은 이카리아섬의 90세 이상 노인 비율이 미국의 2.5배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미국의 경우 8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지만, 이카리아섬 노인들의 진술이 아니라 군입대 기록

등 공식 문서를 통해 나이를 확인했다. 장수촌 노인들은 자신의 나이를 정확하게 모르거나 장수촌으로 알려진 뒤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나이를 올려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인구 1만 명이 사는 이카리아섬에서 1999년 90세가 넘는 인구는 164명이었다. 연구진은 이들을 추적해 75명이 2012년 현재 아직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카리아섬 사람들은 잠꾸러기다. 늦게까지 이웃과 춤추며 어울리다가 잠을 자며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난다. 오전 11시 이전엔 일을 하지 않는 곳이 많다. 낮잠은 필수. 온 마을이 고요해질 정도다.

시계도 안 차고 다닌다. 점심 초대를 하면 손님이 오전 10시에 올지 오후 6시에 올지 알기 어려울 정도다. 이카리아섬에서 불과 15km떨어진 사모스섬과도 완전히 다른 생활방식이다. 사모스섬에는 호화리조트나 100만 유로(약 15억원)가 넘는 고급 주택도 있다. 이카리아섬 사람들은 “우리는 사모스섬 사람처럼 돈을 중시하지 않는다.”며 “축제 때 음식과 와인을 사느라 돈을 다 쓰고 그러고도 남으면 가난한 이들에게 준다. 이카리아는 ‘내 섬’이 아니라 ‘우리 섬’”이라고 말한다.

“그리스어엔 ‘사생활’이란 표현이 없다.”며 이웃 사정도 시시콜콜 알고 지낸다. 옆집 아이도 서슴없이 꾸짖는 등 모두 참견쟁이다. 섬주민 모두가 감시자 역할을 하는 셈이니 범죄율도 낮다. 사교적이지 않은 성격이라고 이카리아섬에선 외로울 일이 없다. 이웃들이 축제 때면 “염소 고기 드세요.” 하며 불러내기 때문이다. 소속감과 안정감이 높기 때문에 우울증과 치매에 걸리는 경우도 드물다.

실업률이 40%나 되지만 채소며 과일, 가축을 손수 기르기 때문에 식탁에는 신선한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다. 올리브 오일과 채소를 듬뿍 섭취하고 염소 젖 외에는 유제품과 고기를 거의 안 먹는 전형적인 지중해식 건강 식단이다. 하지만 식단 자체보다는 대화를 즐기면서 여유 있게 먹는 식사 습관에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있다고 한다. 와인을 적당히 마시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건강 습관이다.

6. 우리나라 장수촌

2022년 3월 8일 기준 한국 현존 최장수 노인은 부산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123세 할머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부산 지역 유권자 292만 21명 중 최고령 유권자는 부산 기장군에 사는 1899년생 박

모 할머니다. 박 할머니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도 부산 지역 유권자 중 최고령이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산 사람은 프랑스의 잔 루이즈 칼망여사로 1875년에 출생하여 1997년 사망, 122년 164일을 사셨다. 기네스 세계 기록 공인 가장 오랜 산 여성이다.

한국은 전북 무안, 전남 담양, 곡성, 구례, 순창, 경남 남해, 제주 산간마을 등이 장수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경제사회국(DESA)이 2013년 6월 13일 발표한 '2012 세계인구 전망' 보고서에 한국이 2045~2050년에는 평균 기대수명이 88.4세까지 늘어나 홍콩에 이어 2위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2095-2100년에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95.5세로 홍콩과 일본을 모두 제치고 세계 최장수국에 등극한다는 전망이다. 일본은 수년째 장수국(83세)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2045-2050년에는 홍콩에 밀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희망이 있는 편이다. 한국은 전국 어디서나 깊은 골과 맑은 물이 넘치는 산이 있고 반도 전체가 바다에 둘러싸여 있을 뿐 아니라 계절풍과 대체로 고른 연중강수량에 따른 청량한 공기와 적절한 일조량 등 자연조건에서 장수국이 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2011년 평균 기대수명은 81세로 아직 장수국 순위 17위에 그치고 있다. 한국이 세계1위 장수국이 되려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80세가 넘는 노인 비율이 3% 이상인 이른바 장수마을이 2021년 7월 현재 전국에 87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시도별 고령자 거주마을을 조사한 결과 전체 주민 749명 가운데 80살이 넘는 주민이 82명인 인천시 강화군 온수리 등 모두 87곳이 장수마을로 나타났다.

이들 장수마을은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에 26개로 가장 많았고 경북 13개, 경기 11개, 전북, 충북 등의 순이었습니다.

Ⅲ. 장수비결

1. 세계 장수마을에서 찾은 식생활 10가지 비결

인간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100세가 넘는 장수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 한다. 일본 교토의 대 야모리 교수와 WHO의 협력으로 10년간 세계 25개국 5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생활에는 공통점이 있다.

- ① 소금을 적게 먹는다.
- ② 동물성 지방은 적당히 먹는다.
- ③ 채소나 과일은 많이 먹는다.
- ④ 우유, 치즈, 요구르트를 먹는다.
- ⑤ 질 좋은 단백질을 먹는다.
- ⑥ 편식하지 않고 여러 음식을 균형 있게 먹는다.
- ⑦ 음식 속 영양 성분을 알고, 몸에 좋은 식사법을 배운다.
- ⑧ 알맞은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한다.
- ⑨ 가족, 사회와의 연계를 소중히 하고 함께 식사한다.
- ⑩ 사소한 일에 구애 받지 말고 명랑하고 즐겁게 생활한다.

<참조: 건강한 삶을 위한 장수보감>

2. 장수자들의 공통점

- ① 항상 열심히 살았다.
- ② 모든 일에 편견을 두지 않았다.
- ③ 식사는 가볍게 균형 있는 음식을 먹었다.
- ④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다.
- 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멀리하며,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았다.
- ⑥ 올바른 신념을 갖고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졌다.
- ⑦ 몸을 항상 청결히 하여 충분한 휴식을 하였다.
- ⑧ 질투와 노여움, 증오감 없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였다.

3. 뿌리 찾기, 종친은 무슨 파(派)세요?



서울대 명예교수, 문헌위원장 차 배 근

벌써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차씨’라는 젊은이를 만난 적이 있었다. 우리 차씨는 동성동본인데다가 종친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아서 종씨를 무척 반가워합니다. 좀 오래된 통계이지만 2000년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차씨 성을 가진 사람은 모두 180,589명으로, 39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반색을 하면서 그 젊은이에게 “나도 차씨”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종씨는 무슨 파예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대답은 나를 무척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차씨면 됐지, 고리타분하게 파는 왜 따지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파벌정치,’ ‘파벌사회,’ ‘사색당파’(四色黨派) 등등에 식상한 그가 ‘파(派)’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부화가 치밀었던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젊은 종씨에게 물었던 ‘파’는 ‘나쁜 파’가 아니라, 우리 연안 차씨의 뿌리를 찾아보는데 중요한 열쇠의 하나가 되는 ‘좋은 파’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 종친들을 위하여 성씨의 ‘파’에 관하여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편의상 존칭과 존댓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나의 뿌리를 찾아보기 위한 다섯 가지 기본질문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고 하듯이 조상 없는 자손은 없다. 그러므로 어떤 집안의 자손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뿌리’가 어떤지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기 조상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거나 알아야 하는데, 이를 흔히들 ‘뿌리 찾기’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뿌리를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성씨가 무엇인가

첫째로는 성씨(姓氏)가 무엇인지를 알거나 물어봐야 한다. 성씨란 어떤 사람이 어떤 혈통에 속하는지를 나타내거나, 동일한 혈통을 잇는 거래붙이의 칭호이다. 다시 말해서, 성씨란 일정한 인물을 시조(始祖)로 하여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단족(單族) 혈맹 집단의 한 명칭이다. 그러

므로 이러한 성씨를 알면 그 사람의 큰 뿌리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일찍 기원전 2,852년에 씨족의 성을 세습적으로 사용할 것을 법령으로 포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성을 기원 후에야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가령 예수님을 보아도 성이 없고, 이름만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이름 앞에 출생지를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서기전 57년경인 신라 초기부터 성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때 우리 가문도 ‘차’(車)씨라는 성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신라를 세울 때 큰 공(功)을 세워서 시중(侍中)이라는 벼슬에 오른 ‘무일’(無一)이라는 우리 조상님에게 박혁거세 임금님이 공훈(功勳)으로서 ‘차씨’라는 성(姓)을 하사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가문이 ‘차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문은 차무일 조상님을 득성시조(得姓始祖)로 모시는데, ‘득성시조’란 ‘성씨’를 처음 얻은 조상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 차씨의 뿌리는 ‘차무일’ 조상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본관(本貫)은 어디인가

둘째로,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뿌리를 찾아보려면, 성씨 다음으로는 본관을 알아보거나 물어봐야 한다. 가령 어떤 사람이 ‘김씨’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디 김씨인가?” 또는 “본관이 어디입니까?”라고 물어봐야 한다. 2000년도 통계청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4천6백만 명인데, 그중에서 김씨가 무려 9백92만 명이나 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김씨’라는 성씨만 알고서는 그 뿌리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김씨 중에서 본관(本貫)이 어딘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다.

본관이란 간단히 말해서 시조의 출신지나 거주지 또는 식읍(食邑) 즉 예전에 국가에서 왕족이나 공신들에게 내려 주어 조세를 받아쓰게 한 지역의 지명을 말한다. 김씨 중에는 본관이 ‘김해’인 사람의 가장 많은데, 이들이 본관을 ‘김해’라고 부르는 것은, 이들의 시조인 가야 김수로왕의 출신지가 김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차씨의 본관이 ‘연안’이 된 것은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고려의 창업에 큰 공을 세우신 차효전(車孝全) 조상님을 개국정사일등공신(開國定社一等功臣)으로 책록하고, ‘대광지백’(大匡之伯)이라는 벼슬을 내려 주시면서 황해도 연안을 식읍으로 내려 주셔서, ‘연안’이 우리 차씨 가문의 본관이 되었다. 이러한 본관을 차효전 조상님이 처음 얻으셨기 때문에 그를 ‘득관조’(得貫祖)라고 부른다.

다른 성씨 중에는 본관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 차씨는 본관이 ‘연안’으로 하나밖에 없는데, 이처럼 동족으로서 성과 본관이 같은 것을 ‘동성동본’(同姓同本)이라고 부른다. 그 반면, 성은 같으나 본관은 다르면서 시조를 같이하는 경우를 ‘동성이본’(同姓異本)이라고 부

른다. 예를 들어, 경주김씨, 광산김씨, 강릉김씨 등은 본관은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김알지(金閼智)에 연원을 두고 있으므로 동족으로 보고 있다.

(3) 파(派)는 무슨 파인가

셋째로 자신의 뿌리를 자세히 알려면, 성씨의 파(派)도 따져봐야 한다. 왜냐하면 같은 성과 본관을 가진 '동성동본'의 연안차씨도 다시 모두 8개의 파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파'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는 득관 시조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번창하는 과정에서 큰 인물, 즉 높은 벼슬을 했거나 저명한 학자가 나오면 그 인물의 직계후손들이 그 할아버지를 내세워 독자적인 파를 만들거나 또는 이들을 다른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처럼 동성동본에서, 높은 벼슬을 하거나 학자로서 널리 이름을 남긴 조상을 기점으로 새로 갈라져 나온 혈족의 한 갈래를 '파'라고 부른다.

이처럼 만든 성씨의 파가 우리 연안차씨 문중에도 모두 8개가 되는데, 이들은 곧 문학공파(文學公派), 전서공파(典書公派), 월파옹파(月波翁派), 상장군공파(上將軍公派), 송림백공파(松林伯公派), 문절공파(文節公派), 강렬공파(剛烈公派), 오산공파(五山公派)이다. 그러면 이들 8개의 분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에 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4) 득성시조, 득관조 또는 파조의 몇 세 손(孫)인가

넷째로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면 자기가 시조로부터 몇 세(世) 자손인지를 알아보거나, 알아야 한다. 여기서 '세'란 자기 성씨의 시조(始祖)를 1세로 했을 때 그로부터 몇 번째 세대의 자손이냐를 말한다. 이러한 '세'는 '대'(代)와 구별되는데, 시조를 1세로 하여 차례로 내려가는 것은 '세'라고 하는 반면, 자기로부터 차례로 올라가는 것은 '대'라고 한다. 그러므로 가령 부자(父子)의 사이가 '세'로는 2세이지만, '대'로는 1대가 된다. 따라서 조상을 말할 때는 예컨대 '13대 조(祖)'라고 부르며, 그의 자손을 말할 때는 '14세 손(孫)'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연안차씨 몇 세손이냐"고 누가 묻거나 또는 "나는 연안차씨 몇 세손이다"라고 대답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있다. 첫째로는 득성시조 차무일 조상님을 기준으로 득성시조 몇 세손이라고 말하면 된다. 둘째로는 득관조 차효전 조상님(1세)를 기준으로 해서, 예컨대 "득관조 44세 손"이라고 말하면 된다. 하지만 셋째로 파조(派祖) 즉 각파의 시조를 기준으로 가령 '전서공파 25세 손'이라고 말해도 좋다.

(5) 항렬은 어찌 되며 돌림자는 무엇인가

다섯째로 자신의 뿌리를 찾거나 알려면 항렬(行列)도 알아야 한다. 항렬이란 같은 혈족 사이에 세계(世系)의 위치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름자 중에서 한 글자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같은 혈족에 같은 세대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흔히 ‘돌림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종씨가 서로 만나면 “항렬이 무슨 글자이나?”고 물어보면, 세대(世代) 관계, 예컨대 상대방이 할아버지뻘이 되는 조항(祖行) 관계인지, 아저씨뻘이 되는 숙항(叔行) 관계인지, 형제와 같은 동항(同行) 관계인지, 아니면 조카뻘이 되는 질항(姪行) 관계인지, 또는 손자뻘이 되는 손항(孫行) 관계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상대방의 항렬이 자기보다 더 높으면, 비록 나이는 더 어리더라도 존댓말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연안차씨는 고려 말기에 처음으로 네 파로 나누어져

위에서는 우리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뿌리를 찾아보거나 알아보기 위한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질문들에 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다. 이들 다섯 가지를 알아보거나 물어보면 대체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뿌리를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부터는 세 번째 질문에 관계된 연안차씨의 분파(分派)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이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종친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씨에서 파(派)란 무엇이며, 파는 도대체 왜 어떻게 나누어지며, 우리 연안차씨에는 어떤 파들이 있으며, 각파의 파조(派祖)는 어떤 분들이셨나?

(1) 연안차씨의 파는 언제 어떻게 나뉘지기 시작했나

성씨에서 ‘파’란, 위에서 말했듯이 동본의 성씨에서 어떤 훌륭한 조상님을 분기점으로 해서 갈라져 나온 갈래를 말한다. 그러면 이러한 파는 왜 생기는가? 그 까닭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가장 흔한 이유는, 득관 시조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번창하는 과정에서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 가령 높은 벼슬을 했거나 저명한 학자가 나오면 그 인물의 후예들이 그 할아버지를 자랑하고 기리고 본받기 위하여 “우리는 아무개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부르다가 보니 자연히 파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나 가문을 크게 일으킨 ‘중흥조’(中興祖)를 그 후예들이 추존하기 위하여 그의 성명이나 아호(雅號) 또는 관직 등의 이름을 따서 파를 만들기도 한다. 이밖에도 파가 생기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연안차씨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 연안차씨도 훌륭한 조상님들을 사랑하고 기리고 본받기 위하여 그 후예들이 파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각파의 조상님, 즉 파조(派祖)는 모두 자랑스러운 훌륭한 분이셨기 때문이다. 우리 연안차씨에서 파가 처음 생긴 것은 고려 공민왕 때인 연안차씨 득관조 19세부터였는데, 18대 손인 차포온(車蒲溫) 공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들은 수동(壽童), 명동(命童), 종로(宗老), 안로(安老)였는데, 이들 네 명의 친형제를 각각 분기점으로 하여 4개의 파, 즉 문학공파(文學公派), 전서공파(典書公派), 월파옹파(月波翁派), 상장군공파(上將軍公派)가 동시에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4명의 친형제를 각각 파조(派祖)로 해서 4개의 파가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차씨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네 명의 친형제를 각각 파조로 삼는 4개의 파가 처음 생기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문헌에서 찾지 못해서 필자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혹시 당시에 각 성씨가 파를 나누는 경향이 있어 우리 차씨도 그랬거나, 아니면 포온공이 그의 네 아들에게 각각 파를 만들어서 번창하면서 잘 살아가도록 일렀거나, 또는 네 명의 아들이 자발적으로 각각 파를 나누어 가문을 빛내자고 합의했기 때문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각 형제의 자손들이 서로 다투어서 파를 만든 것은 혹시 아니었을까 하고 막연히 추측해 본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포온공의 네 아들은 모두 훌륭한 인물로서 자랑할 만하니까, 이들을 파조로 해서 각각 파를 만들었으며, 이러한 연안차씨의 분파는 고려 시대 후기인 연안차씨 득관조 19세부터 처음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들 4개 분파의 파조가 된 네 분은 각각 어떤 인물이었는가? 이들 네 분의 파조에 관하여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이들을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신 아버지인 포온공에 관해서 우선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기로 하자.

(2) 4개 분파 파조(派祖)의 부친도 훌륭한 인물

포온공은 연안차씨 득관조 연안군(차효전)의 18세손으로 고려의 도총제장군(都總制將軍) 차득규(車得珪)의 장남이다. 고려 공민왕이 세자일 때, 그는 중국 원(元)나라 수도 연경(燕京: 북경)에 볼모로 가 있었다. 그때 포온공은 공민왕(세자)을 따라가서 수종(隨從: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함)하였다.

그러다가 공민왕이 귀국해서 1352년 임금이 되자, 그는 자기를 연경에서 수종한 공으로 포온공에게 ‘연저수종공신록일등훈’(燕邸隨從功臣錄一等勳)이라는 훈작을 내렸다. 그리고 사복시판서(司僕寺判書)라는 정3품 벼슬을 주었다. 이렇게 해서 벼슬살이를 시작하게 된 포온공은 곧 군부판서(軍簿判書)가 되었다.

그 뒤 포온공은 공민왕 3년(1354)에 용산군(龍山君)에 봉해졌는데, 이는 왕의 서자, 종친, 공

신(功臣) 등에게 내리던 작위의 하나였다. 같은 해 공은 사신으로 원나라에 갔다가 원나라 황제(元帝)가 고려 공민왕에게 하사하는 옷과 술을 가지고 돌아온 뒤 밀직부사(密直副使)가 되었는데, 이는 고려 시대에 왕명(王命)의 출납(出納), 궁궐의 경호, 군사 기밀(軍事機密)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의 종2품 벼슬이었다.

공민왕 5년(1356)에 포은공은 지도첨의(知都僉議)로서 다시 사신이 되어 원나라에 다녀왔다. 그리고 이듬해인 공민왕 6년(1357) 동경유수(東京留守)가 되었으며, 그 뒤 동중서좌평장사(同中書左平章事)가 되었다. 그리고 돌아가신 뒤(사망연월일은 미상)에 나라에서 문목공(文穆公)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으셨는데, 이는 왕과 왕비를 비롯해 벼슬한 사람이나 학덕이 높은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의 행적에 따라 국왕으로부터 받은 이름의 하나였다. 바로 이처럼 훌륭한 문목공은 4남 3녀를 낳으셔서 모두 훌륭하게 길러서 4남은 모두 연안차씨 4개 파의 파조가 되었다. 그러면 이들 네 분은 각각 어떤 인물이었는가?

연안차씨 본래 네 파의 각 파조는 모두 본받을 인물

네 분의 파조는 모두 훌륭한 인물로서, 우리 후손들이 존경하고, 자랑하고, 본받아야 할 위대한 분들이셨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면 관계로 중요한 것들만 간단히 소개해 보기로 하겠으니, 자세한 것은 다른 문헌들을 찾아보기 바란다.

(1) 문학공파조 차수동은 정당문학이라는 종2품 벼슬에 올라

첫째로 문학공파의 파조가 된 문목공의 장남 차수동(車壽童)은 고려 공민왕 때 ‘정당문학’(政堂文學)이라는 벼슬을 하셨다. 이는 고려 시대에 최고의 정무기관(政務機關)이었던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2품 관직으로서 정원은 1인이고 품계는 종2품이었는데, 이러한 정당문학은 중서문하성의 재신(宰臣)으로서 국정을 논의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나 충렬왕 1년(1275) 몽골의 내정간섭에 따라 당시 고려의 관제를 격하 개편할 때, 종래의 정당문학을 참문학사(參文學事)로 고쳐 불렀다. 그러나 충선왕 때 그 명칭이 다시 정당문학으로 복구되어 조선 초까지 명칭과 기능이 그대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수동공의 관직 이름을 따서, 그를 ‘문학공’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의 직계 후손들을 문학공파(文學公派)라고 일컫게 됨으로서 수동 공은 문학공파의 파조가 되었다.

위와 같이 문학공은 고려에서는 높은 벼슬을 했다. 그러나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우자, 문학공은 이성계를 임금으로 모시지 않는 ‘불사이군’(不事二君 : 한 사람이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의 충절을 지켰다. 사단법인 고려숭의회(高麗崇義會)에서 1994년 간

행한 『여말충의열전』(麗末忠義列傳)이라는 책을 보면,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자 차수동은 조선의 신복(臣僕 : 임금을 섬기며 벼슬하는 사람)이 될 것을 거부하고, 조운흘(趙云弘) 장하(張夏) 김광서(金光叙) 이중인(李中仁) 임득충(林得忠) 염저(廉訥)등과 더불어 팔판사동(八判寺洞)에 은거하며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사수하였다고 한다.

그 후 문학공은 성거산(聖居山)으로 들어가 분신자살을 모의했으나, 자손의 만류로 실패하였다. 그 뒤 공은 포은(圃隱) 정몽주의 동생 정과(鄭過)와 더불어 팔판사(八判寺) 근처에 은거하며 망국의 신하로 충절을 온전히 하였다. 그러나 조선조 태조 7년(1398) 우리 차문이 '4열(四孽)의 화(禍)를 당할 때 공의 사적(事蹟)이 모두 실전(失傳 : 묘지, 고적 등 전해 내려오던 것이 중도에 없어짐)되어 공에 관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2) 전서공파조 차명동은 조선 시대 판서와 같은 관직에 올라

둘째로 전서공파(典書公派)의 파조가 되신 차명동(車命童) 공은 앞서 말했듯이 연안차씨 득성조 연안군 차효전의 18세 손인 차포온의 둘째 아들이시다. 『연안차씨전서공숙천파보』(延安車氏典書公肅川派譜)라는 파보(派譜)를 보면, 명동공에 대하여 “초휘(初諱: 돌아가신 어른의 처음 이름)는 ‘수해’(壽孩)이며, 벼슬은 고려 전서(典書)였는데, 남주(南州)로 유배되었다”고만 간단히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보면, 차명동 조상님은 고려 시대에 ‘전서’라는 벼슬을 하셨으며, 그래서 그의 자손을 ‘전서공파’라고 호칭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전서’라는 벼슬은 어떤 관직이었던가?

전서는 고려 후기에 정3품 벼슬로서 조선 시대의 판서(判書)와 같은 것이었다. 고려 충렬왕이 1308년에 죽고,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기존의 전리사(典理司)·군부사(軍簿司)·판도사(版圖司)·전법사(典法司) 등 4사를 선부(選部)·민부(民部)·언부(讞部) 등의 3부로 고쳤다. 그러면서 종래의 4사(司)의 으뜸 벼슬은 상서(尙書)라고 불렀던 것을, 새로 고친 3부의 수장은 ‘전서’로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충숙왕 14년(1327)에 3부를 다시 4사로 복구할 때 전서를 판서(判書)로 고쳤다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전서로 고쳤다가 공민왕 11년(1362)에 4사를 6사로 늘리면서 다시 판서로 개칭했다.

그 뒤 공민왕 18년(1369) 종래의 6사를 6부(部)로 개편하면서 각 부의 수장을 상서로 개칭했다가 공양왕 1년(1389)에 6부를 6조(曹)로 고치면서 그 수장을 다시 판서로 개칭했다. 이처럼 ‘전서’라는 벼슬은 그 명칭이 여러 번 바뀌었다. 그러나 고려 시대의 전서는 중앙 정부의 정3품 벼슬로서 조선 시대에 6조의 각 수장인 ‘판서’와 같은 것이었다.

위에서 말했듯이 『연안차씨전서공숙천파보』를 보면, 전서공(차명동)은 “남주(南州)로 유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조 태조 7년(1398) 사열(四孽)의 화(禍)를 입어서 남주(南

州)로 유배를 가게 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남주’는 특별한 고장의 지명이 아니라, 남쪽을 말한 것 같다. 따라서 어느 곳으로 유배 가셨는지도 알 수 없다. 그 결과, 공(公)의 사적(事蹟)과 묘가 실전(失傳)되어, 유배 이후 공에 관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연안차씨전서공숙천파보』를 공의 후손들이 평안남도 속천을 비롯하여 강원도 영월, 경상북도 봉화, 충청남도 부여, 전라남도 순천 등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월파옹파조 차종로는 벼슬하다 그만두고 강호에서 자연 벗삼아

셋째로 월파옹파(月波翁派)의 파조는 앞서 말했듯이 차종로(車宗老)인데, 『연안차씨전서공숙천파보』를 보면, 공은 포온공(蒲溫公)의 셋째 아들로, “호(號)는 월파옹(月波翁)이며, 고려의 지방어(知防禦)라는 벼슬을 지낸 뒤 강호(江湖)에서 지냈다. 묘(墓)는 본래 양주(揚州) 망우리(忘憂里) 양원촌(養源村) 봉황산(鳳凰山) 곤좌(坤坐)에 있었으나, 그 부근이 개발됨에 따라 1972년 2월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長安洞) 월운산(月雲山) 인좌(寅坐)로 면례(緬禮)하였다. 첫 번째 배부인(配夫人)은 파평 윤씨로 1남 승부(崇頤)을 낳았다. 두 번째 배부인(配夫人) 안동 김씨는 그의 부친이 제안(齊安)이며, 아들 송질(崇質)과 딸 1명을 낳았는데, 딸은 도길부(都吉敷)에게 시집을 갔다. 세 번째 배부인(配夫人) 능성(綾城) 구씨(具氏)는 그의 아버지가 문하좌시중(門下左侍中)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이며, 그의 조부는 판서 영검(榮儉)이며, 그의 증조부는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집안의 세 번째 배부인 구씨는 4명의 아들 즉 원부(原頤), 원명(原命), 견질(堅質), 견명(堅命)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은 안정(安定)에 시집을 갔다. 따라서 이를 보면 종로공(월파옹)은 장가를 세 번 가서 모두 6명의 아들과 딸 2명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원석(原碩)이라는 서자(庶子)와 서녀도 각각 한 명씩 있었다.

한편 종로공은 고려 시대에 지방어사(知防禦使)라는 벼슬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벼슬인지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아마도 고려 시대에 서해도(西海道 : 지금의 황해도 일대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와 양계(兩界 : 지금 함경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인 동계와 평안도 지역인 북계의 합칭)의 방어책임자 겸 지방관이었던 방어사(防禦使)였던 것 같은데, 이런 벼슬을 종로공은 고려 충선왕(1309~1313) 때 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공은 충숙왕 8년(1331)에 벼슬을 그만두시고 전라도 여천(麗川)의 소용당(巢龍塘)이라는 곳으로 퇴거(退居)하시어 호를 월파옹(月波翁)이라고 짓고 강호(江湖)에서 자연을 벗 삼아 지내셨다. 공의 아호에서 ‘월파’(月波)란 ‘달그림자가 비치는 물결’이라는 뜻이고, ‘옹’(翁)은 ‘늙은이 옹’자이나, 일반적으로는 남자 노인을 높여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공의 후손을 ‘월파옹파’라고 부르게 되었다.

위와 같이 고려 충숙왕 8년(1331)에 벼슬을 그만두시고 전라도 여천(麗川)으로 퇴거하시어

‘월파옹’이라고는 아호를 짓고, 여천에서 자연을 벗 삼아 지내시던 공은 고려 충목왕 3년(丁亥, 1347) 다시 고려의 수도 송경(松京)으로 돌아오셨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차문(車門)이 ‘사열지화’(四孽之禍)를 당할 때 공은 경기도 양주(楊州)로 이거하셨다가 이곳에서 별세하셨던 것 같다.

(4) 상장군공파조 차안로는 고려 중앙군 총사령관 역임

넷째로 상장군공파(上將軍公派)의 파조가 된 차안로(車安老)는 차포온 공의 넷째 아들인데, 상기 『연안차씨전서공숙천파보』에는 “고려 상장군(上將軍), 배부인(配夫人) 흥주(興州) 안씨(安氏), 부(父) 상장군 휴(休)”라고만 간단히 기록되어 있다. 이에서도 보듯이 안로공은 고려 시대에 ‘상장군’(上將軍)이라는 벼슬을 하셨는데, 상장군은 고려 중앙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품계는 정3품이었으나, 무반(武班)으로는 최고의 품계였다. 그러므로 고려 시대의 상장군은 요즘으로 말하면 5성 장군 급이며 원수(元帥) 계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안로공은 대단히 높은 ‘상장군’이라는 벼슬을 하셨기 때문에 그의 직계 후손들을 ‘상장군공파’로 일컫게 되었다.

상장군 안로 공은 부인(夫人) 흥주(興州) 안씨(安氏)와의 사이에 2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두었는데, 큰아들 의남(倚南)은 고려별관어사(高麗別官御使)를 역임했으며, 작은아들 지남(指南)은 고려총제(高麗摠制) 벼슬을 했다. 그러나 조선 초기 우리 차문(車門)이 ‘사열지화’(四孽之禍)를 당할 때, 공은 어찌되었는지 그 행적을 알 수 없다. 하지만 공의 둘째 아들 지남이 남쪽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별세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안로공도 남쪽으로 피난 갔다고 그곳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되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득관조 17세 손 차덕규를 파조로 한 송림백공파도 생겨나

연안차씨의 분파는 고려 후기에 위와 같은 네 분(연안군 19세)을 파조로 해서 처음에는 4개 파로 갈라졌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 위와 같은 4개 분파 이외에 또 하나의 파가 있었다. 그것은 연안군 차효전의 17세 손인 차덕규(車德珪)를 파조로 한 송림백공파(松林伯公派)인데, 이 파가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는 그에 관한 기록을 찾지 못해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4개 파 파조들은 모두 연안군 차효전의 18세 손인 데 비하여 송림백공파의 파조 차덕규 공은 17세 손이다. 그러니까 그는 위에서 살펴본 네 개 파의 파조인 문학공(수동), 전서공(명동), 월파옹(종로), 상군공(안로)의 작은 할아버지로서 항렬이 두 단계나 높다. 그러므로 이것만을 가지고, 송림백공파가 위의 4개 파보다 먼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의 4개 파보다 시기적으로 뒤늦게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때문에 송림백공파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4개 파 이외에 송림백공파도 나왔음은 확실하므로 연안차씨의 분파는 모두 다섯 개가 되었다. 그렇다면 송림백공파의 파조 차덕규는 어떤 인물이며, 그의 파는 왜 송림백공파라고 부르는가?

필자가 가지고 있는 『연안차씨전서공숙천파보』에서 차덕규 공을 찾아보면, 차씨의 특성조 차효전의 16세 손 차송우(松祐)의 2남으로 “고려중랑장(高麗中郎將), 송림백(松林伯), 광주병마사(廣州兵馬使), 배부인(配夫人) 안동권씨(安東權氏), 부석(父碩)”이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생졸년(生卒年)도 나와 있지 않아 차덕규 공에 관한 것은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상기 족보를 보면, 공은 고려 시대에 중랑장(中郎將)이라는 벼슬을 거쳐, 광주병마사(廣州兵馬使)를 지내셨는데, 중랑장이란 고려 시대의 정5품 무관직으로 중앙군에서는 장군 다음가는 계급으로 장군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와 같이 공은 송림백(松林伯)에 봉해졌던 것 같은데, 이에서 ‘백’(伯)은 나라에 공이 있는 인물의 신분을 높여주기 위한 명예의 칭호였다. 그리고 송림(松林)은 현재 경기도 장단 지역의 옛 지명인데, 이곳을 공은 백작의 작위와 함께 식읍으로 받았기 때문에 ‘송림백’이라고 불렀던 것 같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공을 내세워 ‘송림백공파’라는 독자적 파를 만들게 되었거나 또는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됨으로써, 공은 연안차씨 분파의 또 하나인 송림백공파의 파조가 되었다.

조선조 초기에 월파옹파로부터 문절공파의 파생

위와 같이 되어 고려 시대 말까지는 연안차씨에는 다섯 파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조에 들어와서 3개의 파가 더 생겨서 모두 8개로 늘어나게 되어 아직까지 8개 파로 유지되고 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처음 생긴 파는 문절공파(文節公派)이며, 그 파조는 연안군 20세 차원부(車原頻)인데, 우선 이 조상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부터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공은 앞서 말한 월파옹파조 차종로의 셋째 아들로 고려 충숙왕 7년(1320)에 태어났다. 자(字)는 사평(思平)이고, 호는 운암(雲巖)이다. 공은 고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한 이후 벼슬이 간의대부(諫議大夫)에 까지 이르렀는데, 간의대부는 고려 문하성(門下省)의 정4품 관직으로서 임금의 신변에서 임금의 잘못을 고치도록 간언하고, 정치에 관하여 의논하는 업무를 맡아보는 벼슬이었다.

한편 공은 당대의 대학자인 정몽주(鄭夢周), 이색(李穡) 등과 같은 유학자로 성리학(性理學)을 깊이 연구하여 대가(大家)가 되었다. 또한 공은 그림도 잘 그렸는데, 특히 사군자(四君子)

중에서 매화(梅花)를 잘 그렸다고 한다. 그러나 고려 말 정치가 문란하여지자 공은 관직을 사퇴한 뒤 황해도 평산(平山)의 수운암동(水雲巖洞)에 은거하였다. 그러면서 공은 우리 차씨와 류(柳)씨의 역사를 정돈(整頓)하여 차류족보(車柳族譜)를 간행(刊行)해서 그 보판(譜板)을 해주(海州) 신광사(神光寺)에 보관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족보(族譜)의 효시(嚆矢)로 알려졌다.

고려 고종 31년(1894)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개국하여 태조가 되자, 그 이전에 요동(遼東)을 치러가다가 위화도에서 회군할 때 공이 조언해 준 공로로 공을 공신으로 책록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공이 굳이 거절했다. 이어서 태조가 공에게 제안한 정언(正言), 판전농사사(判典農寺事) 등의 벼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조선의 개국공신들인 정도전(鄭道傳)·하륜(河崙)·조영규(趙英圭)·함부림(咸傅霖)이 공을 조선 개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공을 모략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이들 4인이 우리 연안차씨 서속(庶屬)이었음을 공이 앞서 말한 차류족보에 사실대로 기재해 놓은 것에 원한을 품어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공이 이성계의 부름을 받고 개성에 갔다가 평산(平山)으로 돌아오시다가 송원(松原)에 이르렀을 때, 하륜 등이 보낸 자객들이 공을 포함하여 그를 마중 나왔던 70여 명의 가족과 친척들을 살해했다. 그리고 하륜은 신광사에 보관 중이던 차류족보의 보판(譜板)도 불살라 버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도전, 하륜 등은 우리 차씨들을 죽이거나 유배를 보냄으로써 차씨 문중은 ‘멸족지화’(滅族之禍)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를 ‘사열지화’(四孽之禍)라고 부른다.

이처럼 공과 그의 친족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태종 임금은 잘못을 뉘우치고 공에게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 종1품) 벼슬을 내리고, ‘문절’(文節)이라는 시호(諡號)도 내렸다. 그래서 공을 ‘문절공’(文節公)이라고 부르고, 그의 후손들을 ‘문절공파’라고 부르게 됨으로서, 새로운 분파가 또 하나 생기면서 공은 이 문절공파의 파조가 되었다.

그 뒤, 세종 때 황보인(皇甫仁)의 청원으로 공의 억울함이 신원(伸冤)되면서 세종은 공에게 또 의정부좌찬성문하시중(議政府左贊成門下侍中)이라는 벼슬을 추증(追贈)했는데, ‘추증’이란 나라에 공로가 있는 벼슬아치에게 죽은 뒤에 벼슬의 품계를 높여서 다시 벼슬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세종은 또한 왕명으로 성삼문(成三問)에게 ‘차원부의 설원(雪冤)’에 대하여 글을 짓도록 했다. 그것이 조선 정조 때 이극익(이극익(李肯翊), 1736~1806) 지은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이라는 역사책 제3권 세종조고사본말(世宗祖故事本末)에 2수의 시로 전해지고 있다.

월파옹파에서 문절공파와는 별도로 후에 강렬공파도 분파돼

조선 시대로 들어와서 두 번째로 생긴 파는 강렬공파(剛烈公派)인데, 이 파에 관하여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이 파의 파조 강렬공 차운혁(車雲革) 공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공은 고려 시대에 찬성(贊成) 벼슬을 지낸 차견질(車堅質)과 밀직(密直) 벼슬을 지낸 김의지(金義之)의 따님 청풍김씨(淸風金氏) 사이에서 조선 태조 2년(1393년)에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공은 방금 위에서 말한 문절공의 조카였는데 공의 자(字)는 홍기(弘器)이며 호는 송암(松庵) 또는 쌍청당(雙淸堂)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고려 말 성리학의 대가(大家)이었던 공의 숙부 차원부와 그 친족들이 하륜 등에 의해 살해되는 ‘사열지화’(四孽之禍)를 당하자, 공(운혁)은 아버지를 따라 고향인 연안을 떠나서 함경도 길주, 회령 등지를 전전하며 유배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세종 때 문절공 차원부의 억울함이 밝혀져 신원(伸冤)이 되자, 공(운혁)도 유배에서 풀려난 뒤 은거 생활을 하였다.

그 뒤 세조 2년(1458) 공은 함경도에서 상경하여 어모장군(禦侮將軍), 총좌위좌부사직겸사복장(忠佐衛左部司直兼司僕將), 정북선봉대장(征北先鋒大將)을 역임했다. 세조 13년(1467) 함경도 길주에서 이시애(李施愛)가 그의 동생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자, 공은 선봉대장이 되어 함경도로 가서 동년 4월 25일 함경도 이원(利原)의 적진에 들어가서 이시애의 동생 시합(施合)과 시백(時白)을 사로잡아서 본영으로 보냈다. 그러자 이시애가 병사 3천여 명을 이끌고 공격해 왔다. 이에 공은 선봉에 서서 마운령(磨雲嶺)에서 적을 막았다. 그러나 당시 관군의 부장(副將)이었던 최윤손(崔潤孫)이 반역하여 관군의 작전계획을 적군에 누설(漏泄)시킴으로써 공은 적에게 사로잡혀 단천옥(端川獄)에서 순절(殉節)하셨는데, 그때 공의 연세는 75세였다.

약 4개월 만에 이시애의 난이 평정되자, 세조는 종사관(從使官)을 보내어 차운혁 등의 시신을 거두어 예장(禮葬)하고 제문(祭文)을 지어 치제(致祭)하고 만고충절(萬古忠節)을 기리게 하였다. 그리고 이시애의 난에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충절을 다한 공훈으로 공을 정충적개삼등공신(精忠敵愾三等功臣)으로 책록하고, 가정대부(嘉靖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추증(追贈)하고 연천군(延川君)에 봉(封)하여 인각벽상(麟閣壁上)에 도형(圖形)을 하고 패록(牌錄)을 내렸다.

그 뒤 중종 1년(1506) 신용개(申用溉)가 편찬한 『삼강행실도』(三剛行實圖)의 충신편(忠臣篇)에 입속(入續)하여 충신표상(忠臣表象)으로 기록하고 연천군의 토적도(討賊圖)를 그려 어제시(御製詩) 2(首)와 함께 수록했다. 순조 27년(1827)에는 공을 자헌대부(資憲大夫), 호조판서(戶曹判書)로 가증(加贈)했다. 그리고 헌종 7년(1841년) 임금이 공에게 ‘강렬’(剛烈)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그래서 공을 ‘강렬공’으로 부르게 되어서 그의 후손들이 강렬공파가 되었다.

고종 13년(1876) 조정에서는 공에게 충신정려문(忠臣旌閭門)도 내려서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쾌랑리에 그 문을 세웠다. 공의 묘는 이시에 난의 평정 이후, 개성으로 운구하다가 상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그 근처인 함경남도 정평군 남문산면 윤봉리 비석동의 해좌(亥坐)에 모시었다. 그러나 공보다 2년 먼저 서거하신 배(配) 정부인(貞夫人) 광산(光山) 김(金)씨는 경기도 양주(楊州) 도봉산(道峰山) 신좌(申坐)에 장례 지냈다가 1985년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석포리(石浦里) 구선봉(龜仙峰) 신좌(申坐)로 면례(緘禮)하였다.

조선 선조 때 문절공파에서 오산공파도 갈라져 나와

연안차씨의 8개 분파 중에서 마지막의 오산공파(五山公派)는 조선 선조 때 문절공파에서 파생(派生)하게 되었다. 이 파의 파조는 차천로(車天輅)인데, 공은 조선조 명종 11년(1556) 경기도 송도(松都 : 개성의 옛 이름)에서 아버지 차식(車軾)과 어머니 이씨(李繼天의 딸) 사이에서 문절공 차원부의 8세손으로 태어나셨다. 자(字)는 복원(復元), 호(號)는 오산(五山)이었다. 그래서 공을 오산공(五山公)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그의 후손들은 오산공파로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오산공은 선조 10년(1577) 알성문과(調聖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개성교수(開城教授)를 지내다가, 선조 16년(1583) 다시 문과중시(文科重試)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정자(正字: 정9품)라는 벼슬을 하였다. 그러나 선조 19년(1586) 고향 사람인 여계선(呂繼先)에게 표문(表文)을 지어 주어 장원급제시킨 일이 발각되어 공은 함경도 명천으로 유배되었지만 문재(文才)가 있다는 이유로 선조 21년(1588)에 풀려났다. 그리고 그해 일본통신사 황윤길(黃允吉)을 따라 일본에 다녀왔는데, 그때 공이 일본에 머문 기간은 그리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무려 4,000~5,000수의 시를 지어서 일본인들을 놀라게 하였다고 한다.

그 뒤로 오산공은 명나라에 보내는 외교문서의 대부분을 작성하여, 그의 문명(文名)이 명나라에 까지 떨쳤다. 특히 공은 임진왜란(1592-1598) 때, 명나라 도독(都督) 이여송(李如松)이 우리나라를 도와서 평양성을 다시 찾은 승전 공적을 찬양하는 노포문(露布文)을 지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명나라까지 놀라게 하여 ‘동방문사’(東方文士)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 뒤, 오산공은 봉상시판관(奉常寺判官)을 거쳐 선조 34년(1601) 교리(教理)가 되어 교정청(校正廳)의 관직을 겸임했고, 광해군 때는 봉상시첨정(奉常寺僉正)이라는 벼슬을 지냈다. 그는 특히 한시(漢詩)와 서예에 능하여, 한호(韓濩 : 한석봉)의 글씨와, 최립(崔嵬)의 문장과 함께 ‘송도삼절’(松都三絶)로 일컬어졌다. 또한 오산공은 그의 할아버지인 교관공(教官公) 차광운(車廣運), 그의 아버지인 평해군수(平海郡守) 차식(車軾), 그의 형제들인 차은로(車殷輅), 차운로(車雲輅)와 함께 ‘삼부자(三父子) 오문장(五文章)’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오산공은 광해군 때 봉상시첨정(奉常寺僉正)이라는 벼슬을 하면서 왕비 류(柳)씨의 폐비에 대한 반대 상소를 임금에게 올렸다가 탄핵을 받아 벼슬에서 물러나 익산의 웅포(熊浦)에 은거하면서 ‘강촌별곡’(江村別曲), ‘강호별곡’(江湖別曲) 등 많은 가사(歌辭)를 지었다. 저서로는 『오산집』(五山集), 『오산설림』(五山說林) 등이 있다. 이들 중 『오산집』은 오산공의 사후(광해군 7년, 1615년 사망)인 정조 15년(1791) 왕명으로 평안감사 홍양호(洪良浩)가 호남에서 오산공의 후손이 간직하고 있던 유고들을 찾아서 간행한 것으로 8권 4책(목활자본)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오산공은 대단히 훌륭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특별히 기리고 자랑하기 위해 그의 후손들을 오산공파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안차씨는 크게 모두 8대 파가 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8대 파에서 또 각각 작은 파로 나누기도 하는데, 예컨대, 오산공의 부친 차식(車軾)공의 후손들은 차식공의 아호인 ‘이재’(頤齋)를 따서 이재공파(頤齋公派)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차식공의 넷째 아들이자 오산공(차식공의 셋째 아들임)의 첫째 아우인 차운로(車雲輅)공의 후손들은 운로공의 아호인 창주(滄洲)를 따서 창주(滄洲公派)라고 호칭하며, 오산공의 둘째 아우 차하로(車夏輅)의 후손들은 하로공의 아호가 초은(初隱)이라 초은공파(初隱公派)라고 일컬으며, 오산공의 셋째 아우인 차제로(帝輅)의 후손들은 제로공의 아호가 지현(芝軒)인지라 지현공파(芝軒公派)라고 부르고 있다.

맺음말 : 뿌리를 알고 훌륭한 선조를 본받아야

지금까지 이상에서 우리 연안차씨의 8대 파(派)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파(派)란 앞서 말했듯이 어떤 조상의 후손들이 번창하는 과정에서 큰 인물, 즉 높은 벼슬을 했거나 저명한 학자나 문인이 나오면 그 인물을 기리고 자랑하고 본받기 위하여 그 인물을 내세워 그 후손들이 만들거나 또는 자연적으로 생긴 동본 성씨의 갈래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파는 조상의 뿌리를 찾는 데도 중요한 열쇠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파의 파조가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알고, 그의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긍지를 갖고 그를 본받아 열심히 살아가도록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 연안차씨도 문중에서 나온 위대한 조상님들 자랑하고 기리고 본받기 위하여 그 조상님들 중에서도 특히 훌륭한 조상님의 관직이나 시호, 작위, 아호(雅號)를 내세워 지금까지 모두 여덟 개의 파를 만들었는데, 이들 파의 명칭만 보아도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조상님들이 많이 나오셨는지를 알 수 있다. 이는 8개 파의 파조만 보더라도 얼른 알 수 있는데, 그중에는 나라에서 시호나 작위를 받은 분이 세 분(문절공, 강렬공, 송림백공), 높은 벼슬을 하신 분

이 세 분(문학공, 전서공, 상장군공), 그리고 글로써 이름을 떨친 문인이 두 분(월파옹, 오산공)이나 된다. 그러나 자기의 파만 너무 내세우지 말고 우리 연안차씨의 모든 종친들은 분파에 관계없이 서로 상부상조하며 항상 돈독하게 살아가야 할 줄 안다.

4. 억겁을 뛰어넘어 우리가 된 인연



대구경북사무국장 차 봉 섭

눈 깜짝할 사이를 ‘찰나(刹那)’라고 하고, 손가락 한번 튀기는 시간을 ‘탄지(彈指)’라고 하며, 숨 한번 쉬는 시간을 ‘순식간(瞬息間)’ 이라고 한다. 반면에 ‘겁(劫)’이란 헤아릴 수조차 없이 긴 시간을 일컫는 말이다. 힌두교에서는 43억 2천만년을 ‘한 겁’이라고 한단다.

지붕의 낙수 물이 집 한 채만한 바위를 뚫는 시간을 ‘한 겁’이라고 하며, 잠자리가 날개 짓을 해서 바윗돌이 닳아 없어지게 하는 시간 또한 ‘한 겁’이라고 한다. 참으로 대단한 시간이다. 상상조차 불가능한 시간이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겁(劫)의 인연으로 맺었는데 500겁의 인연이 있어야 옷깃을 스칠 수 있고, 2천겁의 세월이 지나야 사람과 사람이 하루 동안 동행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5천겁의 인연이 있어야 이웃으로 태어날 수 있고, 6천겁이 넘는 인연이 되어야 하룻밤을 같이 잘 수 있게 되고, 억겁의 세월을 넘어서야 평생을 함께 살 수 있다고 한다. 참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내 주위에서 스쳐 지나가는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것이 스쳐가는 정도의 짧은 인연이라도 그들은 최소한 1천겁 이상을 뛰어넘는 인연으로 만난 귀한 존재들이다. 더구나 우리는 지붕의 낙수 물이 집채만 한 바위를 1억 번이나 뚫는 엄청난 세월의 비움을 뚫고 같은 연안차문(延安車門)에서 태어났다.

이 소중한 귀한 인연으로 태어나 살아가지만 매일 공짜로 공기가 있어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흠이 있어 덮고 쉴 수 있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우리들의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重要)하고 소중한(所重)한 인연으로 맺어졌으며,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 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게 내 몸을 움직이고, 숨을 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남을 미워하고, 질투, 시기하며 항상 내가 우선이고 내가 잘나고, 제일인 것처럼 반성 없이 살아가고 있거나 않는지....

직장에 처음 입사할 때는 적은 보수도, 낮은 직책도, 부족한 근무환경도 개의치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고마움을 느끼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고마운 것들은 당연한 것이 되고, 더 잘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들이 쌓이기 시작하고, 부모님만 찾던 아이도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시 하거나 귀찮게 여기다가 결국 돌아가신 뒤에야 후회하게 된다. 내심장이 10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뛰어 주리라는 보장은 없다. 내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 후회하지 않게, 인연이란 이름으로 만난 모든 이에게 온몸과 마음을 다해 더욱더 사랑하고 감사함을 느끼며 특히, 역겹을 뛰어넘어 우리 연안차문(延安車門)이 된 인연과 조상(祖上)님들께 거듭,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5. 토리



중앙회 자문위원, 수필가 차 영 자

울산 쇠부리 소리에 나오는 흥굴레더 흥굴레더 흥굴레더, 어허 불매야….

흥굴레는 흥시 색깔의 잘 익은 숯불을 일컫는 말로, 제련 현장의 뜻이 담긴 울산의 소리이다. 이것은 쇠부리터 일꾼들의 노동요가 일반에 퍼져 마을에서 구전되어 내려왔다.

일꾼들이 내는 흥얼거리는 소리는 곧 민요에 속한다. 민요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 가사가 조금씩 달라진다. 문자나 악보로 전해지지 않고 구전으로만 전해진 것이 대부분이다. 지방 고유의 말을 문자화한 것이다 보니,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같은 말이라도 그 지방의 억양에 따라 다른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소리와 민요도 마찬가지다. 사투리의 민요 가사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흥굴레더 흥굴레더’ 라는 윙는 소리는 울산의 달천철장 근동에 철을 녹이기 위한 석축형 제철로에서 그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불매꾼이 내는 소리다. 불매는 풀무의 방언이다. 제철로에 철광석을 넣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송풍기를 밟아 불씨를 지켰던 사람을 불매꾼이라 부른다.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힘든 노동을 이겨내기 위해 그들이 불렀던 소리가 울산쇠부리소리인데, 이것이 토리이다.

토리 중에 메나리토리가 있다. 메나리는 논매는 소리를 말한다. 이 토리는 한반도 동부 지역인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어법이다. 그 외에도 경 토리, 서도 토리, 육자배기 토리, 제주도 토리 등이 있다. 민요 음들의 기능, 음이 움직이는 방식, 발성법, 장식음 모두 포괄해서 순수한 우리말로 ‘토리’라고 한다. 우리말이 높낮이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듯 민요도 그것이 불리던 지역의 특성이 담긴 소리가 바로 토리이다.

어릴 적 고향 마을에서 들었던 상엿소리나 모내기 소리도 토리다. 그중 상엿소리는 상여 앞에서 선소리로 망자의 명복을 빌면서 이별의 슬픔을 사설했던 것으로

로 생각된다. 상주를 비롯한 유가족들을 달래는 그 소리가 바로 토리였다. 사실을 선소리꾼이 먼저 부르고, 상여꾼들이 후렴을 하곤 했다. 시조창을 좋아하셨던 아버지는 마을에 상이 나면, 꽃상여 앞에서 소리를 하셨다. 상여꾼은 아버지의 그 앞소리를 받아서 “어하~ 넘차, 어하~~ 넘~” 소리를 하셨는데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한 마을에 오랜 정을 나누며 살다가 떠나가는 망자의 생전추억을 계면조로 부르면, 상주들의 곡소리는 더 커졌다. 망자가 탄 꽃상여가 북망산천을 올라가는 그 슬픈 현장에서 앞소리 하는 그 모습을 그 당시엔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지금 생각해 보니, 상여 앞에서의 앞소리인 만가¹⁾(輓歌)를 불렀던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당신이 망자나 상주를 위로코자 땀 흘리며 하셨던 선한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든다. 앞소리였던 만가, 장례 의식 중 하나였고 우리 고유의 문화의 토리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울산쇠부리 소리에는 쇠부리 불매소리, 쇠부리 금줄소리, 애기 어루는 불매소리, 성냥간 불매 소리, 쇠부리 난장 소리가 있다. 그 중 쇠부리터 인근 마을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일을 나간 부모를 대신해 할머니가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불러주던 자장가 토리가 있었다. 울산의 쇠부리 소리에 자장가가 들어있다는 것, 노동과 아이 돌보기를 같이했던 어른들의 지혜가 담긴 소리가 울산의 토리이다.

울산박물관에서 우연히 토리와 울산민요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다. 지역별 토리와 울산민요 알아보기 시간이었다. 민요 속 토리에 관하여 알아보고 노래를 직접 불러보기도 했다. 그 후 자신 있는 사람은 앞에 나와 불러보라 했지만, 선뜻 나서지는 이가 없었다. 그러자 강사님이 교육생 한 명을 지정해 강당 앞에 세워 민요를 부르게 했다. 몇 분이 앞서 민요를 불렀고, 이어서 나도 강사의 손에 이끌려 강당 앞으로 나가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긴장된 마음에 민요는 곧 개성을 가진 토리라는 생각으로 많은 교육생 앞에서 몽금포타령을 불렀다. 몇 소절을 부르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내 몸이 박자를 맞추느라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내 박자대로 엉터리로 민요를 불렀지만, 강사님이 사비로 준비해온 국악기 소금(小筍)을 선물로 받았다.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거려진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아버지에게 물려 받은 유전자가 인지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끼를 물려받아 소리에 반응한 것인지 몸치인 내가 반응을 한 것이다. 신명 난 토리에 춤사위가 더해지고 한바탕 희열을 느끼게 된다. 박물관 강좌가 서민들이 생활 속 지혜를 느낄 수 있

는 민요 속 지역별 토리를 새롭게 인식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한국국학진흥원 근대기록문화조사원.

1)각주: 한고조(漢高祖)가 아직 즉위(即位)하기 전의 일이다. 제왕(齊王) 전횡(田橫)은 한(漢)나라 장수(將帥) 한신(韓信)에게 급습을 당해, 그 분풀이로 한의 사신(使臣) 역이기(酈食其)를 삶아 죽이고 도망(逃亡)쳐 버렸다. 고조(高祖)는 나중에 전횡(田橫)이 난을 일으킬까 염려(念慮)하여 그의 죄를 용서(容恕)하고 불렀으나 한왕(漢王)을 섬기는 것이 부끄럽다 하여 목을 찢어 죽고 말았다. 후에 전횡(田橫)의 문인(門人)이 해로, 호리(蒿里) 두 장의 상가(喪歌)를 지었는데, 전횡(田橫)의 죽음을 애도(哀悼)하며 슬피 노래했다. 「上朝露何易晞(상조로하역희) 부추 위의 이슬은 쉬이 마르도다. 露晞明朝更復落(로희명조갱복락) 이슬은 말라도 내일 아침 다시 내리지만, 人死一去何時歸(인사일거하시귀) 사람은 죽어 한번 가면 언제 다시 돌아오나. 露蒿里誰家地(노호리수가지) 聚斂魂魄無賢愚(취렴혼백무현우) 호리는 뉘집 터이고, 혼백 거둘 땐 현우가 없네. 鬼伯一何相催促(귀백일하상최촉) 人命不得少(인명불득소) 귀백은 어찌 그리 재촉하는고, 인명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못하네.」 후에 한무제(漢武帝)가 악부(樂府)의 일을 맡은 이연년(李延年)으로 하여금 이 노래를 장례 때에 부르게 하니 사람들이 후에 이를 만가(輓歌)라 했다.

6. 숭고한 인체미술의 변천



전 배재대학교수, 중앙회문헌위원 차 상 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아름다운 인체는 오스트리아 니더외스터 라이히주 빌덴도르프 근교의 구석기시대 지층에서 고고학자 요제프 촘바티가 발견한 11.1cm 키의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여인 조각상이 있다.

이는 22,000~24,0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고고학계에서 보고되었다. 「빌덴도르프의 비너스 상」<사진1>이란 이름의 석상은 늘어진 큰 가슴과 풍부하게 발달된 엉덩이와 강조된 음부와 망으로 덮힌 두상부위를 두고 다산의 상징인 주술적 숭배대상, 풍요의 여신 등으로 추측된다. 모양으로 볼 때 입상이지만

서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몸에 지니는 부적(치장)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 연구가 진행 중이나 여인상이라는 점이 미술계에서는 미적기준으로 태동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대상을 타인에게서 찾으려 하고, 이를 시각화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욕구는 인체조각을 통해서 영원의 대상이나, 우상의 존재로 표현되어 왔다.



〈사진1〉

마제석기부터 오늘날 디지털 시대까지 오랜 세월동안 만들어졌던 인체조각의 변화를 시대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려한다.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는 그리스·로마시대에서 인간의 욕망이 가장 뚜렷하게 표현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요한 요아힘 빙켈만(1717~1768년 독일/ 미술사학, 고고학자)는 딱딱하고, 엄격한 <고대의 양식>, 엄격함과 숭고함 그리고 이성의 <숭고의 양식>, 완벽한 비례와 자연스러움 그리고 감성과 우미의 <아름다운양식>, 모방에 치중, 과한장식, 본질보다 현상을 중시하는 <모방자의 양식>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만물의 척도가 인간이라 믿었으며, 경험을 통해 인체를 탐구하는 일이 인류가 알고자 했던 궁극적이며 영원한 것에 대한 본질을 확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즉 민주주의의 발생지인 그리스에서의 철학적인 물음의 시작이나 예술 행위의 시작은 모두 인간에게 그 원형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원형은 인체 속에 있는 심상(心象)적인 것에 근거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도 육체를 이상향에 가깝게 닮아가려는 인간의 욕망, 즉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완벽한 신(神)적인 육체처럼 이상향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인간이 정신적으로 갈망하는 욕구의 표출, 하지만 이루어 질 수 없는 소망을 육체를 통해 완성하고자 하였으며 인간의 뿌리 깊이 내재된 이상을 인체 조각에 표현 요소로 도입시켜 왔다.

인체에 대한 신비로움의 귀결은 꽃이라 여기는 르네상스 시대의 일반적이지만 고전 고대의 회귀(回歸), 즉 부활이라는 인문사회학계의 정설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체조각이 엄격하고 이상적인 표현은 그리스 시대부터 라는 것은 의심 할 여지가 없다.

그리스 고전주의에서 헬레니즘으로의 전환은 기원전 4세기에 일어났다. 조각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평범한 사람, 여성, 어린이, 동물 및 가정의 풍경은 부유한 가족이 집과 정원을 장식하도록 의뢰한 조각품의 주제가 되었다. 모든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의 사실적인 초상화가 제작되면서 조각가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아름다움과 육체적 완벽함의 이상적으로 묘사할 의무를 느끼지 않았다.

비록 많은 조각상이 유실되거나 로마인들의 점령으로 거의 없어지고, 그리스 조각이라 명명된 것은 로마가 제국을 건설하면서 복제한 것으로 진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복제품이라 디테일하지 않으나 유럽의 많은 미술관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볼 수 있기에 그나마 다행이다.

지중해를 점령한 거대한 초기로마제국시대 인체조각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사후 세계와 연계된 존재에서 건물의 장식, 때로는 이상적인 미의 기준(그리스 고전주의)으로 표현되었으며, 권력자나 특권계층의 전유물로 치부되었다.

초상화 및 조각은 중기이후 로마 조각의 주요 장르였으며, 아마도 가족과 조상(祖像)에 대한 전통은 로마 제국에서 성장했을 것이다. 엘리트 로마 저택의 입구 홀(아트리움)에는 조상의 흉상조각이 전시되어 있다. 로마 공화정 시대에는 신체적 결점을 숨기지 않는 것, 특히 남성을 강하고 변명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 성격의 표시로 여겨졌다. 공화정 제국시대에 로마 황제의 보다 이상적인 이미지는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표현 되었다. 적당히 부유한 중산층의 묘비에도 가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고인의 초상조각이 새겨져 있다.

그림자의 제국에서는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산 사람이 계속 기억한다면 영원히 사는 것과 다름없다고 그리스 로마인들은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무덤을 만들고 무덤 옆에 커다란 조각상을 두었다. 유골함과 석관에도 글과 이미지를 새겨 죽은 이를 기억하려고 했던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헬레니즘기가 끝난 후부터 5세기까지 로마인들은 그리스 문화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고 거기에 라틴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유럽의 고전문화를 완성시켰다.

로마의 초상조각은 영웅이나 전설의 인물보다 평범한 사람을 주제로 하여 얼굴의 주름살과 흉터까지도 묘사하는 사실주의적인 성격을 보여주었고, 이야기 식 서술방식 이 모든 예술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부조(浮彫)와 회화에서는 대기, 공간 의 깊이, 원근법 등을 통해 3차원적으로 묘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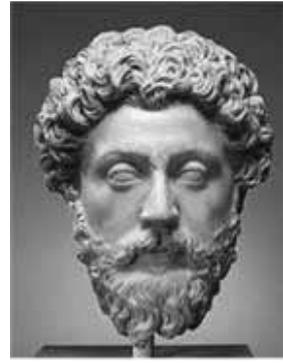
로마인들은 원시사회에서 전해 내려온 장례관습에 따라 밀랍이나 테라코타로 선조의 조각상이나 데드마스크< 사진2>는 (조상들이 사후를 위해 사람이 죽은 직후 밀납이나 석고로 본떠서 만든 안면 상)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2세기 중반에 들어와 후기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 개성적이고 사실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가문의 권세와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조상들의 흉상을 들고 있는 한 귀족이 그예(<사진3>) 이다.



<사진2>



<사진3>



<사진4>

1세기경에는 장례에 쓰던 사실적인 초상조각이 하나의 예술양식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리석·돌·청동 등을 재료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두상이나 흉상조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2세기 후반부터 장례관습이 화장에서 매장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석관 조각이 등장했던 것이다. 안토니우스 시대의 초상조각상 중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사진4>의 청동기마상과 콤모두스 황제의 대리석 흉상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조각상들은 높이 올려진 머리카락과 수염의 굴곡이 심하게 조각되어있어 잔잔한 얼굴 표정과 대조를 이루면서 불안정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당시의 공공조각으로는 콤모두스 황제가 부친의 업적을 기려 만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원주가 있는데, 이 원주를 양식적인 면에서 이전의 트라야누스기념주와 비교해보면 2세기 로마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초상조각은 건축구조와 같은 형태로 해야 한다는 개념이 자리 잡았고, 그리스 로마의 자연주의적인 묘사는 신성하고 초월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양식으로 바뀌었다.

중세 시대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승인하게 된다.

이로 인해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어긋나는 조각상은 다양한 이유로 철거되거나 제작이 금지되어 왔다. 누드 조각상을 포함한 인체의 감각적 매력을 지닌 형상은 사악하다는 이유로 파괴의 대상이 되었다.

기독교사상은 종교의식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적 배경에 따라 예술작품의 주제와 형태가 점차 종교화되었으며 이는 고전 조각에 대한 부정으로 확산되어 1000년 동안 침체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는 곧 도래할 인간성의 회복(回復)과 근대 미술 표현을 꿈틀거리게 하는 동기를 이루게 된다.

15-16세기 르네상스는 부활, 재생을 뜻하며 14세기 말부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적 번영을 꿈꾸며 시작되었다.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배경은, 귀족계급과 부자계급 사이의 구분이 없어졌으며, 이탈리아가 서유럽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고대 로마시대의 유적이 산재하였으며, 도시의 자부심과 사유재산제가 잘 발달되어 예술에 대한 후원이 많았다는 것이다.

중세 봉건영주, 귀족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권리와 능력을 자각한 시민계급의 등장은 현실세계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낳았고, 이는 중세를 지배하던 신중심의 시선을 인간중심으로 옮겨 놓았다. 그리고 피렌체의 메디치가처럼 부를 축적한 상인계급이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하여 미술의 새로운 후견인이 되었다.

미술은 교리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전달수단으로 주목받았다. 따라서 그리스미술처럼 서술적 기능이 부각 되었고, 서술적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적 묘사가 중요시되었다. 또한 그들은 미의 구현이란 어떤 이성적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과학적 예술이 발달하였다. 동시에 기하학, 해부학, 원근법 등도 발전하였다. 게다가 미술교육기관인 아카데미가 설립되었고 화론(畫論)이 등장하였다.

14세기의 피렌체에 최초의 공공미술 아카데미가 설립되어 피렌체를 중심으로 변화를 맞이하며 르네상스 미술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르네상스 미술은 특히 조각에서 고대미술에 대한탐구를 하며 그리스의 이상적인 조각을 토대로 현실적인 인간의 이상적인 형태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로 인해 예술 분야 중에서 특히 조각 장르는 수많은 거장을 배출하게 된다.

르네상스미술의 대표적인 작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3대 거장으로 2007년 11월에 <네이처 지가 선정한 인류역사를 바꾼 10명의 천재 중에 가장 창의적인 인물 1위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차지했던> 그는 그리스 비투르비우스의 사각속의 인간을 계승하여 인체 비례도를 만들었으며 수십 여구

의 시체 해부를 통해 스케치로 기록 해놓은 해부도는 오늘날에도 의학 계통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의학, 수학, 물리학 등 인류의 과학자로 거듭났으며, 처음엔 의사로 해부를 했지만 후에 그가 익숙해진 스케치를 통해 화가로 성장하면서 그 유명한 「모나리자」<사진5>를 제작하기도 했다. 1500년대는 이성적 규칙을 통한 객관적인 정확성과 조화와 균형이라는 미(美)의 이념이 잘 구현된 전성기 르네상스로 황금기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비례도 <사진6>를 살펴보면 인체를 둘러싼 원은 우주를, 네모는 지구를 표현하였으며 그 사이에 인간을 묘사하였는데 정 가운데 배꼽을 중심으로 손과, 발의 끝점이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만물의 척도로써 사람은 소우주라 여겼으며, 또한 배꼽의 기점으로 발까지 길이와 머리끝까지 길이가 1.618 :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는 약 3:2라는 황금비례의 개념이 시작된 것이다.

실제로 인체 부위 대퇴와 하퇴, 상완과 하완 등 인체 부위 요소요소마다 이 황금비례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오직 이상적인 인체를 표현하는 양식이 되었고 오늘날도 이 황금비례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되어 A4,A3 등의 용지로 사용되지만 4.8,16절 등 일상의 생활가구용품의 가로세로가 황금비례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5>



<사진6>



<사진7>

미켈란젤로는 화가인 동시에 시인, 건축가이며, 그 당시 세도가였던 메디치가의 소장품들, 즉 고대 그리스 로마의 조각들을 연구했다. 그는 이로부터 아름다운 인체를 묘사하는 고대의 스승의 비법을 알았으며 인체의 디테일 한 부분까지 연구하였다. 그의 가장 뛰어난 역량은 시스틴 성당의 천장화와 피에타 <사진7> 조각상에서 볼 수 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은 그가 율리우스 2세의 묘비 건립의 일부분이었던 군상 중 하나인 빈사의 노예와 다윗 상, 모세 상에서 볼 수 있다.

그는 평소에 회화에서 보다 조각에 더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점차 상업의 발전으로 인해 중산계층이 주역이 되면서 인간존재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은 노동자나 소외층까지 확대되어 그들의 삶이 녹아 있는 현실적인 인체조각으로 변화되어 갔다. 이는 시대적 환경에 따른 인간의 의식 변화는 인체조각의 표현에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상적 인체조각에서 벗어나 한 인간의 삶을 느낄 수 있게 현실적으로 표현한 오귀스트 로댕<사진8>은 근대조각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는 대상을 표현함에 있어 주변 환경과 습관, 심리적인 상황 등을 연구하고 내면의 깊은 성찰을 통해 감정을 이입시키며 인체조각의 표현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한국 서양조각은 김복진 선생과 권진규 선생으로 최초 조각가로서 일본에서 유학한 선생들은 일본이 서양문화에 직접영향을 받아 한국유학생에 지도함으로써 과도기를 거쳐 한국조각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최근 곳곳의 도심(都心)과 공원에 많은 기념조각상이 설치된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수년 전만하더라도 위인이나 큰 공적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졌으나, 현재에는 개인 초상조각이 성행하여지는 양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로마공화정 시대와 비슷한 맥락(脈絡)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의 디지털시대엔 3D프린터로 대형 조각을 제작할 수 있으나 인물고유의 특징적인 감정을 읽을 수 없으며, 작가의 예술적인 감성이 결여되기 때문, 즉 같은 대상을 소재로 하더라도 본인의 처한 상황이나 심리적인 영향에 따라 표현이 달라 질 수 있으며 외형은 닮기 쉬우나 대상의 정신 세계는 처리를 못하는 인공 지능 이기에 초상의 감정표현은 오로지 존엄한 사람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위대함은 역사문화의 축으로 존엄성과 문화 창달은 후손들에 전하는 아름다운 과정일 것이다.



<사진8>

X. 문중을 빛낸 얼굴

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일가 당선인 현황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인 현황 (2023.3.8.)

조합명	사 진	성 명	생년	주소	학력	경력	비고
송정 농업		차주철 (車柱哲)	1966년	광주시 광산구	조선대 경상대 회계학과 졸업	전)송정농협 근무	
송탄 농업		차흥석 (車鴻錫)	1960년	경기도 평택시	농업대 협동조합 경영과 졸업	현)송탄농협 조합장	
새청도 농업		차용대 (車鏞大)	1959년	경북 청도군	영남외대 부동산재테크과 졸업	현)새청도농협 조합장	
새통영 농업		차경용 (車敬鎔)	1966년	경남 통영시	영진전문대 전자계산과 졸업	현)새통영농협 조합장	
한림 농업		차성준 (車性俊)	1963년	제주도 제주시	제주한라대 관광경영과 졸업	현)한림농협 조합장	
인천 수산업		차형일 (車亨一)	1972년	인천시 연수구	인하대 경영대학원 졸업	현)경인북부 수협 조합장	
통영 산림		차형재 (車亨宰)	1969년	경남 통영시	통영수산전문대 해양토목과 졸업	전)통영산림 조합 30년 7개월 근무	

2. 차종희 육군준장



2023년 하반기 장성인사에서 차종희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하였다.

차 준장은 차기호·조정자님의 1남2녀 중 장녀로 여중양여고와 동덕여대를 거쳐 여군 39기로 임관하였으며, 재직 중 경희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는 열정으로 재정병과 여군 최초로 장군 진급을 하여 1월1일부로 계룡대 육군본부 예산차장으로 일하게 된다. 또한, 남편과 1남1녀의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국가에 공헌하고 있다.

3. 차성민(부산광역시 연제구 의원) 약력



대광지백연안군 39세손 차성민 의원은 평안북도 영변군 출신의 실향민이며, 전 부산·경남총친회 제3대 회장을 역임한 부친 차용제님과 어머니 이선옥 여사 사이의 3남매 중 막내로 1958년 5월 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98 번지에서 출생으로 부전초등학교, 부산중앙중학교, 경남상업고등학교,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공헌하며,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부산산림보호협의회 연제구지회장, 부산일보CEO아카데미 12기회장, 부일로타리 회원, 연제구바르게살기운동 부회장, 연제구족구자문위원, 부산교통장애인협회 부회장, 부산산업재해장애인후원회 부회장, 법무부범죄예방연제구 자문위원, 경남상업고등학교총동창회 부회장, 재부 연안차씨청·장년회 초대 회장, 한국환경종합건축사무소 토목감리 상무이사, 광명주택>의 CEO, 연제구의회 경제행정위원장 등이며, 상훈으로는 부산시장 표창, 법무부 부산소년원장 감사장, 국민의힘부산시당위원장 표창, 연제구청장 표창, 한국산림보호협회장 표창, 부산시성실납세자 선정, 2021대한민국청소년지도자상 봉사부분 대상, 헌혈(126회)유공자 등이 있다.

4. 차민경 법학박사·미국변호사

한편, 안성시 일죽면 당촌리 청룡마을 오갑문중 차덕재(차용재 중앙회 자문위원 장 아우) 종장 장녀 차민경(미국 거주, 미국명 미셸 최, 안성 일죽초등학교 32회 졸업) 종친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경사를 맞았다.



안성시 일죽면 당촌리 출신 차민경(차덕재·이순범 장녀) 법학박사 취득, 미국변호사 합격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하는 차민경 박사

5. 국제빙상경기연맹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 銀’ 차준환

2023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반 입상에 성공한 차준환(22·고려대)과 이해인(18·세화여고)이 나란히 은메달을 걸고 금의환향했다. 차준환과 이해인은 지난 26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끝난 2023 ISU 피겨 세계선수권대회 남녀 싱글에서 나란히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선수가 피겨 세계선수권에서 동반 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 이전까지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수확한 한국 선수는 '피겨여왕' 김연아(은퇴)가 유일했다. 김연아는 세계선수권에서 개인 통산 6개(금 2개·은 2개·동 2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김연아가 2013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에서 열린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 세계선수권에서 포디움에 오른 한국 선수는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대회에서 유영(수리고)이 여자 싱글 5위에 오른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차준환과 이해인이 나란히 2위를 차지하면서 10년 만에 한국 피겨에 세계선수권 메달을 안겼다.



국제빙상연맹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차준환과 이해인이 3월 2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차준환은 이번 세계선수권 남자 싱글에서 296.03점을 얻어 일본의 우노쇼마(301.14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99.64점으로 3위였던 차준환은 프리스케이팅에서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선보여 196.39점을 획득, ISU 공인 개인 최고점(종전 292.38점)을 갈아치우며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한국 남자 싱글 선수가 세계선수권 메달을 딴 것은 차준환이 최초다. 2021년 세계선수권 10위에 올라 한국 남자 선수 사상 첫 '톱10' 진입을 이뤘던 차준환은 이번 은메달로 또 최초의 기록을 남겼다.

차준환은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쇼트프로그램 17위에 그친 뒤 부츠 문제 때문에 프리스케이팅 출전을 포기해야 했지만, 이번 대회 은메달로 눈물을 닦아냈다. 지난달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4위로 아쉽게 메달을 놓친 아쉬움도 달랬다.

차준환과 이해인이 선전하고 여자 싱글의 김채연도 6위에 오르면서 한국 피겨는 내년 세계선수권 남녀 싱글 출전권을 3장씩 확보했다. ISU는 세계선수권에 한 국가에서 2명 이상이 출전할 경우 상위 2명의 순위를 합친 숫자가 13 이하이면 차기 세계선수권 출전권 3장을 준다. 14~28 사이이면 2장, 29 이상이면 1장이 돌아간다. 한 국가에서 1명이 출전해 2위 내에 들면 다음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3장 부여하고, 10위 이내이면 2장, 11위 이하이면 1장을 배분한다.



국제빙상연맹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차준환이 3월 27일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6. 2023 동계체전 차준환 금메달, 차영현 동메달 합작

국내 무대에선 적수가 없었다. 피겨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22·고려대)이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차준환은 2월 19일 경기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대회 피겨 남자 대학부 싱글 A조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89.42점, 예술점수(PCS) 91.81점, 합계 181.23점을 받았다. 이로써 전날 쇼트프로그램 점수 100.70점과 합친 최종 점수는 281.93점으로, 243.84점을 기록한 2위 이시형(고려대)을 여유있게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3위는 221.71점을 받은 차영현(고려대)이다.

이날 차준환은 첫 점프 과제인 쿼드러플(4회전) 살코를 깔끔하게 성공했다. 이어 쿼드러플 토루프는 싱글로 처리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트리플 러츠-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와 트리플 플립은 매끄럽게 연결했다. 가산점 10%가 주어지는 후반부 점프에서도 트리플 악셀-더블 악셀 시퀀스와 단독 트리플 악셀을 무난히 소화했다. 다만 마지막 점프인 트리플 러츠-싱글 오일러-트리플 살코에서는 후속 점프에 쿼터 랜딩(점프 회전수가 90도 수준에서 모자라는 경우) 판정이 내려져 수행점수가 2.28점 깎였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4위에 그쳤던 차준환은 귀국 후 휴식 없이 이번 대회에 출전하고도 경쟁자들보다 한 수 위 기량을 선보이며 정상에 올랐다.



차준환이 2월19일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피겨 프리스케이팅 남자 대학부 경기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7. 차진태 변호사 종친회중앙회 고문변호사 위촉

2023년 12월 26일 차진태(車鎭太, 변호사 겸 아동문학가) 변호사에 대한 종친회중앙회 고문변호사 위촉이 있었다. 차 변호사는 父 차흥윤(車興潤) 씨, 母 최성희(崔星熙) 씨의 장남으로 1984년 경기도 안산에서 출생하여 안산경일초등학교, 안산부곡중학교, 안양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석사(사회법) 졸업 및 박사(사회법)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제5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47기 사법연수원 수료 및 해군 법무관 복무 후 현재 [법률사무소 열]의 파트너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국방부장관상, 국방부검찰단장 표창, 국방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였고, 한편 아동문학사조의 제5회 신인문학상(동화 부문)을 수상하고 동화집 '별이달이'를 발간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차 변호사는 추후 우리 종친회나 일가들의 법률적인 문제 등에 도움을 줄 기회가 있으면 성심껏 돕겠다고 힘주어 말하며, 장학기금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 당일 금일봉을 희사하는 등 장래가 촉망되는 우리 차문의 자랑스러운 인재이다.



사진 좌로부터 차진태 변호사, 차병표 회장, 차병찬 수석부회장

XI. 오늘을 살아가는 종친들

1. 오산공(五山公)파 회관 준공

연안차씨오산공파종친회(회장 차경준)에서는 과천시 문원청계3길 23 (문원동)에 그 간 노후화되었던 회관을 헐고 132㎡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8.93㎡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형태로 오산회관(五山會館) 준공을 보아 2023년 6월 2일자로 과천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다. 이로써 그간 건축자재비·인건비 상승 등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완공을 보게 되었다.



새 단장 된 五山會館 (과천시 문원청계3길 23)

2. 스위스 교민 차일숙님 가족, 뿌리 찾으러 종친회 방문

다섯 살 때 스위스로 입양되어 현재 음악교사로 활동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 잘 지내고 있는 차일숙님의 남편 Matthias씨와 16세의 아들 Joschua Wyrsh 군이 아내와 엄마의 뿌리를 찾겠다며 한국을 방문하여 이를 도와주는 통역과 함께 2023년 10월 10일 연안회관을 찾아와서 이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보육원 자료와 어린 시절 사진 등을 제시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1964년 10월 25일(추정) 생으로 생후 한 달 만에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보육원에서 지내다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스위스로 입양되었다고 한다. 너무 오래되고 증빙이 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막막한 상황이지만 당사자의 안타까운 사연과 또 '차'씨 성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정성에 감동되어 종친회중앙회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도우기로 약속하고 돌아갔다.

이에 종친회에서는 전단지를 많이 복사하여 의덕사 세향(10월 15일)과 부산 차릉 세향에서 모든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또, 제시한 제적등본을 근거로 연고지가 될 만한 경남 합천군의 차씨 집성촌 인근 마을 일대를 수소문하여 마침 종친회와 연결되는 차선도 종장의 고향친구 이찬규 씨에게 의뢰를 하여 청덕면 면장과 함께 옛 호적들을 뒤져 부(父)로 추정되는 성태리(덕원서원 소재)의 1932년생 차일순 이란 분을 찾았으나 이미 고인이 되었고 그 아들이 일본에 거주하다 사망했다는 것까지 알아냈지만 그 이상의 추적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혹시 다음 쪽의 전단지를 보고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종친회중앙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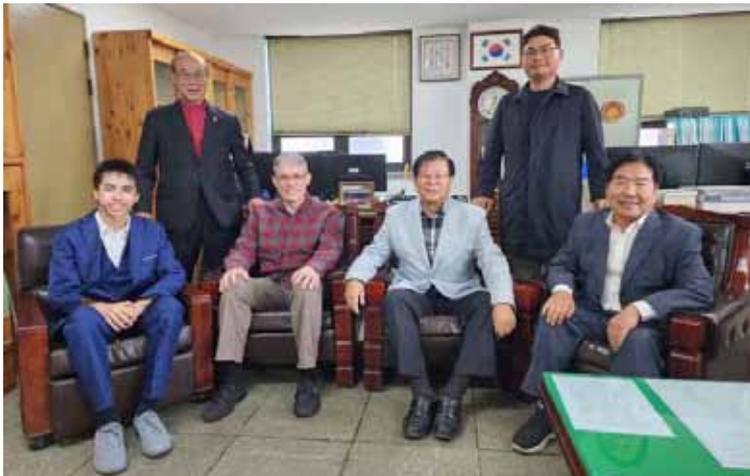


사진 좌측 앞줄부터 아들 조수아, 남편, 차병표 회장, 차병찬 수석부회장, 통역, 차주덕 종장

해외입양인이 헤어진 가족을 찾습니다



NAME: Cha-il-sook

저는 진해에서 태어나 어릴 적에 스위스로 입양된 차일숙입니다.
저는 1964년 10월 25일(추정)에 태어나 한 달 뒤인
1964년 11월 26일 진해에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 뒤 진해보육원(현재 진해재활원)에서 지내다가
다섯 살 때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스위스로 입양되었습니다.

이름	생일	발견(출생) 도시
차일숙	1964년 10월 25일(추정)	진해



저는 네 살 때인 1967년에 제 이름 앞으로 당시 지내던 진해보육원으로
(오른쪽 사진 속) 하얀 드레스가 든 소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일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스위스 오발덴(Obwalden)주에 살고 있고,
음악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결혼 후 1남 조슈아(Joschua Wyrsch)를 두고 있습니다.
진해와 창원에 살고 있을지 모를 저의 친가족을 꼭 찾고 싶습니다.

저의 출생에 대해 아시거나 저를 알아보신다면
꼭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족찾기 결정적 도움 사례금: 1,000,000원]



카카오톡 QR코드: // 카카오톡 아이디: cha-il-sook
메일 : chailsook@hanmail.net //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차병구 종장의 삶의 궤적

자문위원 차 병 구

사단법인 한국서화협회가 주최하고 PCAF(Painting Calligraphic & Art Festival)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 제43회 PCAF 2021 서예부문 대상을 수상한 차병구 종장의 삶은 우리 시대가 공유하는 질곡의 삶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경남 창녕의 빈한한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나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의지의 한국인이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인격 함양을 위하여 서예에 입문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나라 유수의 공모전에서 위와 같은 업적을 이루어 주위의 칭송을 받고 있다.



작품, 좌측 서예부문 대상작 / 우측 (사) 서화협회 회장 역임 元堂 차일순 찬조출품작

아래에 본인의 인생관을 담은 글을 올린다.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공부하며, 서재를 빌려서 한문(漢文)을 가르치는 학자님들을 모시고 동네 젊은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는 방이 겨울이면 너무 추워서 그 누구의 도움 없이 뒷산에 올라가 땀감을 구해 와서 매운 연기를 마시며 눈물을 삼키며 군불을 때어 학자님과 동네 젊은이들이 온기 있는 방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일이 보람 있었고 또한 기억이 난다고 말한다.

나는 항상,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명적(使命的) 인생관(人生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의 철학(哲學)을 닮고 싶었다. 링컨은 19세 때 뉴올리안즈의 노예(奴隸)매매 시장에서 노예들이 백인에게 매매되는 처참한 비극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언젠가 때가 오면 저놈의 제도를 힘껏 때려부수겠다.” 이 충격과 의분과 결심이 링컨으로 하여금 후일 노예해방의 대사업을 성취시켰다.

그리고 열여섯 살 난 도산(島山) 안창호(安昌鎬)는 평양에서 청일전쟁의 비극을 보고 왜 한국이 청일전쟁의 비극적 전쟁터가 되었는가를 자문하고 민족이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래서 나 역시 아는 것이 힘이 된다고 일일학(日日學)의 정신으로 「지행지시(知行之始) 행지지성(行知之成)」 단어를 되뇌이고 실천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나는 지금도 하루 24시 1분1초도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항상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매일 매일 성실하게.....

落照

1)

落照吐紅掛碧山 (낙조토홍괘벽산) 지는 해가 붉게 푸른 산에 비쳤는데
寒鴉尺盡白雲間 (한아척진백운간) 갈가마귀떼는 흰 구름 사이로 사라지더라
問津行客鞭應急 (문진행객편응급) 나루터를 묻는 길손은 채찍질이 급하고
尋寺歸僧杖不閑 (심사귀승장불한) 절을 찾아가는 중은 지팡이가 한가롭지 않더라
放牧園中牛帶影 (방목원중우대영) 방목하는 동산에는 소 그림자가 길고

1) 박문수(朴文秀): 조선 중엽 숙종 때 고령박씨(高靈朴氏)로 태어났으며, 이 詩로 장원급제를 하여 암행어사로 유명함. 1~7구(句)까지는 神作 끝구만 人作

望夫臺上妻低鬢 (망부대상처저환) 남편을 기다리는 대위에는 아내의 쪽 그림자가
나지막하더라

蒼烟古木溪南路 (창연고목계남로) 푸른 고목 남쪽 시내 길에는
短髮樵童弄笛還 (단발초동롱적환) 단발초동이 피리를 불며 돌아오더라

XII. 訃音

1. 차수웅 우성해운 창업주 별세



차수웅 우성해운 창업주

차수웅 우성해운 전 회장이 2023년 6월 8일 8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1940년 충남 태안에서 태어났다. 인천고,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인천제철에 입사했다. 1974년에는 우성해운을 설립하며 경영인의 길을 걸었다. 2006년 퇴임 당시 우성해운의 운임 매출액은 1억5000만 달러(약 1970억원)로 한진해운, 현대상선, 머스크라인에 이어 국내 해운업계 4위까지 올랐다. 한국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7년 산업포장을 받기도 했다. 차 전 회장은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과 배우 차인표의 부친이다. 차인표는 9일 인스타그램에 생전 부친과 함께 산책하는 영상을 올리며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천국에서 만나서 또 걸어요”라는 글을 남겼다. 차인표의 아내 신애라씨도 인스타그램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라며 고인을 추모했다. 고인은 생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식들(3남1녀)이 아닌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겨 화제가 됐다. 차 전 회장은 2004년 가족들과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자녀들이 모두 경영권 승계를 거절하자 지분을 합작사에게 넘겼다. 차인표는 2006년 부친의 은퇴식에서 가족 대표로 인사말을 하며 “내가 했던 드라마에선 주로 아들이 회사를 상속하거나 주주총회 같은 걸 열어서 회장이 쫓겨났는데, 이렇게 기분 좋게 헤어지니 행복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XⅢ. 선조 향사봉행

1.懿德祠 歲享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285-1

2023년 10월 15일(음 9월 1일) 종친회 중앙회에서는 득성·득관 시조를 비롯한 현조 109위의 위패를 모신 의덕사(懿德祠)에서 100여명의 원로 종장님들과 일가님들이 모여 차병표 종친회중앙회장의 내빈소개에 이어 인사말을 한 후 엄숙하고 경건하게 향례를 모셨다. 화창한 가을날 초헌관, 차덕오, 아헌관 차형수, 종헌관 차광열, 집례 차병헌, 대축 차봉섭 그 외 여러 집사들과 참석한 일가들이 약 1시간에 걸쳐 향사를 진행하였다. 향사(享祀)가 끝난 후 중식(中食)은 종약소와 사우 앞 잔디광장에서 준비된 도시락으로 모처럼 만난 일가들과 담소를 나누는 송조목종(崇祖睦宗)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의덕사 사우(祠宇)의 어원을 살펴보면 의덕(懿德)은 훌륭한 덕(德), 아름다운 德의 뜻으로 높이 뛰어난 德을 송미(頌美)하여 이르는 말이다. <詩經> 대아 증민편(大雅烝民篇)에 민지병이(民之秉彝) 호시의덕(好是懿德) 이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사기(史記)> <후한서(後漢書)> 등 고대 전적(典籍)에 두루 씌어 진 어휘(語彙)이다. 의덕(懿德)은 연안군(延安君)을 봉사(奉祀)하는 사명(祠名)으로 가장 적합하다.



의덕사(懿德祠) 향사(享祀)를 마치고 헌관·집사·원로종장·집행부의 기념촬영



계묘(癸卯)년 의덕사 세향 모습



의덕사 전경

2. 車陵 歲享祭 奉行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2023년 10월 23일(음 9월 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산 72번지 신라승상 휘 建申선조님 세향제가 차릉보존협회 차점용 회장 주관으로 봉행되었다. 화창한 가을 날씨에 종친회중앙회 차병표 회장, 차성학 명예회장, 차병찬 수석부회장, 차영덕 감사 겸 상주종친회장, 차범열 장학회장 겸 지제문중 회장, 차광열 대구종친회장, 차정환 울산종친회장, 차오철 울산종친회 차기회장, 차봉섭 대구종친회 사무국장,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 차성민 부산연제구 의원 등 류문에서 류동일 외 다수인 등 100여명의 종친들이 참석하여 성대하고 엄숙하게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향례를 올렸다. 특히 올해는 중앙종친회에서 버스 1대를 준비하여 멀리 포천에서부터 서울·인천·화성·평택·대전을 경유하여 32명이 참석하였는데, 여기에는 며느리, 딸 등 여섯 명이 참여하여 더욱 의의가 컸다.

초헌관 차정호, 아헌관 차경호, 종헌관 차수철, 집례 차준철, 대축 차동일, 봉로 류영, 봉향 류홍인, 봉작 차영철, 전작 차세규, 직일 차형규 종장 등이 헌관 및 제관을 맡았으며 차릉 세향을 올린 직후 모신 오대단(五代壇) 세향의 초헌관은 류문 사위되는 이응선, 아헌관에는 차영규, 이하는 차릉 향사와 헌·제관이 같았다. 차릉과 오대단의 세향을 마친 후 참석자 전원이 음복/中食을 들면서 조상님들의 음덕을 기리고 종친간의 우의를 다지는 송조목종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산 72번지 車陵



차륜 세향 올리는 모습



오대단 세향 올리는 모습

3. 得貫祖 追慕祭 奉祀 및 定期總會

2023.11.13(음 1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3동 614-4 대연회관(大延會館)에서 대광지백연안군 추모제가 차성학 중앙회 명예회장, 차호철 중앙회고문, 차영규 중앙회 부회장 등 전국의 종원 50여명이 모여 초헌관 차병표 종친회중앙회 회장, 아헌관 차병찬 종친회중앙회 수석부회장, 종헌관 차성민 부산연제구 의원, 집례 차한용 대구종친회 부회장, 대축 차한돈 대구종친회 명예회장 등의 헌·제관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제61회 연안차씨 대구경북종친회 총회가 차봉섭 대구경북종친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최되어 차광열 대구경북종친회 회장의 내빈 소개와 개회사에 이어 차병표 중앙회장의 격려사와 차호철 중앙회 고문의 축사가 있는 후 경과보고, 감사보고, 재무보고에 이어 차광열 회장이 유임되고 부회장에 차대식·차한용, 감사에 차영휘·차홍건 일가 등이 선임되었다.



대광지백연안군(大匡之伯延安君) 추모제를 마치고

4. 자암서원·의열사(紫巖書院·義烈祠) 향례봉행

2023년 10월 29일(음력 9월 중정일 다음 일요일) 울산광역시 통천 자암서원 의열사에 모셔진 문절공·강렬공 두 선조님에 대한 향례를 봉행하였다. 향례는 부산, 울산 등지에서 일가 친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선조님께 예를 올리고 음덕을 기리며 성대히 진행되었다.



자암서원·의열사(紫巖書院·義烈祠) 향례 ▲ ▼



5. 기사재(麒思齋) 세향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2023.11.15(수, 음 10.3) 강렬공파 종친회(회장 차병찬)에서는 화성시 장안면 버들안길 46-14 기사재(麒思齋, 강렬공 위패와 유상, 배위 광산김씨 묘소)의 세향이 전국의 강렬공 후손 및 내빈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초헌관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아헌관 차재운 종손, 종헌관 차기종 부회장, 집례 차병헌 사무국장, 축관 차흥규 감사, 알자 차병택 이사, 집사 차은철 이사, 차진열 관리이사 등이 각각 소임을 맡아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되었다.

행사에 앞서 차병찬 회장은 작년과 금년의 기사재 경내 강렬공 사적비 개수를 비롯한 여러 성역화 작업의 경과 및 종친들의 헌성금과 석포리 일가 및 부녀회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이어 차성학 중앙회 명예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강렬공파의 활성화 경위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일가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일이 모두 잘 되기 바란다고 하였다.



기사재 세향을 마치고 기념 촬영

6. 기사재·부조묘·운장각 정비공사 완료

연안차씨강렬공파종친회(회장 차병찬)에서는 기사재(麒思齋) 경내 부조묘(不祧廟)와 운장각(雲章閣) 사이의 담장과 운장각 좌측 담장을 헐고, 운장각 앞쪽을 조경블럭을 쌓아 높여서 두 건물 앞부분을 장대석을 놓고 건물 쪽은 화강석 판석으로, 앞쪽은 보도블럭을 포설하고 앞부분에 녹색 펜스를 쳐서 경내를 하나로 만들고, 강렬공 사적비 돌레를 벽돌을 쌓아 화강석으로 덮개돌을 놓고 주변을 철쭉, 꽃잔디, 잔디 등으로 조경을 하고 기사재 화장실을 헐고 적벽돌을 쌓고 철대문을 교체하는 주 공종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2023년 5월 18일부터 동년 6월 23일까지 완료하여 기사재 경내가 훨씬 깨끗하고 아늑하게 정비되었다.

이에는 강렬공파 일가들의 송조목종(崇祖睦宗)에 기인한 단합된 마음이 집결된 결과로 헌성금(獻誠金)이 작년 기와교체공사, 도장공사시에 3,465만원, 금년도 경내 정비공사시에 720만원 등 모두 4,185만원의 성금이 답지되어 공사 수행에 큰 힘이 되었으며, 그 중에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성금을 보내주신 문중 및 일가 분이 계심은 참으로 마음 든든하고 고마운 일이다.



강렬공 사적비(剛烈公 事蹟碑) 개수(改堅)



사진 左 운장각(雲章閣), 右 부조묘(不祧廟)



기사재(麒思齋) 정문 여재문(如在門) 우측 담장 및 대문 교체

麒思齋整備工事 誠金錄

2022.2.11.~2023.7.10.

성금액	성금자명단
500만원	대구경북종친회, 화성남산문중
350만원	당진동산문중
300만원	화성석포문중
200만원	창녕봉양문중, 차진열
150만원	차기종
100만원	화성마도문중, 오산공파, 차덕현, 차병구, 차병찬, 차병표, 차병헌, 차은철, 차주영, 차준식, 차진형, 차판수, 차태환, 차흥봉
60만원	차재윤
50만원	차득근, 차집용
40만원	차도삼
30만원	차문순, 차영규
20만원	인천영종문중, 차기환, 차병입, 차상무, 차승규, 차정호, 차종순, 차판순
10만원	차강현, 차경호, 차득규, 차병모, 차병순, 차승환, 차정일, 차주완, 차준철, 차진규, 차재근, 차재준, 차재훈, 차태환, 차천순, 차환복
5만원	차세규

麒思齋 정비공사에 獻誠하신 諸宗의 명단과 금액을 기록하여 그 고마움을 後世에 전한다.

延安車氏剛烈公派宗親會

7. 剛烈公 享禮(鳳陽齋)

2023 창녕 봉양재(鳳陽齋, 회장 차판순) 경내의 강렬공(剛烈公) 유상을 모신 존경각(尊敬閣)에서 삼월 삼짇날(양력 4. 23, 공(公)의 순국 556주년) 본손 및 내빈으로 차성학 종친회중앙회 명예회장 내외, 차영규 차릉보존회 회장, 차한용 중앙회 이사, 차점용 중앙회 이사, 차정호 중앙회 자문위원 등이 참례하여 초헌관 차성학 명예회장, 아헌관 차영규 차릉보존회장, 종헌관 차효열 종손, 축관 차한용 이사, 집례 차병찬 중앙회 수석부회장 등 30여 명의 후손들이 경건하고 엄숙하게 향례(享禮)를 모셨다.



강렬골 유상(遺像)을 모신 존경각(1932) ▲ 향례 모습 ▼



8. 도장(道藏)서당 享禮

2023년 5월 9일(음 3월 20일)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용당리 도장서당에서는 강렬공 향례 행사가 있었다. 백두대간 동남쪽 토함산 끝자락 연대산 아래 우리 중시조 諱 云革 剛烈公 雙靑堂 사당(祠堂;莊節祠)·서당(書堂;道藏書堂)이 있는 곳. 살기 좋고 공기 좋은 이곳에 터 잡은 것은 울산·울주 入鄉祖이신 延安君 29世 諱 輔자 선조님의 7世孫 諱 聖자文자 선조께서 울주군 청량면 신전에서 이곳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용당2리(도장곡)에 터 잡으시고(도장 입향조) 이어 건너 마을 용당1리(원당)에 같은 항렬 8촌(3從) 諱 正자國자 延安君 35世(원당 입향조)께서 자리 잡으셨다.

감은들과 대종천을 가운데 하고 동쪽에는 큰덕, 서쪽에는 작은덕 두 마을이 연안차씨 集姓村을 이루고 살았으며,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甲午(1954년) 3월에 사당을 건립하여 경북 칠곡에서 강렬공 위패(位牌)와 유상(遺像)을 모시게 되었는데, 모시던 날 경주에서 양북(陽北) 관해령고개(현추령재)까지 가마로 마중을 나가셨다 했다. 그 후 지방 유림(儒林)의 조언으로 慶州鄉校에 등재(等儕)되었으며, 현재 경주향교에는 30여 書院·書堂의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도장書堂에는 매년 陰3月 중정일(中丁日)에 우리 차문에서 주최하고 유림에서 주관하여 정성을 다해 향례(享禮)를 봉행하고 있으며, 두 마을 중장년들과 부인네들이 향례를 모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도장서당(道藏書堂)전경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용당리



도장서당(道藏書堂)



장절사(莊節祠) 강렬공 유상(遺像)·위패(位牌) 봉안. 매년 음력 3월 중정일(中丁日) 유림향사

9. 鳳陽문중 崇德祠 세향

2023.11.26(음 10.14) 경남 창녕군 이방면 초곡리 鳳陽문중(회장, 차판순)에서는 입향조 연안군 28세 처사(處士) 덕필(德弼)공을 비롯한 300여 위의 位牌를 모신 崇德祠에서 50여명의 종원들이 모여 시향을 모셨다. 시향에 앞서 강렬공 유상을 모신 존경각에서 먼저 참배를 한 후 이번에 근수(謹堅)하는 [延安車氏 剛烈公派 德弼(28世)公 入鄉由來碑] 제막식이 있었다. 초헌관 차효열, 아헌관 차종순, 종헌관 차천순, 집례 차병찬, 축관 차현철, 알자 차헌순, 좌집사 차병욱·차상범 우집사 차병희·차희순, 유사 차병입 등이 헌관 및 제관의 소임을 맡았다.



10. 당진 東山齋 세향봉행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조금리

2023.11.27(음10.15) 당진시 대호지면 문헌로 780-11 東山문중의 입향조 연안군 29世 남호공 주육(南湖公 注陸) 선조님을 비롯한 269位의 위패를 모신 강렬공봉령당(剛烈公奉靈堂)에서 강렬공파 차병찬 회장, 동산문중 차기종 회장을 비롯하여 문중 종인 30여명이 시향을 모셨다. 초헌관 차기종 동산문중 회장, 아헌관 차상기, 종헌관 차기성, 집례 차성환, 축관 차상민, 좌집사 차상준, 우집사 차남식 종장 등이 향례의 소임을 맡았다.



동산동(東山)문중 강렬공봉령당(剛烈公奉靈堂) 시향 모습



당진시 대호지면 東山門中 세향기념 (2023.11.27)

XVI. 각종회의 개최

1. 2023 종친회중앙회 정기이사회

2023년도 종친회중앙회 정기이사회가 회칙 제22조(이사회 개최) 및 제23조(이사회 정족수)에 의거하여 1월26일(목) 11:00 연안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차병표 회장은 인사말에서 “종친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참석하여주신 이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장학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유물을 보유하고 계신 일가 분들에게서는 이를 종친회에 양도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는 요지의 인사말에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보고, 2022년도 결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포상(안), 장학금 지급(안), 총회 장소 및 일자 확정(안) 등을 의결하고 기타토의 후 산회를 하였다.



2. 2023년 정기총회

종친회중앙회 정기총회가 2023년 2월 28일(수) 방배동 아르테스웨딩홀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려 경향 각지의 일가 120여 분이 모여 성황리에 열렸다.

제1부 일반사항에서는 성원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에 이어 내빈소개를 하고 유공 종친 및 관계자에 대한 공로장 수여에 차성학 명예회장, 차준영 부회장, 차창근 고문, 차형수 부회장, 차종목 감사, 차길병 이사 효부상에 남산문중 최순복 님, 표창장 수여에 신숙영 종친회중앙회 관리실장이 수상하고 이어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혜자는 건양대학교 차승철, 남서울대학교 차연주, 춘해보건대학교 차지환 학생이 각각 수상하였다. 차병표 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모처럼 일가님들을 뵙게되어 매우 반가우며, 몇 해를 간소하게 진행된 의덕사 세향을 작년에는 예년처럼 성대하게 모셨으며, 연안회관 엘리베이터 교체 및 의덕사 수도 인입과 화장실 공사를 하였고, 대전 뿌리공원 연안차씨유래비를 개수하는 등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주신 제종들께 감사드리며, 종친님들 께서 보유하고 계신 우리 조상님들의 유물이 있으면 종친회에 기증하여 주시고, 자라는 후세들에 대한 장학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해 달라는 요지의 인사말이 있었다.

제2부 보고사항에서는 전차 회의록 낭독 및 경과보고는 회의자료에 잘 나와 있고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는데 참석자 전원의 찬동으로 간략하게 진행됐다.

제3부에서는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 순서로 지난 1월 26일 연안회관에서 있는 2022년도 결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기타사항 토의에 이어 총회를 산회하였다.

이어 식사를 마친 후 문절공파와 오산공파에서는 별도의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3. 2023년 주요 종직자 간담회

종친회중앙회에서는 2023년 4월11일(화) 11:00 연안회관에서 중요 종직자 간담회를 열고 종친회 장학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몇 년째 관망중인 토지보상금의 대토에 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장학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는 시도종친회, 지역문중, 개인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장학위원회 가입 및 장학금 후원신청을 받아 자라나는 더 많은 종친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차문 후손으로서의 자긍심과 숭조목종의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집행부와 장학위원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종토 대토문제에 대하여는 이전 이사회의 결정대로 수익사업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대상지를 물색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계속해서 검토 중인바, 화성시 향남면의 공장부지 등을 대상으로 더욱 심도 있게, 종토로 확보되었을 때의 여러 가지 경우를 놓고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협의가 진행되었다. 대토 문제의 경우 우리 문중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므로 지금까지 수도권의 여러 곳을 물색하고 답사하여 살펴보았으나 현재까지는 마땅한 대상지가 없어 집행부·이사회 등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사진 좌로부터 차준식 이사, 차기종 제례위원장, 차병찬 수석부회장, 차병표 회장, 차동배 사무총장, 차범열 장학위원장

4. 2023년 수도권 및 주요당직자 임시이사회

2023년 4월25일(목) 종친회중앙회 임시총회가 열려 2022년 2월20일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종토보상금 사용에 관하여 의덕사 이전을 염두에 두되, 당분간 수익 사업으로 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결의; 종보 29호 164쪽 참조> 바에 따라 수익 자산 매입에 관하여 진지하게 토의한 결과 대상 후보지의 투자가치 등에 많은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용도지역 지목변경 등의 법률 적용 시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에 따라 부결처리하고 종사 일반사항(장학사업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였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수많은 대상지를 물색하고 사전답사를 하였으나 가액대비 마땅한 물건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아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차성학 명예회장, 차병표 회장, 차병찬 수석부회장, 차재천 이사, 차태영 이사, 그리고 차영덕 감사가 참석하였다.



사진 좌로부터 차재천 이사, 차태영 이사, 차성학 명예회장, 차병표 회장, 차병찬 수석부회장, 차영덕 감사

5. 2023년 원로 초청 간담회

종친회중앙회에서는 2023년 5월 9일 연안회관에서 현재의 안정되고 발전된 종친회에 이르게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원로·고문 초청 간담회가 열려 차병표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최근의 종사 현황과 금년도 중점사업인 장학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브리핑과 원로·고문님들의 향후 종친회 발전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고 집행부를 격려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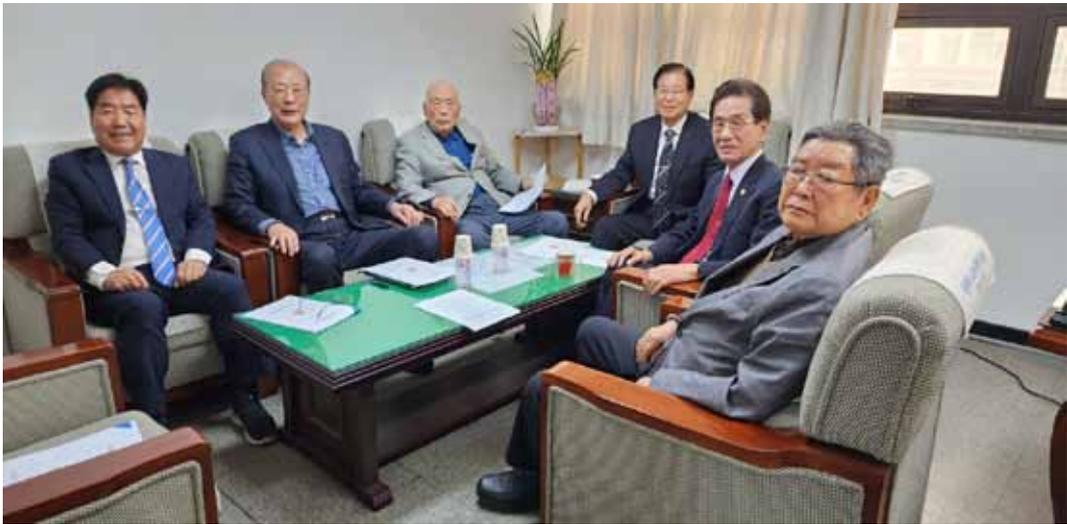


사진 좌로부터 차병찬 수석부회장, 차흥봉 고문, 차영남 고문, 차병표 회장, 차성학 명예회장, 차일남 고문



6. 2023년 종친 지방의회의원 간담회

2023년 9월 5일 연안회관에서 종친 지방의회 의원·조합장 연석 간담회가 열려 중앙회장 인사말에 이어 종사 전반적인 현안 설명과 종친회 장학기금 발전방안, 관심사 등에 관하여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진작에 계획된 간담회였으나 의회 회기, 출장 등 여러 상황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차대식 의장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차성민 의원 두 분과 종친회중앙회 차병표 회장, 차병찬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단출한 간담회였지만,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유익한 간담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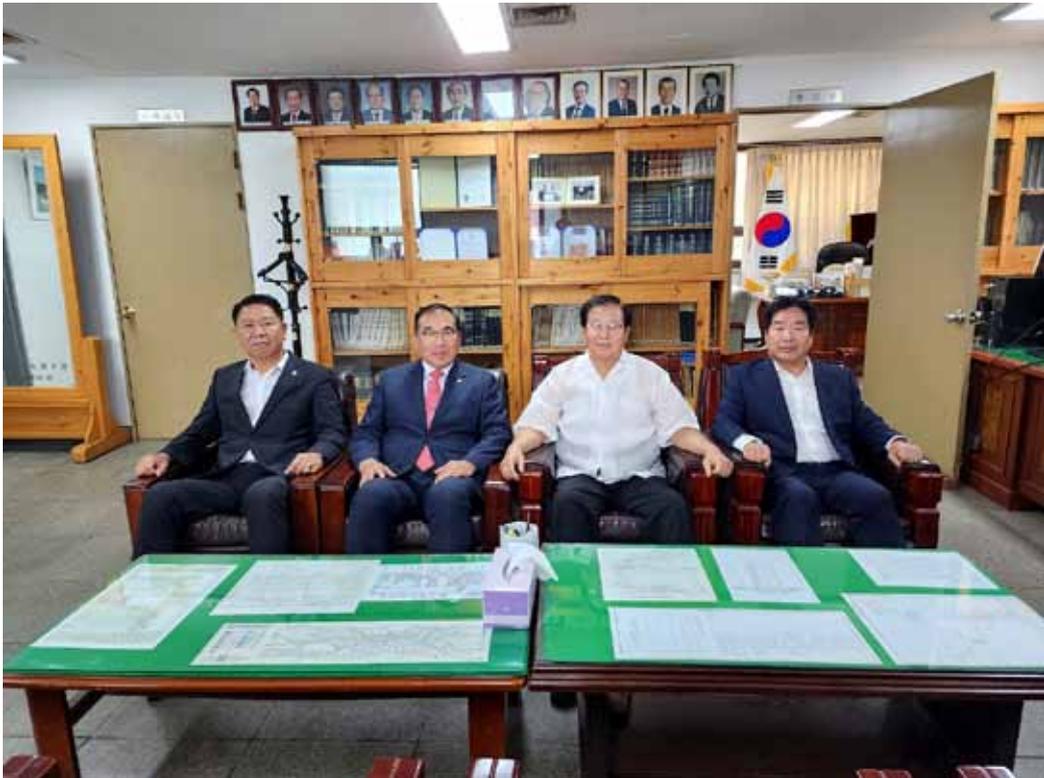


사진 좌로부터 차성민 부산광역시 연제구 차성민 의원, 대구광역시 북구 차대식 의장, 종친회중앙회 차병표 회장, 종친회중앙회 차병찬 수석부회장

XV. 중앙회 주요 활동 내용

1. 주요 종사보고

- 2023. 01. 03. 시무식 후 2023년도 업무개시
- 2023. 01. 04. 인사발령 제1호: 이사(2인)
- 2023. 01. 17. 정기감사 수감 및 장학위원회의 개최
- 2023. 01. 26. 정기이사회회의-참석자 25명
- 2023. 02. 07. 문헌위원회의-참석자 4명
- 2023. 02. 13. 평택시 박물관팀 의덕사 방문: 회장, 사무총장, 관리이사, 차승병
- 2023. 02. 28. 2023년 정기총회 개최: 참석인원 119명
장소: 아르테스웨딩홀 B1
- 2023. 03. 14. 정기총회 참석자 감사장 발송
- 2023. 03. 15. 전국동시선거 조합장 당선자 축하난 발송: 7명
- 2023. 03. 25. 종토매입위원회 현장답사: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6인)
- 2023. 03. 28. 연안2023-8 부동산(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에 따른 기본지침 작성
- 2023. 04. 11. 장학기금 활성화 회의-참석자 6명
- 2023. 04. 27. 임시이사회회의: 참석6명, 위임34명
종재(자산)매입에 관해 협의한 결과 법적규제 등의 사유로 부결됨.
- 2023. 05. 09. 원로·고문 초청간담회: 6명
- 2023. 05. 10. 장학기금 후원 안내문 발송-155명
- 2023. 05. 11. 인사발령 제2호: 자문위원
- 2023. 05. 16. 장학기금 후원 안내문 2차 발송-18명
- 2023. 05. 18. 역대 장학금 수혜자 명단 및 현황파악
- 2023. 05. 20. SKT옥탑안테나 5G 1기추가 설치: 연간 임대료 ₩300,000-연1회
- 2023. 09. 05. 지자체 의원 및 조합장 초청간담회: 참석5명
- 2023. 12. 05. 임술보 수권 원본 및 연안차씨화수회 창립규약 기증받음: 류정수
※종친회 보관분: 영인본(1~9,11권), 수권: 원본
- 2023. 12. 08. 종토매입위원회 현장답사: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5명)
- 2023. 12. 19. 종토(대토) 매입계약, 계약금 ₩40,000,000
물건주소: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9-23(토지: 438평, 건물: 180평)
- 2023. 12. 26. 차진태 변호사 종친회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12. 29. 종토(대토) 매입 1차 중도금 지급 ₩310,000,000

2. 선조님 향사참석

항	일 자	제향 내역	소재지	참 석 자
1	4/22	봉양재 존경각	경남 창녕군	차병찬 수석부회장
2	10/15	의덕사 세향	경기 평택	제례주관 포함 종원120명
3	10/23	차릉, 오대단	부산 기장	차병표 회장 외 29명(버스)
4	11/13	연안군 추모제	대구 경북	차병표 회장, 차병찬 수석부회장
5	11/15	강렬공 기사재	화성 석포리	차병찬 수석부회장
6	11/23	진사공 思戴	오산 지곶동	차병표 회장
7	11/26	봉양재	경남 창녕군	차병찬 수석부회장
8	11/27	동산문중	당진시 대호지면	차병찬 수석부회장
9	12/27	문원사	충남 당진	

3. 회관, 의덕사 건물수리 및 보수

항	일자	위 치	공사 내역	비 고
1	1/30	의덕사	사당앞, 월파옹·문절공 묘소 제초제 살포작업	₩150,500
2	3/8	연안회관	회관외부 바닥방수공사	₩3,300,000
3	4/7	의덕사	예초기 구입	₩388,000
4	4/26	연안회관	회관외부 실리콘공사	₩1,595,000
5	6/12	연안회관	옥탑 방화문수리+센서등부착	₩220,000
6	7/26	연안회관	공용전기 누전공사	₩550,000
7	8/2	연안회관	1,2층 남자소변기 및 2층 세면대 수리	₩100,000
8	9/6	연안회관	회관 및 옥탑 외부 발수페인트도장공사	₩3,740,000
9	9/13	연안회관	1층 주차장 정화조 맨홀 外뚜껑 철판제작(2EA)	₩160,000
10	9/28	연안회관	1,2층 남자소변기 배관청소 작업	₩330,000
11	10/10	연안회관	1층 주차장 정화조 內뚜껑 철판제작(2EA)	₩140,000
12	12/7	연안회관	회장실 쇼파 청소 및 소독(7EA)	₩231,000

4. 포상수여 현황

수상 대상자	사진	공 적 내 용	주 소	비 고
차득환		제6대 중앙회장, 의덕사 건립 및 월파옹·문절공 묘소 등 면례, 의덕사 변화공사 기여	경기도 평택시 장안외길	특별공로상
차정연		중앙회 전 문헌위원장, 중앙회 고문	광주시 서구 화운로	공로상
차근갑		중앙회 문헌위원	전북 군산시 대학로	공로상
차덕오		전 대전종친회장, 중앙회 이사	대전시 중구 성산로	공로상
차경준		중앙회 감사, 오산공파 회장, 아산오산문중 회장	충남 예산군 신암면	공로상
차정환		울산종친회장, 중앙회 이사	울산시 남구 중앙로	공로상
류정수		임술보 수권 원본 및 연안차씨 화수회 규약 기증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감사장
윤희선		역경을 이겨내고 자녀 5남매를 사회의 일원으로 훌륭히 성장시킴	화성시 정남면 괴랑리	감사장

5. 장학 위원회

가. 2023년도 장학금 출연내역(出捐內譯)

2024년 1월 6일 (단위:원)

개인 및 단체	일 자	출연액	비 고
대구경북총친회	2023.12.31.까지	1,000,000	회원일동
차 병 표	"	1,000,000	중앙회 회장
차 범 열	"	2,500,000	장학위원장
차 진 태	"	1,200,000	중앙회 고문변호사
차 형 근	"	1,000,000	차득환 용 손자
차 상 학	"	770,000	대전총친회 감사
차 준 식	"	500,000	중앙회 이사
차 현 배	"	500,000	서울시 송파구
차 주 영	"	500,000	경기도 포천시
차 병 찬	"	300,000	수석부회장
차 명 섭	"	300,000	청년위원회 부회장
차 진 남	"	300,000	강렬공파 종손
차 효 열	"	240,000	청년위원장
차 용 대	"	210,000	새청도농협조합장
차 강 현	"	170,000	중앙회 자문위원
차 영 덕	"	120,000	중앙회 감사
차 승 환	"	120,000	중앙회 자문위원
차 재 철	"	120,000	지제문중
차 진 열	"	120,000	"
차 은 열	"	120,000	"
차 화 열	"	120,000	"
소 계		₩11,210,000	

개인 및 단체	일 자	출연액	비 고
차 우 열	"	120,000	"
차 만 호	"	120,000	"
차 덕 오	"	100,000	중앙회 이사
차 재 천	"	100,000	"
차 명 수	"	60,000	"
차 점 용	"	30,000	부산종친회장
차 용 재	"	10,000	자문위원장
소 계		₩540,000	
합 계		₩11,750,000	

나. 중앙회 장학금 수여현황(授與現況)

성 명	사진	학 교 명	장학금	비 고
차유은		한성대 미용학과 4학년	₩1,000,000	
차지우		안산대 세무회계학과 2학년	₩1,000,000	
차아영		수원여대 간호학과 1학년(신입생)	₩1,000,000	
합 계			₩3,000,000	

6. 각종 헌성금 내역

가. 중앙회 총회 성금자

2023년 2월 28일 (단위:원)

성명 및 단체명	헌성액	비 고
정남 남산문중	500,000	회원 일동
대구경북종친회	300,000	회원 일동
부여군종친회	300,000	회원 일동
홍천종친회	300,000	회원 일동
문절공파 장안문중	200,000	회원 일동
문절공파 지제문중	200,000	회원 일동
문절공파 화현문중	200,000	회원 일동
창주공파 당진성구파문중	200,000	회원 일동
대전종친회	100,000	회원 일동
울산종친회	100,000	회원 일동
충북종친회	100,000	회원 일동
오산공파종중	100,000	회원 일동
오산공파 아산문중	100,000	회원 일동
오산공파 당진종친회	100,000	회원 일동
인천종친회	100,000	회원 일동
당진 동산문중	100,000	회원 일동
강령공파 석포리종중	100,000	회원 일동
문절공파 하동문중	100,000	회원 일동
상주종친회	100,000	회원 일동
문절공파 충무종중	100,000	회원 일동
광주전남종친회	50,000	회원 일동
차 성 학	1,000,000	중앙회 명예회장
소 계		₩4,450,000

성명 및 단체명	현성액	비 고
차 병 표	100,000	중앙회 회장
차 병 찬	100,000	중앙회 수석부회장
차 동 배	100,000	중앙회 사무총장
차 일 남	100,000	중앙회 고문
차 영 규	100,000	차릉보존협회 회장
차 현 철	100,000	중앙회 부회장
차 용 재	100,000	중앙회 자문위원장
차 효 열	100,000	중앙회 청년위원장
차 광 열	100,000	중앙회 이사
차 덕 오	100,000	중앙회 이사
차 봉 섭	100,000	중앙회 이사
차 승 찬	100,000	중앙회 이사
차 종 목	100,000	중앙회 이사
차 준 식	100,000	중앙회 이사
차 진 열	100,000	중앙회 이사
차 태 병	100,000	중앙회 이사
차 태 영	100,000	중앙회 이사
차 태 호	100,000	중앙회 이사
차 강 현	100,000	중앙회 자문위원
차 덕 재	100,000	오산공파 부회장
차 상 우	100,000	오산시 수청동
차 상 학	100,000	대전시 서구 갈마로
차 상 택	100,000	서울 사당동
차 승 재	100,000	관악구 청룡동 8-2
차 인 흥	100,000	익산시 몽환신화길
소 계		₩2,500,000

성명 및 단체명	현성액	비 고
차 진 호	100,000	오산공파 아산종친회
차 재 원	100,000	강령공파 인천종친회
차 영 남	50,000	중앙회 고문
차 영 관	50,000	중앙회 이사
차 승 규	50,000	중앙회 자문위원
차 재 석	50,000	서울시 구로구 고척27가길
차 병 룬	50,000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차 성 관	50,000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
차 영 휘	50,000	대구시 달서구 구마로
차 재 윤	50,000	화성시 석포문중
차 준 환	50,000	서울시 동대문구
차 주 일	50,000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차 주 덕	50,000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차 한 규	50,000	정남 남산문중
차 흥 영	50,000	대전시 동구 용전동
소 계		₩850,000
총 합 계		₩7,800,000

나. 정기총회 물품기증

기증자	품 목	수 량	비 고
차 동 석	축하화환	1기	3단 화환

다. 의덕사 헌성금

2023년 10월 15일 (단위: 원)

성 명	금 액	비 고
대구경북총친회	300,000	회원 일동
문절공파 장안문중	300,000	회원 일동
정남 남산총중	200,000	회원 일동
문절공파 지제문중	200,000	회원 일동
문절공파 화현문중	200,000	회원 일동
부산총친회	100,000	회원 일동
차릉보존협회	100,000	회원 일동
대전총친회	100,000	회원 일동
울산총친회	100,000	회원 일동
강렬공파총중	100,000	회원 일동
강렬공파 봉양재문중	100,000	회원 일동
문절공파 충무총중	100,000	회원 일동
오산공파 아산총친회	100,000	회원 일동
강렬공파 석포총친회	100,000	회원 일동
강렬공파 영종문중	100,000	회원 일동
문절공파 하동문중	100,000	회원 일동
인천총친회	100,000	회원 일동
신양총친회	100,000	회원 일동
성환총친회	100,000	회원 일동
상주총친회	100,000	회원 일동
수원 득대문중	100,000	회원 일동
사당문중	100,000	회원 일동
차 덕 오	300,000	중앙회 이사
차 흥 봉	200,000	중앙회 고문
차 준 식	200,000	중앙회 이사
소 계	₩3,600,000	

성 명	금 액	비 고
차 장 용	200,000	중앙회 자문위원
차 성 학	100,000	중앙회 명예회장
차 병 표	100,000	중앙회 회장
차 병 찬	100,000	중앙회 수석부회장
차 영 규	100,000	중앙회 부회장
차 배 근	100,000	중앙회 자문위원장
차 광 열	100,000	중앙회 이사
차 상 역	100,000	중앙회 이사
차 점 용	100,000	중앙회 이사
차 명 수	100,000	중앙회 이사
차 재 천	100,000	중앙회 이사
차 병 현	100,000	중앙회 이사
차 진 열	100,000	중앙회 이사
차 효 열	100,000	중앙회 청년위원장
차 승 찬	100,000	중앙회 이사
차 재 윤	100,000	중앙회 청년위원
차 석 철	100,000	중앙회 자문위원
차 정 호	100,000	부산시 북구 덕천로234번길
차 동 배	100,000	평택시 세교2로 45
차 주 영	100,000	포천시 군내면 용두로117번길
차 현 영	100,000	평택시 서탄면 적봉길 2
차 석 환	100,000	서울시 관악구 남현2길
차 주 환	100,000	양평군 강상면 세월나루터길 20
차 용 재	50,000	중앙회 자문위원장
차 길 병	50,000	중앙회 관리이사
차 영 관	50,000	중앙회 이사
차 명 호	50,000	대전시 서구 계룡로
차 득 규	50,000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20번길
소 계		₩2,650,000

성 명	금 액	비 고
차 병 초	50,000	화성시 정남면
차 영 익	50,000	강원도 원주시
차 주 덕	50,000	서울시 중구 남대문시장4길
차 상 면	50,000	김해시 인제로210번길
차 호 균	50,000	평택시 비전1로
차 일 호	30,000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76
소 계		₩280,000
합 계		₩6,530,000

라. 의덕사 세향 물품기증

기증자	품 목	수 량	비 고
차릉보존협회	축하화환	1기	3단 화환
강렬공파종친회	축하화환	1기	3단 화환

마. 종보발간 성금

성명 및 단체명	성금액	비 고
장안문중	200,000	재백공 광주문중회 대표 차정연
대전종친회	100,000	회원일동
재백공 광주문중회	100,000	회원일동
계	₩400,000	

바. 일반성금

성 명	성금액	비 고
차 경 수	200,000	중앙회 부회장
차 승 찬	100,000	중앙회 이사
차 주 영	100,000	포천시 군내면
계	₩400,000	

XVI. 연안차씨종친회중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연안차씨종친회중앙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하고, 약칭은 연안차씨중앙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송조목종의 이념에 입각하여 선조의 덕업을 흠모 선양하며 문중의 총화 단결을 도모하고 각 광역시·도 및 시·군·구 종친회와 종문단체를 지도 육성하고 상호 유대를 공고히 하여 후손의 번영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본회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연안차씨 종원(성인 남·녀)으로 조직하며 서울에 중앙회를 두고 각 광역시 및 시·도에 종친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무소)

본회 중앙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광역시·도와 시·군·구, 해외 사무소는 각각 그 소재지에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하되 다음과 같다.
(정회원) 연안차씨 성인 남·녀는 누구나 본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명예회원) 외손이나 종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본회 취지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공로가 많은 자가 회원 되기를 원한다면 명예회원으로 될 수 있다.

제6조(권리와 의무)

- ①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1.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종사에 관한 제반 정보와 자료 제공을 받을 수 있다.

3. 본 회칙의 제반규정 각종 회의에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임원은 총회에서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종사에 관한 중대한 의결이 있을 때는 민법상 성인으로 하며 1세대 1표로 한다.

제7조(포상)

본 회원이 문중을 빛내거나 종사에 현저한 공로가 있을 때 표창한다.

제8조(징계)

회원이 아래 각 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1. 회칙 및 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본회 사업을 방해 또는 손해를 끼쳤을 경우
3. 본회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3장 임직원과 임무

제9조(임직원의 구성과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직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 약간 명
2. 명예회장 1명
3. 회장 1명
4. 수석부회장..... 1명
5. 부회장 약간 명
6. 이사 50명 이내
7. 감사 2명
8. 자문위원 필요 인원(다수)
9. 사무총장 1명
10. 총무이사 1명
11. 관리이사 1명
12. 관리실장 1명

제10조(선출과 임명)

- ①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결의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② 회장은 고문, 명예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자문위원을 위촉 또는 추대한다.
- ③ 이사는 회장 및 시·도 지회장 또는 각 문종의 장이 종사에 열성과 덕망을 갖춘 종원 중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④ 사무총장, 총무이사, 관리이사, 관리실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① 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 단, 회장과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본회 임원의 궐위가 있을시 30일 이내에 재선임을 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임기 만료 90일 전이면 재선임을 보류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은 회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 ③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 선임 시 까지 직무를 대행하고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 운영 및 기획에 관한 사항과 종재의 관리취득, 처분에 대한 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 ⑤ 감사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감사는 본회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2. 특별감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정기감사는 이사회 7일 전까지 완료한다.
- ⑥ 사무총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회무 일체를 담당하며 각급회의에 당연직 이사 또는 위원이 된다.
- ⑦ 총무이사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담당 회무를 한다.
- ⑧ 관리이사는 의덕사 및 묘소를 유지 관리한다.

제13조(임원의 제약)

본회 임원은 여하한 경우에도 본회를 이용하여 자기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보수)

본회 임원은 명예직 무보수로 하되 총무이사, 관리이사, 관리실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제4장 기구와 기능

제15조(기구)

본회는 총회, 이사회, 문헌위원회, 제례위원회, 장학위원회, 청년위원회를 둔다.

제16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총회의 개최)

-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실시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 3분의 1이상의 결의를 받아 2주일 이내에 개최할 수 있다.
- ③ 총회의 소집 통보의 방법은 본회가 관례대로 해온 바와 같이 본회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들에 한하여 소집통보를 하되 소집 통지의 방법은 일간신문, 서면(우편), 전화, 구두, 이메일, 본회 홈페이지, 다른 종원이나 그 종원의 세대주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관례란 3년간 3회 이상 통지를 하여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주소가 불명으로 판단하고 통지하지 않는다는 취지)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및 감사 선출(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이사회에서 제출된 안건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참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참석인원의 다수 결의로 의결하며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단, 당연직 이사란 명예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을 말한다.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안 심의
2. 회장 및 감사의 추천 결의
3.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
4. 재산 취득 및 처분의 승인
5. 사업계획 심의
6. 장학 사업에 관한 사항
7. 표창 또는 징계 대상자의 심의의결
8. 총회의 의결에 의한 수입 사항 심의의결
9. 감사가 필요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사항 심의의결
10. 기타 중요한 사항 심의의결

제22조(이사회 개최)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되,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 중 개최 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7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의사록)

각급 회의 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3인 이상과 회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5장 재정과 회계

제25조(재정)

1. 본회 재정은 연안회관 임대료와 성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재산(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 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연안회관)
대지 236.9㎡ , 건물 792.84㎡
(연면적 779.52㎡ : 지하:1층, 지상:6층)
 - 나. 평택시 장안동 종교부지 619㎡, 도로부지 254㎡
건물(사당 42.97㎡, 유물관 33.05㎡, 장안문 14.87㎡,
일각문 6.61㎡, 종약원(재실) 89.1㎡
 - 다. 화성시 양강면 요당리 19-23 공자유지 1,447㎡, 건물 594㎡
동 소 19-45 도로지분 1,210중 23.4㎡

제26조(수지 결산)

회계 연도가 끝나면 수지 결산에 관한 감사의 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사 업

제28조(사업)

본회는 회칙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현조 명조의 향사 봉행
2. 선조의 문헌 발간, 유적의 조사 보존 전승에 관한 사업
3. 선조의 덕업 선양과 육성에 관한 사업
4. 종보 발간, 족보의 편찬 발행 배포에 관한 사업
5. 종원의 경조, 위문 사업
6. 육영사업
7.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부 칙

제1조(해산)

본회의 해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조(각 시도 회칙)

각 광역시·도 종친회 회칙은 본회 회칙에 준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제3조(규정)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에 따라 이를 준용한다.

제5조(경과 규정)

본 회칙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회칙에 의하여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회칙의 제정 및 개정)

제정 1974. 11. 30. 규약 (제1호)

개정 1977. 11. 1. 정관 (제1호)

” 1986. 12. 1. 회칙 (제1호)

” 1987. 6. 5. 회칙 (제2호)

” 1990. 5. 1. 회칙 (제3호)

” 1996. 2. 1. 회칙 (제4호)

” 1996. 11. 12. 회칙 (제5호)

” 1998. 11. 21. 회칙 (제6호)

” 2001. 2. 22. 회칙 (제7호)

” 2003. 2. 27. 회칙 (제8호)

” 2010. 6. 16. 회칙 (제9호)

” 2017. 2. 23. 회칙 (제10호)

” 2018. 2. 23. 회칙 (제9, 10, 12, 20, 22조)

” 2019. 2. 21. 회칙 (제 1, 3, 4조)

” 2020. 2. 23. 회칙 (제 1, 3, 4, 9, 10,12조)

” 2022. 2. 16. 회칙 (제 9, 12, 20조)

제7조(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202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XVII. 차문 주요 향사일(享祀日)

祠齋所名	配享位	祭所	享祀日	所在地
懿德祠	車氏始祖以下賢祖109位奉安	祠堂	陰9月1日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285-1
車陵	新羅 丞相公 建申 陵 및 五代壇	陵	陰9月9日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동서길100
大東祠	大丞公 柳車達 位牌 奉安	書院	陰2月15日	광주시 광산구 동호동 614
大匡之伯 延安君	得貫祖 諱孝全 位牌 奉安	會館	陰10月1日	대구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33길 63 (두류동, 연안회관4층)

追慕祭

德源書院	文穆公.文節公.剛烈公 奉安	書院	陰 3月 上丁日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산81
如心堂	剛烈公 諱云革 遺像 奉安	齋室	陰 3月 中丁日	포항시 신광면 죽성리
道藏書院	上 同	書院	陰 3月 中丁日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別 廟	文節公 諱原頰 位牌 奉安	祠堂	陰 3月 3日	여주시 올촌면 구암리
尊敬閣	剛烈公 諱 云革 遺像 奉安	祠堂	陰 3月 3日	창녕군 이방면 초곡리
癸陽閣	上 同	齋室	陰 3月 3日	영덕군 지품면 울전리
東山書院	文節公.剛烈公 位牌 奉安	書院	陰 3月 15日	함안군 칠북면 남양리
崇文祠	五山公 諱 天輅 遺像 奉安	祠堂	陰 3月 15日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肅淸堂	剛烈公 諱 云革 遺像 奉安	祠堂	陰 8月 6日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不祧廟	剛烈公 諱 云革 位牌 奉安	祠堂	陰 8月 6日	화성시 장안면 석포2리
贊成公	諱安卿 諱 尙道 墓所 歲享	墓所	陰 10月 첫 일요일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중리
處士公	處士公 諱 仲生 墓壇 歲享	墓壇	陰 10月 첫 일요일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중리
車雲巖別廟	文節公 諱 原頰 位牌 奉安	祠堂	陰 9月 15日	경남 하동군 적량면 관리
五山墓所	五山公 諱 天輅 墓所 歲享	墓所	陰 9月 23日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우록
紫巖書院	文節公.剛烈公 位牌 奉安	書院	陰9月中丁日 이후 첫일요일	울산시 울주군 웅천면 통천리
麒思齋	剛烈公 位牌 및 遺像 奉安	墓所	陰 10月 3日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2리
仲連墓壇	處士公 諱 仲連 墓壇 歲享	墓壇	陰 10月 7日	충남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리
慕先齋	文節公 曾孫 繼生以下11位	齋室	陰 10月 11日	전남 여주시 올촌면 반월리
景山齋	五山公 諱 天輅 墓壇	墓壇	陰 10月 14日	경북 상주시 청리면 학하리
五倫齋	文節公7世 諱延富以下54位	齋室	陰 10月 20日	경남 통영시 도산면 오륜동
光文祠	進士 諱尙義以下74位 奉安	祠堂	陰 9月 18日	충남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276-1
文苑祠	五山公 諱 天輅 影幀 奉安	祠堂	陰 11月 15日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적서리410
鰲川書院	大院君의 撤廢令에 의거 廢院		復元事業推進中	전남 광양시
貞忠院	剛烈公 諱 云革 位牌 奉安	齋室	歲享日 未詳	함남 영흥군 인흥면 선양리
忠孝祠	上 同	祠堂	歲享日 未詳	함남 정평군 문산면 비석동
土沃祠	上 同	祠堂	歲享日 未詳	황해도 서흥군 토곡동
松原院	文節公 諱原頰 位牌 奉安	齋室	歲享日 未詳	경기도 개성군 송산리

지역문중 향사일(享祀日)

門中名	配享位	祭所	享祀日	所在地
당진오산	11世 諱 乾義 以下 24位	墓所	陰 10月 15日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적서리 418번지 대호청용원
아산문중	20世 諱 密頰 以下 137位	祠堂	陰 9月 18日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276-2
마도문중	23世 諱 有精 以下 30位	墓所	10月 4日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산166
문절공 예산신양	23世 諱 仲連 以下 23位	墓所	陰 11月 첫 토요일	충남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 두련길 산7번지
칠곡문중	23世 諱 得禎 以下 5位	墓所	陰 10月 14日	경북 칠곡군 지천면 674
남산문중	24世 諱 思戴 以下 36位	墓所	陰 10月 11日	오산시 지곶동 산136
포천화현	24世 諱 得連 以下 29位	齋室	陰 10月 10日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1148-17 (덕현제)
충무종중	27世 諱 璉路 以下 130位	墓所	4월 둘째 주 일요일	광주시 광산구 장수동 산74
鳳陽門中	28世 諱 德弼 以下 300位	崇德祠	陰 10月 둘째 주 일요일	경남 창원군 이방면 초곡리
성주 용암문중	28世 諱 仁 以下 5位	墓所	陰 10月 17日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리 1길 2
당진동산	29世 諱 注陸 以下 264位	齋室	陰 10月 15日 전후 토요일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문헌로780-11
현풍 자오문중	29世 諱 判官 以下 5位	墓所	陰 10月 3日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서로91길 9
후기손종중 (군산)	29世 諱 後基 以下 4位	祠堂	陰 한식날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403-1 후기손영묘원
상주문중	29世 諱 德機	齋室	陰 10月 15日	경북 상주 외남면 지사2리
성환문중	30世 諱 忠英 以下 2位	墓所	陰 10月 15日	아산시 둔포면 염자리 외 두 곳
장안문중	31世 諱 應勳 以下 28位	齋室	11월 첫째 주 토요일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을 외현리 2-5
청도문중	36世 諱 慶安 以下 13位	墓所	陰 8月 13日	경북 청도군 청도읍 매전면 남양리
남해문중	31世 文節公派 入鄉祖 仁鳳 以下 世葬地	墓所	陰 10月 2번째 日曜日	경남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898

XVIII. 편집 후기

■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차문종보」가 지령(誌齡) 30호를 맞게 되었다. 사람으로 치자면 혈기왕성한 장년기로 접어들었다.

주지하듯이 우리 연안차씨종친회중앙회는 1974년 11월 ‘중앙총본부’라는 명칭으로 처음 결성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뒤인 1979년 3월 「차문종보」를 창간했다. 창간호를 찾아보았더니 당시 회장(제2대) 차규헌 종장님은, ‘차문종보 창간호를 내면서’라는 제목의 창간사에서 「차문종보」의 창간 경위와 사명을 아래와 같이 밝혀 놓았다.

“1978년 무오(戊午) 11월 2일(음 10월 2일) 평택 장안리에 모신 월파옹(月波翁)과 문절공(文節公)의 묘전에서 1978년도 차씨종친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국 일가들이 종보(宗報)를 발간하기로 결의한 바 있어, 이에 「차문종보」 창간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전국의 일가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는 동시에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중략]

종보의 사명은 중차대(重且大)한 것이며 동시에 종친운동에 크게 이바지할 것을 확신하며, 회장으로서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바를 옮긴다.

첫째 명조(名祖)의 사적을 쉬운 글로 정확하게 알린다. 또 일가들이 송조목종(崇祖睦宗)하는 일들을 수록하여 종보를 읽음으로서 송조의식을 높인다. 또 일가 간의 유대강화와 상부상조의 실을 거두도록 한다.

둘째 종폐(宗弊)를 끼치지 않는 깨끗한 종친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종친회장으로서의 신조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차문종보」는 무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중략]

셋째 종보는 문중의 공기(公器)인 만큼 송조목종의 좋은 면은 권장하고 또 조상을 욕되게 하고 일가를 해치는 일은 과감하게 시정하는 광장으로 그 사명을 다하여야 하겠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차규헌 회장이 창간사에서 밝힌 위와 같은 「차문종보」의 사명을 지금까지 그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창간호(제1호)를 발간한 다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8년 동안이나 발행하지 않다가 1988년 11월 속간하여 제2호를 냈다. 그 뒤 35년 동안에 비록 네 번의 결호가 있었으나,

근래에는 매년 빠짐없이 발간하여 드디어 이번에 통권 제30호를 내게 된 것이다. 우리 「차문종보」는 우리 문중의 공기(公器)로서 그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4년 1월 17일(화) 오전, 문헌위원회 회의를 연안회관 4층에서 개최했다. 우선 종보 제30호에 게재할 원고의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수정, 보완할 사항들에 관하여 논의하고 의결했다. 그 과정에서 원고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여러 가지 수정, 보완 사항들을 제시해 주신 ‘성학’ 명예회장님께 특히 감사드린다. 그밖에 여러 문헌위원님에게도 감사의 말을 올린다.

■지난 2023년 11월 23일 연안차씨 울산종친회에서 보낸 ‘차문종보 발행년도 검토 요청 건’에 관한 문서가 중앙회에 접수되었다. 요점은 종보의 발행 일자가 1년씩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종보 제29호의 경우, 실제로는 2023년 2월에 배포되었으나 표지와 판권장에는 발행연도가 2022년으로 되어 있어, 전년도 종보를 받는 현실이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것이 곧 울산종친회의 요청이었다. 그래서 이를 지난 1월 17일(화) 오전에 열린 문헌위원회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의한 결과, 발행연도는 표지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판권장에만 실제 발행연월을 기재토록 의결했다. 이에 종친 여러분께 알려 드린다.

종친 여러분, 갑진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편집진 일동.

報宗門車

通卷 第30號

文獻委員 委員長 車培根
委員 車成學
委員 車政演
委員 車根甲
委員 車聖儀
委員 車榮南
委員 車載慶
委員 車奉燮
委員 車相權
委員 車雄煥
委員 車長燮

2024年 1月 日 印刷

2024年 1月 日 發行

發行人 車炳表

編輯人 車培根

主 幹 車柄贊

發行處 延安車氏宗親會中央會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18길 10

(방배동, 연안회관 4층)

전 화 (02) 583-9371 · 9382

F A X (02) 583-9381

<http://www.cha.or.kr> e-mail : cha@cha.or.kr

종보후원 계좌번호 농협: 301-0062-6842-21

연안차씨중앙회

(비매품)